3대째 오로지 전통 수제 작설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시범록 •
•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적게— 빅맨평생통장
•이자가 오르면 오른금리로 내릴때는 약정금리로!
•고객적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0월 18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자비심이 곧 부처님이며 내 마음에 극락이 있다.
〈화엄경〉

지면 안내

특집 I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고형곤박사 특별대담 3
경전 속 수행법구 4
재가자들의 수행방법 5
46선지식 생활법문 6·7
불법을 세계로 8
현대불교의 사시인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이끄는 6인의 보살.
송담스님 지상법석 9
타종교인이 만난 불교 10
불교를 아끼는 타종교인들의 불교 인연 이야기.
포교1번지 '조계타운' 15
불교골 조계사 주변의 애환과 40여 불교관련 점포와 사람들.
독자 설문조사 23
도천스님의 하루 27
40여년간 두문불출 · 묵언정진. 86세 고령에도 밤낮없이 운력에 몰두하는 태고사 도천스님의 하루.

지난 1년동안 성원해주신 애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995. 10. 15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문화재 · 환경보호 개발보다 우선" 62.6%

현대불교 창간 1주년 불자 지자체 단체장 67명 설문조사

지역개발이나 문화재 및 환경보호나. 고속전철의 고도 경주 통과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한 가운데, 불자 지방자치단체장들 대다수는 문화재나 환경보호가 지역개발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관련기사 2면〉

이같은 사실은 본지가 지자체 시행 1백일에 맞춰 전국의 광역 ·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불지 단체장 67명(조계종 총무원 집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8명의 응답자 가운데 62.6%가 이같이 응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면 설문지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역개발과 불교 문화재 보존 또는 환경보호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문화재나 자연환경이 지역개발에 우선해 보호돼야 한다(43.8%) △환경보호가 우선돼야 한다(18.8%) △사례별로 검토해야 한다(37.4%)로 나타나 62.6%의 단체장들이 지역개발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존과 환경의 보호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문화재의 보고 경주의 고속전철 통과 여부를 계기로 정부 관련부처, 교계, 학계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히 맞서, 마치 지역개발이 문화재 및 환경보호와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작용하는 것으로까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첨병인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식으로 나타나 향후 문화관련 지역 정책결정에 중요한 근간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위영란 기자〉



목어

"헝~"
"대풍아"

인기정상을 달리고 있는 TV드라마 '젊은이의 양지'에서 한 소년과 청년이 서로를 부르는 이 간단한 대화가 자주 시청자의 폿등을 사른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혀 남남이면서 친동기 이상으로 지내는 그들에게는 눈꼽만큼도 가식이 없다. 비록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아픔과 기쁨을 함께한다. 그래서 보는 이들은 감동하고 눈시울을 적시나 보다. 이 드라마에서는 가슴이 저리도록 자기를 희생하며 사람을 가꾸는 사람들이 여럿 등장한다. 인기 정상의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가을이 깊어가는데…

사회가 아무리 메마르고 현대인들의 가슴이 옛같지 않다 해도 아직은 진실을 갈망하고 아름다운 사람앞에 순일해지는 사람들이 많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다'

같은 출판사에서 펴낸 두권의 책 제목이 서로 응답하는 양 신문광고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런 말과 함께.

'당신한테는 이사람이 있는가? '나는 너다' '너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너와 나의 상을 세우지 않고 내가 너이고, 너가 나일때 그것은 사랑이고 자비이다. 그럴때 사람들은 감동한다.

너와 나는 물론 주위의 보는 이들 까지.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나는 누구를 아니 얼마나 많은 이웃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 자문해 보자. 그 자문은 어디에도 해당된다. '현대불교'는 1년간 독자를 얼마나 감동시켰을까. 1주년 생일을 맞아 1단짜리 기사 한줄에도 감동을 담아 우리 모두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길을 넓혀 나갈 것을 거듭 다짐해본다.

법답게 살면 저절로 나는 너가 될테니까.

본지 창간 1주년 특집 28면 발행

전자게시판 「부다피아」 개통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1주년을 맞아 교계 언론사로서는 최초로 독자적인 전산정보망을 구축, 1차로 전자게시판 「부다피아」(Buddhapia BBS)를 개설하고 현대불교 전자신문, 영상멀티미디어 마당, 온라인 설법방등 을 선보입니다.

부처님의 땅-부다피아로 명명된 현대불교신문의 전자게시판에는 현대불교에 게재된 모든 기사 및 문화 · 학술관련 교계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큰스님들의 설법방, 전자메일, 대화방등이 설치돼 누구라도 전화망을 통해 접속 이용이 가능케 되어 있습니다.
〈관련기사 24 · 25면〉

특히 「부다피아」는 교계 최초로 動畵像제공 가능도 갖추었으며 CD롬타이틀제작 및 주문형비디오(VOD) 취급도 가능한 수준의 멀티미디어 체제로 운영됩니다.

動화상 · 온라인 설법방등 설치
VOP · CD롬 타이틀 제작도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곧 개설

「부다피아」는 또한 인터넷과 접속,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전세계 불교사이트와의 연결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이번 「부다피아」 개통에 따라 멀티미디어 체제에 한발 다가선 것을 계기로 장차 한국을 대표할 불교종합정보센터로 발돋음하기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의 이같은 노력은 정보화시대를 맞아 구시대적 포교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고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매체포교의 장을 개척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연회 일정

1. 일시 : 10월 16일~21일 하오 3시~7시
2. 장소 : 본사 1층 책방 여시아문
3. 시연내용
   - 부다피아 전자게시판 - 영상 멀티미디어 서비스
   - 현대불교전자신문 서비스 - 온라인 설법마당
4. 부다피아 설명회 : 월 · 수 · 금(하오 3시~4시)

※ 문의전화 (02)722-4162~3

10월 15일 창간 1주년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주년 맞은 현대불교의 다짐

약속을 지키는 신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 더 있어서 좋은 신문」이 되자고 다짐했던 1년 전의 출발을 되돌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애독자를 향해 겸허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다.

인간사 어디서나 그러하듯이 출발이란 희망과 각오와 다짐으로 장식된다. 현대불교신문의 탄생 순간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는 꼭 1년 전, 이 땅이 불국정토가 되고 나아가 세계가 불법으로 감화되는 것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는다고 말했다.

또한 2천만 불자의 대변지로서 불법홍포의 최정예가 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애독자 제현에게 몇가지 약속의 말씀도 드렸었다. 첫째는 전지면을 신행·포교 중심으로 제작한다는 것, 둘째는 불교정보센터를 개설한다는 것, 셋째는 불교영자지 발간과 영상포교사업에 착수한다는 것이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희망은 이상주의자의 꿈 같은 것일수 있고, 우리의 각오는 막대한 투입이 따라야만 가능한 것이며, 우리의 약속은 1년 간의 짧은 세월로는 감당키 어려운 것이었다.

실제로 지난 1년, 더 좋은 신문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애를 써 왔지만 아직은 여러모로 미흡하다. 지면은 질적·양적인 면에서 독자의 욕구를 전폭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2천만 불자의 대변지를 자처하기에는 사업적 기반이 취약할 뿐아니라 경영나용면에서도 교계 언론 공통의 구조적 한계를 뛰어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우리로 하여금 솔직히 자괴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현대불교신문은 현실에 안주하기를 거부한다.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이고 뜻한 바를 잊지않고 해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밝힌 희망과 각오와 약속의 내용이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이라면 기필코 우리가 하겠다는게 현대불교 사원 모두의 초발심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한다.

첫째, 현대불교는 질적·양적인 면에서 좀더 세련되고 심화된 지면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을 것이다. 주 16면 시대를 이끈 현대불교는 신행·포교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다지고 나아가 이 시대의 불자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부처님을 닮아가도록 향도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그를 위해 독자의 요청이 있다면 증면도 고려할 것이다.

둘째, 불교정보센터를 개설해 세계와 한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다.

현대불교는 창간 1주년을 기해 이미 독자적인 정보망을 구축, 신문기사와 기타 교계 정보는 물론 동화상(動畵像) 서비스가 가능한 「부다피아」를 창설했고 조만간 인터넷 홈 페이지도 개설해 멀티미디어시대에 부응할 준비를 갖추었다.

향후엔 부다피아 정보망을 통해 한국내 불자간의 통신은 물론 세계와 한국 교계를 연결하는 폭넓은 영문 서비스 체제를 갖출 것이다.

이는 창간 당시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셋째는 출판사업의 본격적인 착수이다.

이 출판사업엔 경전을 현대어로 풀어쓰는 작업이 포함될 것이며 주로 생활불교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제반 도서를 펴내는 데 주력할 것이다.

현대불교의 이같은 약속은 바로 사시(社是)인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실현하는 과정인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현대 인류가 직면한 위기적 상황에 대처해 불교적 대안을 제시해야만 할 불자들의 시대적 소명에 충실히 따르는 일이 되기도 한다.

오늘, 현대불교신문은 1년 전으로 돌아가 우리 자신을 창간시의 거울에 되비쳐 보면서 약속을 지키는 신문으로 거듭날 것임을 다짐한다. 앞으로 1년후 창간 2주년이 되는 날, 우리에겐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각오로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이다.

애독자 제현의 아낌없는 질정(叱正)을 바라 마지 않는다.

"종교 관계 중립 지키겠다" 81.3%

지자제 100일 본지 불자 지자체 단체장 설문조사

"사찰은 윤리·가치관 정립에 기여 해야" 87.5%

"불자지지로 당선" 50% … "월 1회 절 찾는다" 51%

지방자치시대에 사찰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윤리·가치관 정립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창간 1주년을 맞아 8월16일부터 10월4일까지 지자체 불자단체장(67명 중 48명 응답)에게 실시한 설문분석에 따르면 사찰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윤리·가치관 정립'(87.5%) 사회복지(6.3%) 환경보호(3%) '경제정의·지역갈등 증재등 기타'(3.2%) 순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나타나 정신적인 교화에 불교계가 앞장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관할지역에서 각 종교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분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식구조'(62.5%) '다방면으로'(31.3%) '시민운동'(6.2%) 순으로 나타나 종교가 지역주민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줘 앞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불자단체장들은 지난 6.27선거에서 불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당선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27선거때 불자들이 적극 지지해서 당선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50%가 그렇다, 50%가 '조금 그렇다'고 응답, 불자당선자 대부분이 불자들의 지지가 당선에 도움이 됐다고 보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불자당선자의 관할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종교로 불교(62.5%)가 꼽힌 사실로도 입증된다.

선거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에 대해서도 '영향이 크다'가 43.8%, '보통이다'가 56.2%로 나타나 대다수가 종교의 영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자체를 운영하는데 있어 종교단체와의 관계구상에 대해서는 '종교를 가리지 않고 호의적으로 하겠다'(50%) '어디서건 중립을 지키겠다'(31.3%) '불교를 우선적으로 하겠다'(18.7%)순으로 나타나 81.3%가 각종교에 대해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의 사회봉사·구휼활동에 대해서는 75%가 '좀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12.5%가 '소극적'이라고 답변한 반면 12.5%만이 '현상태가 적절하다'고 응답, 87.5%가 불교계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전통사찰보존법·종합토지세법등 불교관련법에 대해서는 81.3%가 '잘 모른다', 18.7%가 '잘 알고 있다'고 답변, 이에대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불교에 입문한 계기로는 '불교집안'(75%) '본인의사'(18.8%) '배우자 따라'(6.2%)로 나타난 반면 '주위의 권유'는 0%로 나타나 불교의 소극적인 포교형태를 보여줬다.

이중 계를 받은 단체장은 18.7%, 받지 않은 단체장은 81.3%로 나타났다. 계를 받지 않은 단체장들은 '기회가 되면 받겠다'(61.5%) '안받아도 상관없다'(38.5%) 등으로 응답, 수계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찰(포교당)을 찾는 횟수는 '년 1~2회'(30.3%) '월 1회'(51%) '주 1회'(18.7%)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찰이나 불자들과의 교류는 '잦은편'(37.5%) 보통(56.3%) '별로 없다'(6.2%) 순으로 응답했다. "개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7.5%가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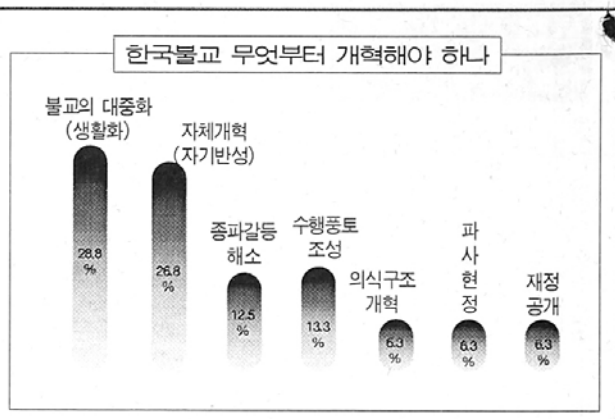
또 한국불교가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대하다(50%) 보통이다(43.8%) 미미하다(6.2%) 등으로 밝혀 93.8%가 영향이 있다고 보았다.

한국불교가 우선 개혁해야 할 것으로는 '불교의 대중화(생활화)'(28.8%) '자기반성을 통한 자체개혁'(26.8%) '수행기풍 조성'(13.3%) '종파갈등 해소'(12.5%) '의식구조 개혁'(6.3%) '파사현정(破邪顯正)'(6.3%) '재정공개'(6.3%)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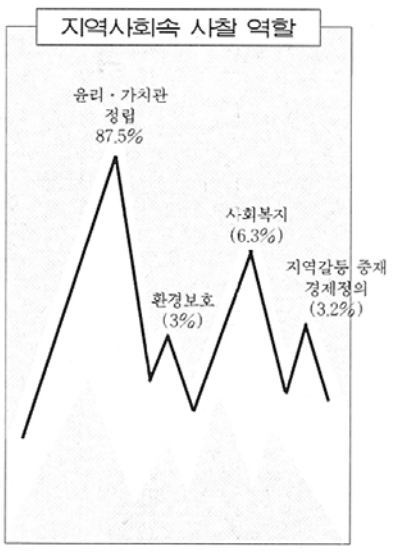
특히 대대로 불교를 믿어온 집안의 영향을 받아 입문한 단체장 36명은 '불교의 대중화'(25%) '자체개혁'(25%) '수행기풍 조성'(16.7%) '의식구조 개혁'(8.3%) 등을 개혁의 우선적 과제로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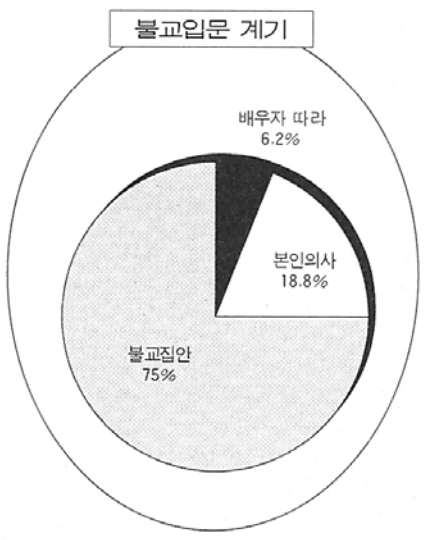
한편 조계종 총무원이 조사한 '광역·기초 단체장 종교현황'에 따르면 245명의 단체장 중 불교가 28.1%, 기독교 31.2%, 천주교 11%, 유교 0.4%, 무교 2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15명의 광역단체장 중 불교는 6명, 기독교 5명, 천주교 2명, 무교 2명으로 나타났다.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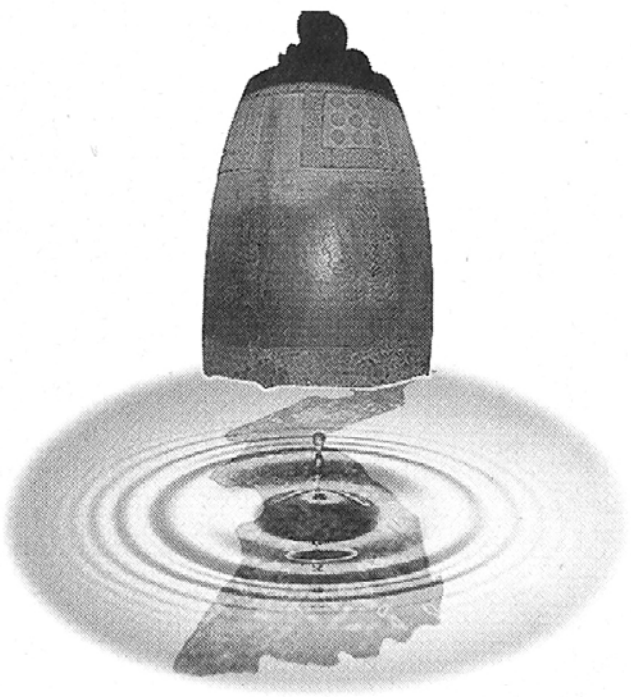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불교 입문자를 위한 동산불교 기초교육원
불교지성인을 육성하는 동산불교대학
일선법사를 양성하는 동산불교 전문 연구원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TEL:732-1206~8, 722-0408)

* 현대불교신문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불교방송은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함으로써
자비, 평등, 해탈을 바탕으로한
인간 존엄성의 구현과 사회의 정토화를 추구합니다.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대중화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불교방송은
정법구현을 통한 불국정토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교방송에 귀 귀울이면
자비의 법음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일궈갈 것입니다.

■ 불교방송 전국방송망 확장에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바랍니다.

불교부산방송과 불교광주방송의 개국에 이어 대구와 청주에서도 불교방송이 곧 개국합니다. 불교대구방송과 불교청주방송이 전국 불자님들의 성원하에 여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동참을 기원합니다.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MHz · 부산 FM 89.9MHz · 광주 FM 89.7MHz

창간 1주년 특집 I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4 ····· 경전속에 나타난 수행법구
5 ····· 재가자 수행방법
6 7 ····· 46큰스님 생활 법문

'나' '너' 구분하는 마음 苦의 원인

禪 철학연구 거두 고형곤 박사에게 듣는다

경기도 안양시 갈산동 샘마을 대우아파트 105동 701호. 나뭇잎은 살랑살랑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그야말로 전형적인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는 1995년 9월30일 토요일. 아직도 약주를 즐기신다는 취재기자의 말에 따라 양주를 한 병 사들고 초인종을 누른 것은 약속시간 5분전인 10시55분이었다. 이제 막 소세(梳洗)를 마친듯 수건으로 손을 닦고 나오는 노사(老師)에게 큰 절을 올린 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좌정(坐定)하였다.

90세 고령 불구 '천진난만'

내가 선생을 뵌 것은 학부에 재학중이던 70년대초 당시 선생은 〈禪의 존재론적 究明〉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학계의 주목을 집중시켰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벌써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셈이다. 90세의 고령이라고는 결코 믿겨지지 않는 정정한 체격하며 카랑카랑한 음성. 돋수 높은 안경 너머로 내비치는 형형한 안광(眼光)을 빼놓고는 모두가 천의무봉의 천진난만한 모습이다. 공부를 많이 하면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일까?

-선생님, 도인같다는 소리는 듣지 않으셨어요?

"왜, 들은 적도 있지. 내장산에 있을때 언젠가 KBS에서 몰려 와서는 나를 도사처럼 보기도 하더구먼. 또 한번은 바람에 남화경만 달랑 넣고 나를 도인이랍시고 찾아 온 사람도 있었는데, 타일러서 보낸 적도 있지. 하지만 나는 학문하는 사람이야. 기인이라면 다소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내장산에서는 언제 나오셨어요?

"3년 전이지. 11년 동안 있다가 루마치스 때문에 나왔어."

그 11년 동안 산속에서 선생은 혼자 무엇을 하였을까. 세간의 풍설처럼 참선에 몰입하고 있었을까. 그동안 혹 인간적인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아니야. 나는 외롭지도 않았고, 참선을 하지도 않았어. 추운 겨울에 구공탄을 때며 불씨를 안꺼뜨리려고 고생한 적도 있긴 하였지만, 여덟평 남짓한 서재에 절에서 전기 끌어다 쓰면서 가스렌지까지 설치해 놓고는 오로지 책을 읽으며 정리작업을 했지. 그 중에서도 훗설(Husserl)의 작품은 거의 다 섭렵하며 철저히 읽었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애. 그 심리분석은 참으로 기막힌 면이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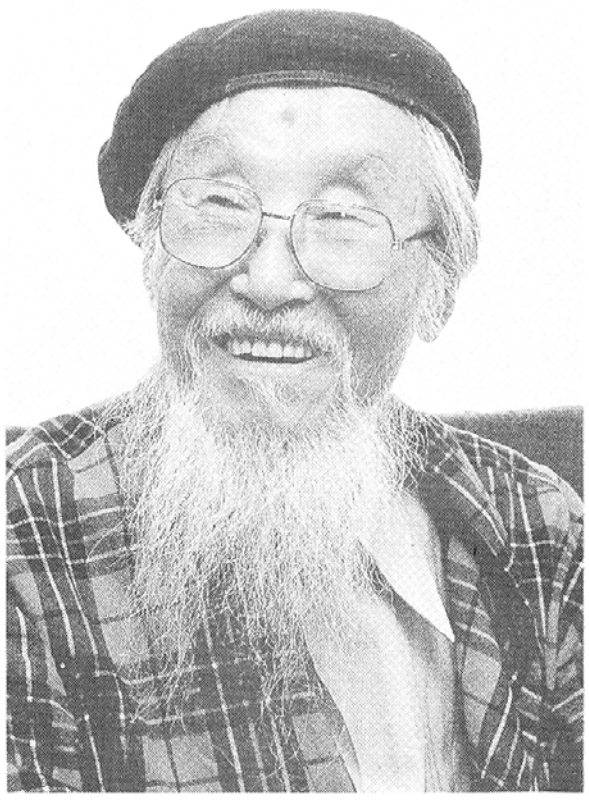
이렇게 해서 그동안 깨알같이 써놓은 각종 원고자료가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손을 대지 못했던 원효에 대한 재해석을 마무리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세상을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심경을 토로한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내놓은 원효의 연구라는 것은 포교 차원의 저작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생의 단호한 평가이다.

선생의 논저는 거의 모두가 불교와 관계되어 있고 특히 선(禪)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선생은 언제부터 여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일까.

악 력

- 69년 서울대 대학원 철학박사
- 47~59년 서울대 철학과 교수
- 54년 철학회 초대회장
- 59년 전북대 총장
- 63년 6대 국회의원

〈저서〉 '철학개론' '선의 존재존적 규명' '해동 조계종의 연원' '선의 세계' 수필 '하늘과 땅과 인간' 〈수상〉 학술원 저작상



러한데, 하물며 우리가 왜 우리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느냐는 자책감이 들었지. 세계화라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어. 뱁새가 황새 따라가듯 건성건성 세계를 뒤좇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세계무대에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나 역시 세계화 작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달과 손가락 관계 알아야

-선생님은 불교의 특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불교는 철학이라 할만큼 심오한 인식론적 체계를 갖추고 있어. 서양보다도 훨씬 먼저 시작되어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철학하는 사람들에게 공부할 영역을 무궁무진하게 제공해 주고 있지. 불교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의식의 구속에서 탈피하여 대자유를 얻는 인식론적 해탈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선생님의 논문 서문에 '先以遮解信入하고 後以無思契同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우선 교(敎)를 통해서 들어간 뒤에 선으로 계합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맞았어. 그 말은 바로 보조국사께서 하신 말씀이야. 내가 그 논문을 쓴 동기도 바로 그것이지. 달을 보기 이전에는 가리켜 주는 손가락이 있어야 하고, 강을 건너기 이전에는 타고 갈 배가 있어야 하는 이치와 마찬가지이지. 나도 불교의 진리를 하이데거나 훗설의 정밀한 분석방법을 통해 설명해 보려고 그 논문을 썼던 것인데, 내가 충분히 더 알았으면 더 잘 풀어서 썼을거야. 그런데 나 자신도 겁을 내며 무서워 한 나머지 잘 풀지를 못했어. 그런 점에서 독자에게 미안한데, 후학에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거야."

-그런데 보조국사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보조국사의 돈오점수 사상을 폄하하는 움직임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조계종의 법통에 대한 논란도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조사선의 시각에서 볼 때 보조국사의 교설을 순금이 아닌 합금이라고 매도할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나는 한국불교의 본색은 선교일치를 제창한 보조국사에게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 태고가 연경(燕京)에 가서 석옥청공의 임제종 법맥을 받아 왔다고 하지만, '吾道가 東遷하는구나'라는 칭찬을 받게 된 것 역시 보조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봐야 할 거야. 그리고 서산 역시 태고의 임제종 법맥을 이어 받긴 하였지만 〈선가귀감〉 같은 책을 보면 모두가 선교일치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조계종의 연원에 관해서 포광(包光:김영수씨)이 이의를 제기한 적도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곧 출판될 책에서 상세히 볼 수 있을거야.

그리고 이른바 '돈오돈수'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는데, 나에게는 별로 신통하게 여겨지지를 않아. 수도라고 하는 수의 뜻에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무한한 고행만이 있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깨치고 난 뒤에 다시 입세간(入世間)하는 그 과정의 수(修)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야. 유마가 왜 병을 앓았나?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기 때문이야. 자기 혼자 돈오 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지. 상구보리와 하화중생 모두를 이루어야만 정말 깨쳤다고 할 수 있지. 만약 돈오돈수식이라면 부처님이 왜 구태여 녹야원에서 강의를 했을까. 부처속에 중생이 들어 있고 중생이 곧 자기의 몸이기 때문이지. 말하자면 깨치기 전만이 아니라 그 뒤의 수도가 진짜 수도라고 해야 할거야."

대 담



이 상 현
〈민족문화추진위 전문위원〉

-우리 중생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깨우쳐 나가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요목(要目) 하나만 제시해 주십시요.

관념 허깨비 먼저 버려야

"능소(能所: 주객이라는 뜻의 불가 전문 용어임)의 대립을 불식하도록 노력해야지. 모든 것을 강물처럼 흐르는 인간의 의식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관념적 표상일 뿐이야. 사람들은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동일성 즉 자성을 유지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실재에 대한 신빙성을 가차없이 버리도록 노력해야 돼. 그리고 급기야는 의식의 흐름까지도 버려야 하는데, 그것이 해탈이지. 그러고나면 비로소 「山是祇是山 水是祇是水」의 실상의 경지가 전개될거야."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분이 치밀어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다고 할 때, 정작 자기가 죽여야 할 대상은 자신의 분심(忿心)이지, 상대방은 아니거든. 그런데 내가 만들어낸 분심이라는 의식의 관념은 칼로 찌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거지. 그것이 바로 능소의 대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말하자면 세속적인 인간들은 의식 작용을 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의식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실재 한다고 믿은 나머지, 그것을 객체화 하고는 이를 획득하여 자기의 소유로 하려고 안달하는 데에서 온갖 고뇌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었다.

-현금 한국 불교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만약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유감스럽게도 종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좋은 자리 얻으려고 싸우는 것을 보면 정치이지 종교가 아니야. 주제넘게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우선 사찰 경제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거야. 복전불교가 우리 불교를 망치고 있어. 각 사찰마다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널려 있는데, 고냉지 채소를 재배한다든가 무슨 방법이든 강구해서 승려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게 해야 돼. 공양을 안 받아도 살 수 있게 되어야만 진실한 공부를 할 수 있거든.

"좋은 자리 얻으려고 싸우는 것을 보면 정치이지 종교가 아니야 한국불교가 거듭나려면 福田불교 지양해야"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국립공원 관람료에 대한 문제야. 나도 내장산에 있어 봤지만 유명한 사찰의 경우 한 해에 몇 억 혹은 수십 억씩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이권을 둘러싸고 서로 주지를 하려고 싸우고들 있지. 그러니 그 수입을 사찰에서 차지하지 말고 철저히 공적으로 관리 경영하는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할거야."

시계를 보니 벌써 한 시 반. 대답한지 두 시간이 훨씬 넘도록 지칠줄 모르고 자상하게 얘기해 주는 선생의 열정에 새삼 경외감을 느끼면서, 우리는 아쉬운 마음으로 문을 나섰다. 더욱 오래 사시며 강건하시기를 빌면서.

"소유욕에서 고뇌 발생…깨침뒤의 닦음 더 중요"

자연과학적 사유 '막다른 골목'…전세계 禪관심

"연전(延專)에 있던 40세 무렵부터이지. 일본 학자들이 독일에 가서 하이데거(Heidegger)와 대담한 논문을 보고 적지않은 충격을 받았어. 물론 하이데거 이전에도 니체나 키에르케고오르·쇼펜하우어 등이 자연과학적 방식의 서양의 사유가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을 느끼고는 그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려고 노력했었는데, 하이데거에 이르러서는 동양적 사유, 그중에서도 특히 선(禪)에 대해 관심이 지대하였고, 그래서 강의를 끝낼무렵에 가서는 '척수성성(隻手成聲:한 손바닥만으로 소리를 낸다는 뜻의 일종의 선기(禪機)'의 몸짓을 보여주기까지 하였다는 거야. 하이데거도 그 인식론적 체계를 통해서 들어간 뒤에 선으로 계합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맞았어. 그 말은 바로 보조국사께서 하신 말씀이야. 내가 그 논문을 쓴 동기도 바로 그것이지. 달을 보기 이전에는 가리켜 주는 손가락이 있어야 하고, 강을 건너기 이전에는 타고 갈 배가 있어야 하는 이치와 마찬가지이지. 나도 불교의 진리를 하이데거나 훗설의 정밀한 분석방법을 통해 설명해 보려고 그 논문을 썼던 것인데, 내가 충분히 더 알았으면 더 잘 풀어서 썼을거야. 그런데 나 자신도 겁을 내며 무서워 한 나머지 잘 풀지를 못했어. 그런 점에서 독자에게 미안한데, 후학에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거야."

-그런데 보조국사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보조국사의 돈오점수 사상을 폄하하는 움직임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조계종의 법통에 대한 논란도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조사선의 시각에서 볼 때 보조국사의 교설을 순금이 아닌 합금이라고 매도할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나는 한국불교의 본색은 선교일치를 제창한 보조국사에게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 태고가 연경(燕京)에 가서 석옥청공의 임제종 법맥을 받아 왔다고 하지만, '吾道가 東遷하는구나'라는 칭찬을 받게 된 것 역시 보조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봐야 할 거야. 그리고 서산 역시 태고의 임제종 법맥을 이어 받긴 하였지만 〈선가귀감〉 같은 책을 보면 모두가 선교일치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조계종의 연원에 관해서 포광(包光:김영수씨)이 이의를 제기한 적도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곧 출판될 책에서 상세히 볼 수 있을거야.

그리고 이른바 '돈오돈수'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는데, 나에게는 별로 신통하게 여겨지지를 않아. 수도라고 하는 수의 뜻에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무한한 고행만이 있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깨치고 난 뒤에 다시 입세간(入世間)하는 그 과정의 수(修)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야. 유마가 왜 병을 앓았나?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기 때문이야. 자기 혼자 돈오 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지. 상구보리와 하화중생 모두를 이루어야만 정말 깨쳤다고 할 수 있지. 만약 돈오돈수식이라면 부처님이 왜 구태여 녹야원에서 강의를 했을까. 부처속에 중생이 들어 있고 중생이 곧 자기의 몸이기 때문이지. 말하자면 깨치기 전만이 아니라 그 뒤의 수도가 진짜 수도라고 해야 할거야."

-우리 중생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깨우쳐 나가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요목(要目) 하나만 제시해 주십시요.

관념 허깨비 먼저 버려야

"능소(能所: 주객이라는 뜻의 불가 전문 용어임)의 대립을 불식하도록 노력해야지. 모든 것을 강물처럼 흐르는 인간의 의식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관념적 표상일 뿐이야. 사람들은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동일성 즉 자성을 유지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실재에 대한 신빙성을 가차없이 버리도록 노력해야 돼. 그리고 급기야는 의식의 흐름까지도 버려야 하는데, 그것이 해탈이지. 그러고나면 비로소 「山是祇是山 水是祇是水」의 실상의 경지가 전개될거야."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분이 치밀어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다고 할 때, 정작 자기가 죽여야 할 대상은 자신의 분심(忿心)이지, 상대방은 아니거든. 그런데 내가 만들어낸 분심이라는 의식의 관념은 칼로 찌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거지. 그것이 바로 능소의 대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말하자면 세속적인 인간들은 의식 작용을 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의식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실재 한다고 믿은 나머지, 그것을 객체화 하고는 이를 획득하여 자기의 소유로 하려고 안달하는 데에서 온갖 고뇌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었다.

-현금 한국 불교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만약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유감스럽게도 종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좋은 자리 얻으려고 싸우는 것을 보면 정치이지 종교가 아니야. 주제넘게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우선 사찰 경제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거야. 복전불교가 우리 불교를 망치고 있어. 각 사찰마다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널려 있는데, 고냉지 채소를 재배한다든가 무슨 방법이든 강구해서 승려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게 해야 돼. 공양을 안 받아도 살 수 있게 되어야만 진실한 공부를 할 수 있거든.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국립공원 관람료에 대한 문제야. 나도 내장산에 있어 봤지만 유명한 사찰의 경우 한 해에 몇 억 혹은 수십 억씩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이권을 둘러싸고 서로 주지를 하려고 싸우고들 있지. 그러니 그 수입을 사찰에서 차지하지 말고 철저히 공적으로 관리 경영하는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할거야."

시계를 보니 벌써 한 시 반. 대답한지 두 시간이 훨씬 넘도록 지칠줄 모르고 자상하게 얘기해 주는 선생의 열정에 새삼 경외감을 느끼면서, 우리는 아쉬운 마음으로 문을 나섰다. 더욱 오래 사시며 강건하시기를 빌면서.

창간1주년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발기인 동참 공고

◆ 발기 취지문 ◆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재가 불자들이 부처님께 귀의하고 스님들을 공양하는 한편, 목숨 바쳐 정법을 호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 왔습니다.

한국불교는 16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돌아보면, 한국불교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며 민족사에 찬연한 자취를 남겼습니다. 비록 조선왕조 500년과 일제 식민지 시대의 시련을 거치면서 침체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불교가 민족 최대의 종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우리 불자들의 외호의 힘이 지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의 빛나는 정신 문화적 지주 역할을 하며 전통 문화의 맥을 이어 온 한국불교와 우리 불자들은 이 시대에 보다 냉엄히 자신과 사회를 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승의 훌륭한 방편으로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제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해 사부대중 모두의 원력으로 시작된 개혁불사는 이제 한국불교의 모습을 하나씩 정비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승의 큰 수레는 두 바퀴가 가지런해야 올바로 굴러갈 수 있듯이 재가불자의 결집과 역할 없이 훌륭한 신행 공동체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변화를 시작한 우리 종단의 건강한 주체로서의 재가불자의 결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행과 전법을 행하는 승단과 더불어 불법을 신행하고 외호하는 재가불자의 결집된 원력이 하나로 이어진다면 한국불교의 앞날은 매우 밝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는 모든 재가불자들이여! 이제 조계종단의 종지를 받들고 종단과 더불어 화합과 신행의 공동체를 건설하여 한국사회와 인류세계의 병폐를 정법으로 치유해 나갑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국불교의 발전은 물론 한국사회와 인류의 발전을 위해 분투하고 노력할 것을 부촉하고 계십니다. 한국불교의 천만 재가불자가 결집된 원력을 가진 대승보살로 거듭 난다면 우리 사회, 나아가 세계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중앙신도회' 여기에 자신과 인류를 구제할 새로운 삶의 희망과 화합공동체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중앙신도회 발기에 동참하여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야 합니다.

2539년 10월

1 발기인 동참 자격

개혁종단과 함께 한국불교 중흥을 이룩할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발기인을 모십니다. 새로운 전국 신도대표기구 결성 취지에 찬동하고 신심과 애종심이 있으며 신행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교구 본말사의 전현직 신도회장 및 임원과 전국 규모의 직능 신행단체의 본부 임원 및 지부 지회장, 연합 신행단체의 중앙본부 임원 및 산하단체 임원과 지역 및 개별 신행단체의 임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발기 취지에 동감하는 개별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발기인 대회 및 준비위원회 결성식

일 시 : 불기 2539년 11월 11일(토) 오후 3시
장 소 : 조계사 대웅전
유의사항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발기인 승낙서는 신문에 게재된 양식을 A4 용지에 기재하여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중앙신도회 창립 발기인 동참 보시금

1인당 ₩ 100,000원 이상

5 발기인 승락서 및 동참 보시금 접수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110-170
전화 : 720-7060~4 / 전송 : 720-7065 / 담당 : 류창무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3-01-0533-326
예금주 :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 동참보시금 발기인 대회 당일 접수 가능

승 낙 서

성 명 :
법 명 :
소속 사찰단체명 :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자택 ㊞
직장 ㊞

상기 본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발기인을 승낙합니다.

불기 2539년(96)년 월 일

_____(인)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결성준비 실무위원회 위원장 신 법 타

장간1주년 특집 I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전속의 수행법구

닦을수록 빛나는 보배 네게 있으니…



생활을 방편삼아… 주변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불도를 닦는 한편, 그들을 돕고 사는 것은 재가수행의 출발이며 귀결이다. (사진은 봉은사 감로탱에 나타난 시장풍경. 대장간, 엿장수, 빙 둘러앉아 참외를 깎아먹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감있게 표현되어 있다.)

덕 베풀고 분노·교만 버려야 깨달음 이뤄

진여의 실상을 보는 지혜

△질문=법계는 한 모습이요, 부처의 체성(體性)에는 둘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어째서 진여를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온갖 선행을 닦아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대답=비유컨대 대마니보주의 체성(體性)은 본래 청정하지만 흙에서 막 캐어낸 광석에는 더러움이 끼어 있으므로, 설사 사람이 그 보배로써의 본성을 아무리 생각한다 해도, 적절한 방법에 의해 갖가지로 갈고 다듬지 않을 때는 끝내 청정허 지지는 않는 것과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생의 진여법 또한 그 체성은 공적하고 청정하다 해도 끝없는 번뇌의 더러움에 뒤덮여 있는 터이므로, 설사 사람이 진여를 생각한다 해도 그것으로는 족할 수 없다. 적절한 방법에 의해 갖가지로 닦지 않는다면 역시 청정해지지 않는 것이며, 더러움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온갖 것에 두루 미치고 있는 까닭에, 온갖 선행을 닦아 그것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온갖 착햔법을 수행한다면, 저절로 진여법을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신론〉

최상의 경지에 이르는 길

온갖 것을 수행하는 사람은 온갖 악을 끊고 온갖 착함을 닦음으로써, 십지(十地)를 뛰어넘어 최상의 경지에 이른다. 〈석마하연론〉

빈틈없는 자세로 닦아라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닦는 까닭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 있어서 불퇴전의 온갖 중생이 하나하나 모두 변해 악마가 된다손 쳐도, 그 수행자에게서는 엿볼 틈을 찾아내지 못한다. 〈불모출생경〉

백년제사 잠시 닦음 못미쳐

만약 사람이 백년을 살면서 산림(山林)의 화신(火神)에 제사지낸다 해도, 잠시 동안 몸을 관찰하고 수행을 쌓는 것만 못하다. 〈법집요송경〉

아는것 적어도 먼저 깨달아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행을 귀히 여기고, 수행하지 않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직 능히 애써 수행하면, 비록 아는 것이 적다 하더라도 깨달음에 먼저 들어간다. 〈대지도론경〉

대중이 의지하는 '명장'과 같다

비유하자면 백만의 대중이 명장을 믿고 적을 물리치는 것과 같다. 출가한 수도승은 마음을 극복하고 뜻을 제어하며, 가르침을 닦고 불도를 받들며, 계율을 따라 실천하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며, 은혜를 펴고 덕을 베풀며, 분노·교만·분쟁을 버리고 마음을 오로지하여 수도에 정진함으로써, 명장이 대중을 거느리는 것같이 해야 하다. 〈사지만경〉

아홉가지의 길이 있으니

보살의 수행에는 아홉가지 구별이 있다.

첫째는 생사에 대한 수행을 잘 행함이다. 비유컨대 병자가 쓴 약을 먹는 것은 병을 고치고자 함일 뿐, 약에 탐심을 내기 때문이 아닌 것과 같다. 보살도 마찬가지니, 생사를 가까이함은 오직 그것을 잘 분별해 스스로 격려하기 위함일 뿐, 집착한 까닭은 아니다.

둘째는 중생에 대한 수행을 잘 행함이다. 비유컨대 훌륭한 의사가 병자에게 친근한 태도를 취하는 것과 같다. 보살도 마찬가지니, 대비 때문에 번뇌와 병으로 고생하는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셋째는 제 마음에 대한 수행을 잘 행함이다. 비유컨대 슬기로운 주인이 아직 법도에 익숙하지 못한 노복을 잘 길들이는 것과 같다. 보살도 마찬가지니, 제어되지 않은 마음을 잘 제어한다.

넷째는 욕망에 대한 수행을 잘 행함이다. 비유컨대 상인이 팔기를 잘하는 것과 같다. 보살도 마찬가지니, 보시따위 여러 바라밀의 재물을 늘려간다.

다섯째는 삼업에 대한 수행을 잘 행함이다. 비유컨대 옷을 잘 빠는 사람은 능히 때를 없앨 수 있는 것과 같다. 보살도 마찬가지니, 삼업을 닦아 능히 이를 청정하게 만든다.

여섯째는 중생을 괴롭히지 않는 수행을 잘 행함이다. 비유컨대 인자한 아버지는 어린 자식을 사랑하여, 더러워도 미워하지 않는 것과 같다. 보살도 마찬가지니, 중생이 손해를 입혀도 일찌기 성내는 일이 없다.

일곱째는 수습(修習)하는 수행을 잘 행함이다. 비유컨대 나무에 구멍을 뚫고 마찰하여, 불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는 것과 같다. 보살도 마찬가지니, 선법을 수습함에 있어서 일찌기 중단하려는 마음을 지니는 일이 없다. 여덟째는 삼매의 수행을 잘 행함이다. 비유컨대 재물을 꾸어주되 보증만 확보되면, 쓰는 사람이 날로 재물을 늘려 주는 것과 같다. 보살도 마찬가지니, 모든 선정을 닦아 마음이 어지럽거나 어둡지 아니하면 공덕이 늘어난다.

아홉째는 반야에 대한 수행을 잘 행함이다. 비유컨대 환사(幻師)는 허깨비가 진실 아님을 잘 알고 있는 것과 같다. 보살도 마찬가지니, 알게 되는 대상에 미혹(迷惑)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살의 수행의 차별이라 한다. 〈대승장엄경론〉

이야기로 배부르지 않듯

박학하더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무식한 것과 같으니, 먹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배부르게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능엄경〉

'나'보다 '남' 구하는 마음을

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구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요, 남을 구하고 자신을 구하는 것이 둘째요, 자신을 구하고 남을 구하지 않는 것이 셋째요, 자신과 남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최하이다.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하는 사람은 비가 오며 뇌성이 울리는 것 같으니 최상이요, 몸으로 행하되 입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비는 오나 뇌성이 없는 것 같으니 둘째요, 입으로 설하되 몸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뇌성은 들리나 비가 안 오는 것 같으니 셋째요, 입으로도 설하지 않고 몸으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뇌성도 안 들리고 비도 안 오는 것 같으니 최하다. 〈대보적경〉

남이 아닌 나의 약을 지으라

오직 박학만으로는 여래의 가르침에 들어갈 수 없으니, 사람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스스로는 굶주려 먹지 못하는 것 같으며, 남의 약은 잘 지어 주면서도 제 병은 못 고치는 것 같으며, 남의 보물을 세면서도 자신에게는 반 푼어치의 소득도 없는 것 같으며, 왕궁에 태어나 굶주림과 추위를 당하는 것 같으며, 귀머거리가 음악을 연주해서 남을 기쁘게 하지만 자신은 못 듣는 것 같으며, 소경이 여러 형상을 그려 남에게 보이지만 자신은 못 보는 것과 같다. 가르침을 닦지 아니하면 박학도 이와 같을 수 밖에 없다. 〈화엄경〉

자랑거리 아니니 겸손하라

부처님께서 니구타라는 바라문에게 이르셨다.

"네가 비록 수행을 했다 해도, 수행한 것을 스스로 믿고 자랑하는 생각을 일으켜 남을 업신여기니, 이것이 네 수행을 따라 늘어나는 번뇌다. 네 수행은 늘 노여움의 회충과 구더기를 일으키고 있으니, 이것이 네 수행을 따라 늘어나는 번뇌다. 네 수행은 어디서나 부끄러움을 모르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네 수행을 따라 늘어나는 번뇌다. 네 수행은 항상 해태(懈怠)와 열등한 정진(精進)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것이 네 수행을 따라 늘어나는 번뇌다. 네 수행은 그 마음을 산란케 하고 모든 감각기관을 타락시키고 있으니, 이것이 네 수행을 따라 늘어나는 번뇌다. 네 수행은 사견이 깊고 두터워 그릇된 도리를 행하고 있으니, 이것이 네 수행을 따라 늘어나는 번뇌다. 네 수행은 탐심과 노여움을 늘 일으키고 있으니, 이것이 네 수행을 따라 늘어나는 번뇌다. 네 수행은 온갖 소행이 어리석고 둔하니, 이것이 네 수행을 따라 늘어나는 번뇌다. 네 수행은 죄를 즐겨 지으며, 죄 짓는 자를 가까이함으로써 나쁜 친구에게 종속해 굴복하는 바가 되고 있으니, 이것이 네 수행을 따라 일어나는 번뇌다. 네 수행은 증상만을 일으키고 얻은 것이 있다는 생각을 지녀, 보지 못하고도 보았다 이르며, 하지 못하고도 했다고 이르며, 얻지 못하고도 얻었다고 이르며, 알지 못하고도 안다고 이르며, 깨닫지 못하고도 깨달았다고 이르고 있으니, 이것이 네 수행을 따라 늘어나는 번뇌다." 〈니구타멈지경〉

정리=차차석 부장

배운것 많아도 수행하지 않으면 '무식'
생각과 행동 한결같아야 '무명' 사라져

종이장수의 깨달음

조선조 중엽, 전남 해남군 소재의 대흥사 산내 암자인 진불암에 낯선 종이장수가 찾아왔다. 배운 것도 제대로 없는 무지랭이 최씨가 생계수단인 종이를 팔러온 것이다.

이방 저방을 기웃거리던 최씨는 누구에게 말 한마디 걸 용기도 없었다. 마침 결제철이라 70여 대중이 모여 조실스님의 결제법어를 듣고 있었다. 그냥 돌아갈 수도 없어 서성거리던 참에 법어를 하는 조실스님의 풍모에 이끌려 법당 안으로 들어가 한쪽 구석에 엉거주춤 앉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조실스님이 거룩해 보였다. 갑자기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진 최씨는 '나도 출가하여 스님이 될 수 있다면…' 하고 생각했다.

최씨는 법회가 끝난 후 조실스님을 찾아뵙고 "스님, 저는 떠돌이 종이장수인데 도를 닦을 수 있겠습니까" "도를 닦는데는 신분도 부귀도 소용이 없네. 누구나 하면 돼" 라는 조실스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 머리를 깎고 출가한 예비승려 최행자. 온갖 궂은 일을 마다 않고 열심히 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염불 한 마디 외우지 못했다.

대흥사에 종이팔러 왔던 최장수는 수행끝에 눈이 열려 주지스님되고

자신의 우둔함을 탓하며 "종이장수 팔자에…"라 자조하며 조실스님께 하산인사를 하자 스님은 '관타카'의 이야기로 위로하여 주었다. 부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관타카를 위로하며 "내 말을 기억하거나 외우는 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오늘부터 너는 절의 뜨락을 말끔히 쓸고, 스님들이 탁발에서 돌아오면 발이나 깨끗이 닦아 주거라. 이렇게 매일 쓸고 닦으면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라 말씀하셨다.

이 '쓸고 닦으라'는 법문을 듣고 관타카가 성불했듯이 수행하라는 조실스님의 법문은 백일 가뭄을 적셔준 단비와 같았다.

최행자는 한국판 관타카가 되리라 결심하고 자나깨나 '쓸고 닦아라'를 외우며 수행하여 훌륭한 구도자가 되었다. 후일 대흥사 13대 주지가 된 범해 각안스님이 '쓸고 닦아라'로 깨달은 종이장수 최씨였기 때문이다. 불후의 저술도 남겼으니 〈동해열전〉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사찰전서 中에서〉

「고속철도경주통과백지화운동」 선언문

우리 불제자들은 지난 10월 3일 발표된 경부고속철도의 경주시 통과를 확정한 정부의 결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잘못된 정책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첫째 이 계획은 기존 확인된 직접 피해 28개 유적지와 간접 피해 수백 점의 민족 문화유산을 목전의 이익에 현혹된 관광산업을 위해 파괴하여도 무방하다는 민족정신상실의 정책이다.

둘째 경주 남산을 비롯한 경주시 일원이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10대 유적 도시로 지정되어 이제는 한국인만의 자랑이 아닌 세계의 문화도시이므로 매우 귀중하게 보호 유지되어야 한다는 국민과 세계인의 여망을 저버린 국가적 수치이다.

셋째 경주 남산하에 건립될 역사(驛舍) 등으로 인하여, 1천여년을 내려온 상당수의 불교 유적이 훼손·파괴 될 위험을 간과한 것은 불교계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 주도하에 빚어질 「성보 훼손」이라는 사상 최대의 법난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1천 2백만 불자들은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며, 민의의 수렴을 통해 모든 계획을 백지화하고 상식적인 행정 아래 재설계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이러한 우리의 뜻이 달성될 때까지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을 비롯한 각 종단 및 소속 사찰과 전국의 주요 신행운동단체와 협력하여 범불교적인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다짐하며, 이를 국민과 정당 그리고 정부 앞에 공표 선언하는 바이다.

1995. 10. 12.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상임 추진위원

강건기 전북불교대학 학장
고 은 한국불교 재가회의 공동의장
김두원 전남불교 신도회장
김묘주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장
김유혁 천태종 전국신도회장
김재일 동산반야회장
김철회 태고종 전국신도회장
남지심 우리는 선우 대표
류진수 부산불교 신도회장
목정배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사회 이사장
박윤혼 사단법인 한국불교 대원회 이사장
서돈각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안동일 한국불교 재가연합 공동 의장
윤청광 맑고 향기롭게 운동 본부장
이기영 한국불교연구원장
이상번 대한불교 청년회장
조호정 삼보법회장
한상범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이상 가나다순〉

알 림

1. 본 추진위원회에서는 범 국민적인 백지화운동을 추진키 위해 일반 단체 및 불교 단체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추진 성금과 자원 봉사활동을 접수받습니다.

연락처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8-6 뉴장충빌딩
한국불교 재가회의 사무국
전화 : 277-2676 FAX: 278-9118
은행지로번호 5070187(시중 각 은행 및 농협, 축협, 수협)
우체국: 010231-0028977-12 (김형균)

2. 본 운동의 범국민적 실천을 위한 결단식이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 마포 불교방송 3층에서 거행됩니다. 참가 단체는 물론 개인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재가불자 수행방법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창간1주년 특집 I

늘 겸손하며 자기점검을… "현재를 보자"

안거 부처님당시 비가 많은 여름 석달동안은 유행을 중단하고 일정한 장소에 머물면서 연구와 정진 등의 수행에 힘쓰도록 하였다. 이것이 안거로 하안거는 음력 4월15일부터 7월 15일까지이며 동안거는 음력 10월15일부터 다음해 1월 15일까지이다. 안거는 계율을 정비하고 수행자의 정신력을 보충하는 기회다.

재가불자들도 인천용화사 법보선원을 비롯 일부선원에서 결제를 하고 있으며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안거기간에는 계율을 지키는등 안거에 임하는 불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포살 불자로서 성심으로 참회하여 신(身) 구(口) 의(意)를 청정히 하여 팔계(八戒)를 받아 행하는 것을 포살이라 한다. 출가한 스님은 매월 15일과 30일 보름마다 한번씩 행해지며 재가신도도 일정한 날을 정해 깨끗한 마음으로 하루를 생활하는 등 출가수행자가 되어야 한다.



안거 외출 삼가하고 참선정진 포살 월2회 身口意를 청정히

좌선 앉아서 선정에 드는 수행 염불 불보살 명호부르며 마음닦아

주력 진언을 화두 참구하듯이 참회 잘못 고백하고 용서구해

예로부터 재가불자도 포살일에는 단식이나 절식을 하면서 성적행위를 근 등 금욕생활을 했다.

자자 하안거를 마친날 스님들이 모여 안거기간중에 자신이 범한 허물이 있었다면 무엇이든 지적해 달라고 동료인 스님들에게 청하는 의식이다. 재가불자들은 가정에서 매달 말일을 자자일로 정해 온가족이 모여 자신의 행위와 언어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다.

좌선 참선하는데 있어 앉아서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으로 참선 그 자체를 좌선이라 부르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 선원에서 행하고 있는 좌선의 자세는 대체로 종색선사가 저술한 〈좌선의〉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고요한 곳만 찾지말고 번잡한 사회생활에서도 선을 실천해 보자.

염불 부처님을 염하는 수행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면서 그 명호를 부르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마침내 열반의 도리를 얻게 된다는 칭명염불과 아미타불의 상호와 그 공덕을 생각하여 염하는 관상염불이 있다. 칭명염불에는 염주등을 이용하여 염불의 횟수를 세는 염불법과 시간을 정해 하는 염불법이 있다. 대체로 하루에 몇 차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하는 염불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많은 불자들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 등의 명호를 염하고 있다.

주력 재난을 없애고 복을 부른다는 진언 혹은 다라니를 마치 참선을 할 때 화두를 참구하듯이 항상 외우고 수행의 요체로 삼는것. 밀교에서는 중요한 수행법으로 부처님과 중생이 서로 융합하는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으로 인(印)을 맺고 입으로 진언을 외우며 생각으로 부처님과 중생이 하나임을 관해야 한다.

지계 불자가 지켜야 할 생활규범을 규율이라 하며 부처님이 정한 계율을 자발적으로 지켜서 파하지 않는 것을 지계라 한다. 계는 불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초로 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공덕도 이룰수 없고 설사 고행하고 정진한다 하더라도 불도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재가자가 지켜야 할 계율로는 오계, 대승십선계 등이 있다.

참회 자기가 지은 죄과를 여러사람들 앞에 숨김없이 공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참(懺)이라 하고, 그 죄과를 뉘우치고 부처님이나 또는 스승, 대중앞에서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을 회(悔)라 한다. 부처님은 항상 제자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마다 참회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기적으로 참회의 기회를 마련했는데 포살과 자자가 이에 속한다. 참회할 때 외우는 것을 참회문이라 하며 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는 〈화엄경 보현행원품〉의 '지난 동안 지은바 모든 악업은 무시이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라는 참회게가 있다.

간경 선(禪)에서는 불립문자를 표방하지만 선의 사상과 실천을 이해하기 위해 경전을 보는 것. 불법의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경전 저경전을 섭렵하지 않고 하나의 경전을 수행삼아 오랫동안 마음으로 읽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리를 내어 읽지만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된다. 독경할 때에는 빠르지도 않게 정성껏 읽어야 한다. 모든 대승경전에서는 그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남에게 설하여 주는 공덕에 대하여 찬탄하고 있다. 독경은 곧 부처님의 생생한 목소리이다.

물이 청정해야 한다. 보시물에는 재물뿐 아니라 부처님가르침을 전하는 것도 포함이 되며 두려움을 덜어주는 힘과 지혜도 훌륭한 보시물이 된다.

인욕 부처님은 수행에 필수요건으로 인욕을 강조했다. 어떠한 모욕이나 고통, 번뇌나 박해를 받고 능히 견디고 참아서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평안하게 하여 자기본래의 면목을 밝히는 데 힘쓰라고 가르치고 있다.

공양 웃어른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뜻이나 불교에서는 불법승 삼보에 공물을 바치는 것. 재물외에도 몸과 입과 마음으로 예배 찬탄 존경하는 공양도 있으며 부처님전에는 주로 차(茶) 향(香) 꽃(花) 등(燈) 쌀 과일 등을 공양한다.

합장 합장은 두손바닥을 맞대고 마음이 한결같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열손가락을 가지런하게 하고 양손바닥을 맞대어 흩어진 생각과 마음을 집중을 행해 자연스럽게 세워야 한다.

오체투지 이마와 양팔, 양무릎이 땅에 닿게 하는 절로 최상의 경례이다. 매일 최상의 예를 통해 수행을 하기도 한다. 이는 백팔배 천팔십배 삼천배등으로 성철스님은 삼천배를 권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찾도록 했다. 부처님께 오체투지의 큰절을 할 때에는 삼배라고 해서 세번 반복한다.

가정예불 집안에 불상을 모시면 좋지 않으며 불공은 꼭 절의 법당에서 스님이 염불하는 가운데 봉행해야 한다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불단을 차리는데 특별한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집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면 좋다. 예불은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온가족이 모여서 하면 된다. 향을 피우고 삼귀의 오분향례 반야심경 사홍서원의 순서로 하면된다. 이외에도 금강경 법성게 천수경을 독송하거나 정근을 하면 더욱 좋다. 목탁이 없을 때는 염주를 두손으로 받들어 합장하고 가부좌를 하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여야 한다. 또한 불교방송과 불교텔레비전에서 아침 저녁 예불을 방송하고있으니 이를 따라하면 더욱 좋다.

바루공양 대중이 모였을 때는 발우공양을 해야한다. 이는 단순한 식사법이 아니라 수행의 과정이다. 특히 오늘날 우려되는 환경문제는 발우공양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가정에서 격식을 갖추지는 못할지라도 음식을 남기지 않는것도 중요하다.

또한 식사에 앞서 공양게를 해야 하겠다. 간단하게 식사에 앞서 합장하고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공덕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몸을 돌보는 약으로 삼아 감사히 먹겠습니다"라는 약식 공양게 부터 실천해 보자.

간경 한 경전을 정성껏 수지독송 사경 불경필사 신앙심 북돋아

보시 아끼고 바라는바 없어야 인욕 고통번뇌 능히 참고견뎌야

공양 삼보에 공물을 바치는일 합장 한결같은 믿음 표시동작

사경 경전의 내용을 그대로 필사하는 것으로 사경을 통해 자기의 원력과 신앙의 힘을 키워가는데 목적이 있다. 사경을 하다보면 글자 한자 한자에 마음을 쏟아 산란심이 없어지고 정신이 집중되며 그대로가 염불이자 기도이며 참선이 될 수 있다. 사경에 앞서 염불 축원 등의 의식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보시 보시를 할 때는 아끼는 마음과 바라는 바가 없어야 하며 조건이 따르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삼분청정이라 하여 보시하는자 보시받는 자 보시물이 청정해야 한다. 보시물에는 재물뿐 아니라 부처님가르침을 전하는 것도 포함이 되며 두려움을 덜어주는 힘과 지혜도 훌륭한 보시물이 된다.

인욕 부처님은 수행에 필수요건으로 인욕을 강조했다. 어떠한 모욕이나 고통, 번뇌나 박해를 받고 능히 견디고 참아서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평안하게 하여 자기본래의 면목을 밝히는 데 힘쓰라고 가르치고 있다.

공양 웃어른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뜻이나 불교에서는 불법승 삼보에 공물을 바치는 것. 재물외에도 몸과 입과 마음으로 예배 찬탄 존경하는 공양도 있으며 부처님전에는 주로 차(茶) 향(香) 꽃(花) 등(燈) 쌀 과일 등을 공양한다.

합장 합장은 두손바닥을 맞대고 마음이 한결같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열손가락을 가지런하게 하고 양손바닥을 맞대어 흩어진 생각과 마음을 집중을 행해 자연스럽게 세워야 한다.

오체투지 이마와 양팔, 양무릎이 땅에 닿게 하는 절로 최상의 경례이다. 매일 최상의 예를 통해 수행을 하기도 한다. 이는 백팔배 천팔십배 삼천배등으로 성철스님은 삼천배를 권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찾도록 했다. 부처님께 오체투지의 큰절을 할 때에는 삼배라고 해서 세번 반복한다.

가정예불 집안에 불상을 모시면 좋지 않으며 불공은 꼭 절의 법당에서 스님이 염불하는 가운데 봉행해야 한다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불단을 차리는데 특별한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집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면 좋다. 예불은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온가족이 모여서 하면 된다. 향을 피우고 삼귀의 오분향례 반야심경 사홍서원의 순서로 하면된다. 이외에도 금강경 법성게 천수경을 독송하거나 정근을 하면 더욱 좋다. 목탁이 없을 때는 염주를 두손으로 받들어 합장하고 가부좌를 하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여야 한다. 또한 불교방송과 불교텔레비전에서 아침 저녁 예불을 방송하고있으니 이를 따라하면 더욱 좋다.

바루공양 대중이 모였을 때는 발우공양을 해야한다. 이는 단순한 식사법이 아니라 수행의 과정이다. 특히 오늘날 우려되는 환경문제는 발우공양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가정에서 격식을 갖추지는 못할지라도 음식을 남기지 않는것도 중요하다.

또한 식사에 앞서 공양게를 해야 하겠다. 간단하게 식사에 앞서 합장하고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공덕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몸을 돌보는 약으로 삼아 감사히 먹겠습니다"라는 약식 공양게 부터 실천해 보자.

공부하는 모임

▲국청회=매주 화 오후7시 불교교리·초발심자경문. (02)730-1250
▲광주불교교육원=매주 수·금 오후7시 불교문화강좌. (062)228-9098
▲금강경독송회=매달 첫째 셋째 금 오후2시, 금강경 공부 및 사찰순례·봉사활동. (02)931-9900
▲금융단불교연합회=매주 월 저녁 7시30분 불교교리. (02)759-4505
▲대구 관음사=매주 오전 9시30분(어린이), 오후2시(중·고등부) 무료한문교실. (053)474-8228
▲대승불자회=매주 목 7시 법회, 매달 셋째 토요일 성지순례. (02)736-4848
▲대승불자회=경전공부. (02)402-8434
▲만불회=매주 수 오후1시 성지순례. (02)587-9310
▲문사수법우회=매주 일 오전10시, 매주 금 오전10시30분 경전공부. (0344)966-2544
▲부산불교연구원=매주 월(불교교리) 오후7시, 매주 금(화엄경) 오후2시·오후7시. (051)462-3427
▲부산정토법당=매주 수·금 오전11시 오후7시30분, 불교교리 및 수행. (051)557-2746
▲불경서당=매주 금 오후7시30분 불경강습. (0346)68-1954
▲불교교육연구원=매주 수 오후7시, 불교교육방법론 찬불가 레크레이션 등 교육. (02)725-7527
▲불교신행연구원=매달 마지막 토요일 불교문화기행. (02)587-6613
▲불교대구교육원=매주 수(법화경)·목(불교전통요리) 오후 2시, 매주 화 오전 11시 찬불가. (053)253-7063
▲사천왕사=독서모임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02)939-3900
▲신라문화원=매달 첫째 월(사찰순례), 매주 화·목(대금) 오후 5·7시, 매주 수(사진) 오후7시. (0561)771-1950
▲석림불교아카데미=매주 월·목 오후2시. (02)723-5264
▲야단법석=매달 마지막 주말에 사찰답사 및 교리공부. (02)263-7079
▲연등국제불교회관=매주 금 오후7시 경전반, 매주 토 오후4시 불교영어교실. (02)735-5347
▲정토포교원=매주 화·목(불교교학·수행) 오전11시·오후7시30분, 매주 수(역사강좌) 오후7시30분. (02)379-1650
▲주부문학회=매월 셋째 금 오전11시, 문학순례 및 문학 이론·실기 공부. (02)308-9520
▲진여회=매주 금·일 오후2시, 매주 목 7시. (02)732-0181.
▲청년여래회=매주 화·목 오후 7시 민족불교. (02)725-8818
▲한국불교연구원 서울구도회=매주 화(보살지지경)·금(금강경오가해) 오전10시반. (02)575-6167~8
▲한국불교연구원 부산구도회=매주 화(요가)·목(경전) 오후7시.(051)462-5062
▲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매주 금 오후7시30분. (053)654-8533

축 창간1주년

재단법인 선학원은 사부대중의 염원을 모아
불교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 종로 안국동 40번지〉

일제시대
일제의 한국불교 왜색화에 대항하여 자주적인 민족불교 수호정신을 세우고 전통선풍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항일불교"의 기치를 드높인 항일구국선사들의 요람

정화시대
총독부의 한국전통불교 소멸정책에 동화되고 일제의 사찰령에 의해 굴절된 민족불교계를 정화시키기 위해 정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계종을 탄생시킨 불교정화의 총본산

지금 선학원은
재단법인 선학원 소속 530여 사찰은 사부대중이 부처님의 정법을 여실히 펼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제도에 기초한 연수원 건립을 서두르고 있으며, 승려노후복지시설의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다가오는 21세기를 불국토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창간1주년 특집 I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불자다운 수행을 하려거든—46선지식이 들려주는 생활법문

현대불교는 창간과 함께 지상 법석을 통해 고승들의 법문을 인기리에 연재해 오고 있다. 촌음을 아끼며 혼신의 정열로 수행하고 있는 큰스님들 가르침의 핵심을 다시 듣는다. 〈무순〉

"아상·욕심 남김없이 버리면 천진은 한몸이니 혼자 살 수 없어

월하 스님 〈조계종 종정〉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자기가 지은 만큼 복을 받기도 하고 잘못하면 벌은 받는 것이지 다른 누가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주듯 복을 짓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굶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 그만이고 적당히 입으면 그만이지 좋은 것 갖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사람사람이 다 자기의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닦아서 빛을 내면 일월보다도 밝아요.

승찬 스님 〈송광사 방장〉

인생살이가 모두 반조의 시간이요, 참선의 시간이 되야 합니다. 반찬거리를 사러 가서도,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비춰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한낱 몸뚱이의 움직임일 뿐이고 그것을 알면 인간의 생명을 가치있게 이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담 스님 〈수덕사 방장〉

불교는 나 자신이 나를 깨닫는 법이지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일념으로 참선을 해보십시오. 미묘한 지혜가 나오며 천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력이 나옵니다. 사업하더라도 참선을 하면 운영의 지혜나 난관 극복의 지혜가 나오며, 공동운명체로 화합하며 살 수 있는 슬기도 나옵니다.

청화 스님〈태안사 조실〉

어느 것도 진여법성, 부처님 아님이 없는 자리입니다. 한 생각 잘못 비뚤어져서 '저것은 부처가 아니다, 이것은 부처다'고 분별하는 마음 자체가 체를 여의고서 상에 얽매이는 미망인 것입니다.

자기의 본래면목을 바로 참구하는 공덕보다 더 수승한 보배는 없습니다.

숭산 스님 〈화계사 조실〉

생각을 버립시다. 생각으로써 본체를 찾고 우주의 근본을 찾는 것은 안됩니다. 내 자신을 찾아 들어가는 참선을 해야 합니다. 모양과 이름에 집착해 살게되면 내 본래 마음을 모릅니다. 모양과 이름에 집착하지 아니했을 때 내 본래 성품으로 돌아갑니다. 본 성품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덕암 스님 〈태고종 전 종정〉

부처님의 교법에 의하여 번뇌와 망상을 없애버리면 우리도 부처님같은 깨달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믿는 한편, 나에게도 분명히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 아닌 다른 절대자의 능력을 믿으려 하고 권력이나 금력만 믿으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과 이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또는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음행을 범하면서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혜암 스님 〈해인사 방장〉

부처님 계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먹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는 등의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상(名相)에 의지해서 계첩을 받거나 말 몇마디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자성계(眞如自性戒)를 받아서 자성을 바로 깨칠 것 같으면 이것이 부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도 없고 귀신도 없어요. 우리 마음이 삿되면 마구니가 되고 우리 마음이 바르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지요.

> 사람이 다 자기의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닦아서 빛을 내면 일월보다도 밝아요

월산 스님 〈불국사 조실〉

참선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잡스런 것을 마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단정히 하고 생각의 뿌리를 한 곳에 모으고 진리의 본체를 밝혀내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그 근본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자신이 어디서 왔느냐, 그 근본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웅 스님 〈파계사 성전암 조실〉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에겐 조각난 그릇도 맞추다 보면 국보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묘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맞추려 하지 않고, 조금 깨어진 그릇이라 해서 집어 던져버리면 산산조각이 나서 영원히 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서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행복의 꽃이 피고, 행복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되도록 서로 맞추려 애쓰고, 이해하고 칭찬하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룡 스님 〈학성선원 조실〉

우리의 행위가 전생의 행동과 그대로 연결이 되고, 앞으로 이 버릇과 행동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기에 지금 여기에서 짓고 있는 잘못된 관행과 습관은 과감히 고쳐야 합니다.

이 버릇을 고쳐나가는 사람, 향상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성수 스님 〈법수선원 조실〉

자신의 신체 하나 하나를 잘 관리하지 못한 채 부처님 앞에 절만 꾸벅꾸벅 하는 것은 껍데기 불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발원해 놓고 실행하지 못할 때는 스스로 벌을 설줄 알아야 하고 불자로서 참회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구정물이 맑아지면 저절로 피가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눈이 맑아집니다.



누가 하는가 "인생살이가 모두 반조의 시간이요 참선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반찬거리를 사러가서도,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비춰보십시오. 내가 지금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한낱 몸뚱이의 움직임일 뿐이고 그것을 알면 인간의 생명을 가치있게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사진은 재가선방에서 참선정진하는 모습.)

생활이 곧 불법이니 따로 구하지 말라

근일 스님 〈부석사 조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낫고, 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행하는 것이 더 낫고, 백번 행하는 것보다 한번 깨닫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인생의 지도자를 멀리 찾아서는 안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인생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 나 자신입니다.

여섯 도적놈이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또 잘 굴리면 바로 부처가 됩니다.

관응 스님 〈직지사 조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집착을 하면 그른 것이 되어 버립니다. 돈에 집착을 하면 돈의 종이 되고, 음식에 집착을 하면 몸에 탈이 나게 됩니다. 또 약을 먹으면 몸이 낫지만 거기에 집착하여 과용하면 중독이 되어 생명을 잃게 됩니다.

화산 스님 〈보광원 조실〉

오랫동안 익혀온 10가지 악행과 악업 때문에 업장(業障)이 가려 자신에게 있는 경(經)을 볼 줄 모릅니다. 사람마다 무진 한량없는 보배가 자기 자신에게 있건마는 알지 못하는 까닭에 부처님이 옷자락을 걷어 올리며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경을 읽으려 하지 않고 남의 경만을 읽으려 합니다. 자꾸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정일 스님 〈보광사 조실〉

대낮같이 밝아 있는 자기 마음만 요달(了達)하면 되는데 자기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아는 체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몸이 나라는 생각을 잠시도 못 버려서, 일체 모든 것에서 내니, 너니 하는 생각을 떠나지 못하여, 이 몸뚱이에 꽉 집착을 해서, 나로 삼아서 내게 해가 되는 것은 남이라고 해서 제 몸 편에만 들어서 응원하니, 응원하는 게 싸움시키는 것입니다.

운경 스님 〈봉선사 주지〉

수행하는 바른 자세는 나의 고통을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거나 바라지 말고 진정 내 자신의 문제는 내 자신이 풀어갈 주체임을 자각하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어서 어떤 절대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만큼 받는 철저한 인과를 인식하는 것만이 자기의 근원적인 주체인 것입니다.

진제 스님 〈해운정사 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증득(證得)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신심(大信心)과 하늘을 찌를 듯한 용맹심을 갖춘 이에게는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과 같이 쉽거니와, 신심이 없고 정법정안(正法正眼)의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참선을 해도 안 되는 원인은 간절한 일념(一念)에서 구하지 않는데 허물이 있습니다.

서옹 스님 〈백양사 조실〉

우리의 일거일동은 이 불가사의한 법계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내는 한량없는 공덕이 되는 것이니 조그마한 불사가 아니라 바로 무한의 부처 마음자리 작용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모습이 인간상인 것이며, 인간의 참다운 실존이 바로 부처님이지 따로 부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지도자를 멀리 찾아서는 안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인생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 나 자신입니다.

자신의 주장자를 먼저 세우십시오.

혜암 스님 〈해인사 방장〉

부처님 계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먹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는 등의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상(名相)에 의지해서 계첩을 받거나 말 몇마디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자성계(眞如自性戒)를 받아서 자성을 바로 깨칠 것 같으면 이것이 부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도 없고 귀신도 없어요. 우리 마음이 삿되면 마구니가 되고 우리 마음이 바르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지요.

일타 스님 〈은해사 주지〉

적어도 불자라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자기 속을 차리고 자력(自力)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행수를 바라고 하는 기도는 마음에 잔뜩 때를 끼게 하고, 언젠가는 사도(邪道)로 빠져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실로 법문을 들음에 있어서는 나에게 맞는다는 생각이나 맞지 않는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까지도 비워야 합니다.

극락세계는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염불도 입으로만 아미타불을 외고 생각은 엉뚱하게 쓰면 그것은 염불이 아닙니다. 즉 신념성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산 스님 〈염불선원 조실〉

요새 사람들은 아만심이 있어 내 눈에 안 보이면 극락세계, 지옥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심공부를 하게되면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공덕을 쌓게 됩니다.

정하 스님 〈통도사 부방장〉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처님과 삼세제불이 출현해도 이것은 어쩔 수 없고, 역대 제대조사가 출현해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대우주는 침묵하면서도 큰 변제를 설법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봄법문을 하고 여름에는 여름법문을 하고 추우면 바람소리, 물소리, 저 단풍잎도 대 자연의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원암 스님 〈수덕사 방장〉

불교는 나 자신이 나를 깨닫는 법이지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일념으로 참선을 해보십시오. 미묘한 지혜가 나오며 천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력이 나옵니다. 사업하더라도 참선을 하면 운영의 지혜나 난관 극복의 지혜가 나오며, 공동운명체로 화합하며 살 수 있는 슬기도 나옵니다.

승찬 스님 〈송광사 방장〉

인생살이가 모두 반조의 시간이요, 참선의 시간이 되야 합니다. 반찬거리를 사러 가서도,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비춰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한낱 몸뚱이의 움직임일 뿐이고 그것을 알면 인간의 생명을 가치있게 이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숭산 스님 〈화계사 조실〉

생각을 버립시다. 생각으로써 본체를 찾고 우주의 근본을 찾는 것은 안됩니다. 내 자신을 찾아 들어가는 참선을 해야 합니다. 모양과 이름에 집착해 살게되면 내 본래 마음을 모릅니다. 모양과 이름에 집착하지 아니했을 때 내 본래 성품으로 돌아갑니다. 본 성품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덕암 스님 〈태고종 전 종정〉

부처님의 교법에 의하여 번뇌와 망상을 없애버리면 우리도 부처님같은 깨달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믿는 한편, 나에게도 분명히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 아닌 다른 절대자의 능력을 믿으려 하고 권력이나 금력만 믿으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과 이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또는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음행을 범하면서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월산 스님 〈불국사 조실〉

참선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잡스런 것을 마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단정히 하고 생각의 뿌리를 한 곳에 모으고 진리의 본체를 밝혀내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그 근본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자신이 어디서 왔느냐, 그 근본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웅 스님 〈파계사 성전암 조실〉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에겐 조각난 그릇도 맞추다 보면 국보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묘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맞추려 하지 않고, 조금 깨어진 그릇이라 해서 집어 던져버리면 산산조각이 나서 영원히 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서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행복의 꽃이 피고, 행복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되도록 서로 맞추려 애쓰고, 이해하고 칭찬하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룡 스님 〈학성선원 조실〉

우리의 행위가 전생의 행동과 그대로 연결이 되고, 앞으로 이 버릇과 행동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기에 지금 여기에서 짓고 있는 잘못된 관행과 습관은 과감히 고쳐야 합니다.

이 버릇을 고쳐나가는 사람, 향상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근일 스님 〈부석사 조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낫고, 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행하는 것이 더 낫고, 백번 행하는 것보다 한번 깨닫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인생의 지도자를 멀리 찾아서는 안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인생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 나 자신입니다.

여섯 도적놈이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또 잘 굴리면 바로 부처가 됩니다.

관응 스님 〈직지사 조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집착을 하면 그른 것이 되어 버립니다. 돈에 집착을 하면 돈의 종이 되고, 음식에 집착을 하면 몸에 탈이 나게 됩니다. 또 약을 먹으면 몸이 낫지만 거기에 집착하여 과용하면 중독이 되어 생명을 잃게 됩니다.

화산 스님 〈보광원 조실〉

오랫동안 익혀온 10가지 악행과 악업 때문에 업장(業障)이 가려 자신에게 있는 경(經)을 볼 줄 모릅니다. 사람마다 무진 한량없는 보배가 자기 자신에게 있건마는 알지 못하는 까닭에 부처님이 옷자락을 걷어 올리며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경을 읽으려 하지 않고 남의 경만을 읽으려 합니다. 자꾸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정일 스님 〈보광사 조실〉

대낮같이 밝아 있는 자기 마음만 요달(了達)하면 되는데 자기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아는 체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몸이 나라는 생각을 잠시도 못 버려서, 일체 모든 것에서 내니, 너니 하는 생각을 떠나지 못하여, 이 몸뚱이에 꽉 집착을 해서, 나로 삼아서 내게 해가 되는 것은 남이라고 해서 제 몸 편에만 들어서 응원하니, 응원하는 게 싸움시키는 것입니다.

운경 스님 〈봉선사 주지〉

수행하는 바른 자세는 나의 고통을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거나 바라지 말고 진정 내 자신의 문제는 내 자신이 풀어갈 주체임을 자각하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어서 어떤 절대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만큼 받는 철저한 인과를 인식하는 것만이 자기의 근원적인 주체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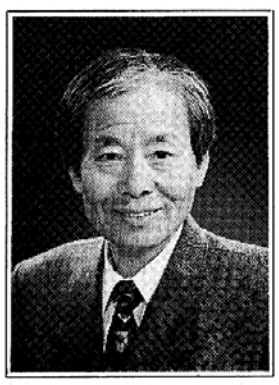
진제 스님 〈해운정사 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증득(證得)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신심(大信心)과 하늘을 찌를 듯한 용맹심을 갖춘 이에게는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과 같이 쉽거니와, 신심이 없고 정법정안(正法正眼)의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참선을 해도 안 되는 원인은 간절한 일념(一念)에서 구하지 않는데 허물이 있습니다.

축 창간1주년

전국 2천만 불자님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전국에 계신 불교신도 여러분!

불교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45년간의 설법내용은 우리가 이대로 본래 부처님이라는 내용입니다. 6도중생 모두가 본래불성이 있는데도 무명업식 때문에 망상을 굴려 어리석게 근심, 걱정, 고통을 만들어 윤회를 못벗어나 삼악도를 갔다 왔다 하고 있으며, 인간보다 행복한 하늘의 하느님도 부처님 공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불교 공부가 무엇보다도 더 시급합니다.

우주 전체가 모두 虛妄하고 가짜이며 오직 부처님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장대한 팔만대장경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10法界에 4성현과 6도중생을 모두 창조하였습니다. 우리중생의 진짜 부모님은 부처님이시며 하느님과 아수라 인간 등의 부모님은 부처님입니다. 우리 모두 불교 공부하여 2천년대·21세기에는 선진국의 일류국가 국민되어 이대로 불국토를 이룹시다.

저는 매일 神妙章句大다라니를 100번 염불독경후 전세계 50억 인구가 세계평화 속에 행복할 수 있도록 매일 매일 12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태민안하고 세계속에 가장 살기좋은 나라 되게하라고 기도하며 이 지구상에 전쟁없고, 삼재 없도록 해달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불교를 믿읍시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우리 집안이 잘 되며 아들 딸들이 사회 봉사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일등국민 되게 하는 방법은 오직 부처님 진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全國佛教信徒團體協議會 代表會長

법사 日田 金 容 稷 合掌

(신묘장구대다라니를 40만번 독송한 신통력을 득한 법사임)

체계적인 불교교리 공부를 위한

능엄경(楞嚴經) 강좌

◎일 시 : 매주 금요일 14 : 00(60분)
◎장 소 : 대원회(大圓會) (용산구 후암동)
◎문의전화 : 754-1613
◎법 사 : 日田 金 容 稷 合長

육조단경(六祖壇經)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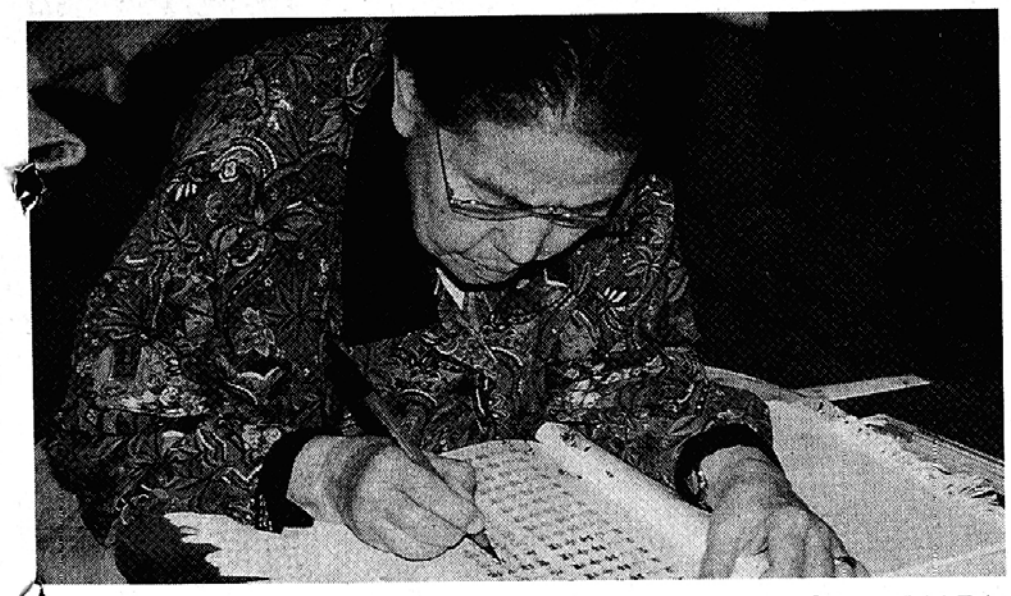
◎일 시 : 매주 수요일 15 : 00(60분)
◎장 소 : 묘각사(妙覺寺) (동대문구 신설동)
◎문의전화 : 763-3345
◎법 사 : 日田 金 容 稷 合長

유마경(維摩經) 강좌

◎일 시 : 매주 월·화요일 19:00~20:00(60분)
◎장 소 : 日田禪院 (중랑구 면목동)
◎문의전화 : 491-0123
◎법 사 : 日田 金 容 稷 合長

불자다운 수행을 하려거든—46선지식이 들려주는 생활법문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장간1주년 특집 I

누구나 부처될 수 있어요”



마음이 주인 “한 생명이 우주생명의 근원이 되고 우주생명이 곧 한 생명입니다. 마음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고 씨앗입니다. 그 생명이 생성된 뜻을 안다면 우주 시방 법계의 모든 생명의 핵심이 됩니다” (사진은 일념으로 사경하는 보살의 모습.)

간절한 일념으로 닦아야 ‘마음’ 깨쳐

서암 스님 〈조계종 전 종정〉

행복은 바깥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행복은 자기 마음 속에서 찾아야지 바깥 경계에서 찾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 마음 깨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꼬집으면 아픈 줄 알고, 웃기면 웃을 줄 알고, 부르면 대답할 줄 아는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도 평등해서 어디서나 성불할 수 있습니다.

석주 스님 〈칠보사 조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우리들로 하여금 본래 한분씩 모시고 있는 이 부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남을 위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하심이라는 공부는 정말 좋은 것이니 참선하고 염불하는 중에도 ‘나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운제 스님 〈태고종 전 총무종정〉

극락세계는 벌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쓰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를 이루어 극락세계를 누리는 것도 나를 내놓고는 따로 없으며 중생을 창조하여 괴로움을 받는 것도 나를 내놓고는 없습니다. 부처의 길을 입으로는 말하나 몸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부처는 되지 못합니다.

도원 스님 〈고운사 조실〉

궁극적으로는 업조차도 없는 게 좋겠지요. 하지만 우선은 선업을 잊지 말고 실천하는 일이 사회인들로서는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참선을 하든 관세음 염불을 하든 자신이 배운 법방(法方)을 일념으로 잘 닦으면 결실을 보는 날이 올 겁니다. 서울 가는 길은 사방으로 나 있지만 서로 통하는 이치와 같지요.

활안 스님 〈천자암 조실〉

한 생명이 우주생명의 근원이 되고 우주생명이 곧 한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마다 길이 활짝 열려져 있고 생산법이 확실합니다. 마음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고 씨앗입니다. 풀 한 포기, 모기 한 마리까지라도 그 생명이 생성된 뜻을 안다면 우주 시방 법계의 모든 생명의 핵심이 되고 전체의 생명은 한 생명의 주인이 되는 이치도 알게 됩니다.

범행 스님 〈팔달선원 주지〉

법이란 여러분들의 잣대로 헤아려서는 알 수 없어요. 오히려 틀과 껍질을 벗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때 흘러가는 구름 속에서, 흩날리는 낙화(落花) 속에서 법의 진면목을 볼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행’이지요. 내가 심어서 길러서 먹어 볼 때의 상황, 그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참선해서 깨치면 바로 수박을 먹는 것처럼 시원해요.

대정 스님 〈범어사 선원장〉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곧 부처(是心卽佛)입니다.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현재 우리가 앉고, 눕고, 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즉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가 될 때 그것이 깨침이고 부처고 도고 선입니다.

고송 스님 〈파계사 조실〉

나(我)라는 생각과 욕심을 남김 없이 버린다면 누구나 곧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과 그러한 서원을 발할 때 정각(正覺)이 멀지 않습니다. 절을 하는 행위는 나를 꺾으라는 것입니다. 절은 하심(下心)을 내기 위한 공부가 되는데, 자기를 꺾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몸짓이 됩니다.

월운 스님 〈동국대 역경원장〉

참된 불교신자는 상락아정의 소극적 경지에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이나 사회의 구원과 봉사를 위하여 힘차게 활동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집착하기 쉬운 모든 요소들을 초월하여 그것에 걸리질 말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말며 그러면서 겁냄도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능가 스님 〈범어사 내원암 회주〉

내몸 하나가 질서를 어기면 이 사회 전체의 질서가 어긋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콩가마니 속의 콩 하나가 썩으면 가마니 전체의 콩이 썩는 이치와 같지요.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와 ‘내 집’만을 생각해서 살아서는 안됩니다. 모든 악이 ‘천지가 한마음 한몸’임을 모르는 사실에서 일어남을 인식해야 합니다.

> 백번 듣는것 보다 한번 행하는 것이 더 낫고, 백번 행하는 것보다 한번 깨닫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송월 스님 〈용문사 조실〉

자기가 자기자신을 모르는데 어디가서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생활을 떠나서 불법을 따로이 구하지 말고, 불법을 잃고 따로이 그 어떤 것이 있다고 결코 믿지도 말고, 오만하지도 마십시오.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곧 불법입니다. 모든 근심과 공포와 번뇌는 거짓 나를 고정불변한 것으로 착각해서 생겨나는 것이니 항상 나를 개발하려고 정진하세요.

지종 스님 〈불갑사 조실〉

형체가 없는 그 마음 자리가 이 우주 법계를 삼켰다가 뱉었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 형체가 있다면 이 우주를 못 삼켜요. 없기 때문에 이 우주를 한숨에 들이켰다 뱉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 지은 업보와 죄를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삼독을 버리라 하신 거예요.

혜정 스님 〈청계사 조실〉

정진할 때는 쓸모없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무나 쓸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로서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 아니면 안된다는 사견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진할 때는 모든 것을 놓고 다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비워서 하나의 의심덩어리가 우주에 꽉차고 견고한 신심을 발휘해야 뜻한 마음자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운 스님 〈대만불광사 창건주〉

자유와 부자유는 오직 자신의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경계를 따라 바뀌면 부자유요, 마음이 능히 경계를 바꿀 수 있으면 대자유를 얻는 것이니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틱냑한 스님 〈베트남 선사〉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는 설거지만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자신이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수행은 매 순간을 살아있는 것입니다.

달라이라마 〈티벳 승왕〉

처음에 작은 깨달음의 신호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벌리하여 깨달음을 생각함으로써 수행을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진전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진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하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번 생을 포기하고 수행을 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쏘비타 스님 〈스리랑카 씨암종 부종정〉

불법에서 삼독으로 표현되는 마음으로부터의 폭력, 실제 개인 생활에서 볼 수 있는 폭력, 사회 집단이 자신들만의 이익의 추구를 위한 폭력 등 우리는 많은 폭력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폭력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자나카 스님 〈미얀마 선사〉

위빠사나(Vipasana)의 목적은 정신적·육체적 제 현상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고통의 소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노여움이나 슬픔 또는 행복감 같은 감정도 하나의 명상대상이 될 수 있고 통증이나 가려움 또는 마비증세등의 감각 또한 위빠사나 명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로 맞추려 노력할 때 행복의 꽃 피네

아잔 수메도 스님 〈영국〉

좌선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몸 속에 고통스런 느낌이 일어나거든, 자신이 얼마나 참을성 없게 그 고통을 면해 보려 버둥대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십시요.

사사나 소바나 스님 〈태국 승왕〉

궁극적인 자유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강한 열정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며 탐욕, 증오, 망상의 세가지 망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 생각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얻은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범룡 스님 〈봉암사 조실〉

저만 부지런하면 어느 시대나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옛 스님은 법문 하나 들으려고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밥도 굶고 찬 데에서 자면서까지 가서 신심(信心)으로 물으니 공부가 되었지요. 신심하나 갖고 나니 딴 생각이 날 턱도 없지요.

믿음이 없으니 의심이 없을 것이고, 의심이 없으니 깨달음이 있겠소. 그러니 신심을 크게 내야 해요.

성찬 스님 〈도성암 조실〉

자기자신도 모르는 자를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형상만 하고 있을 뿐 참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야 사람노릇을 하게 됩니다. 화두도 내가들고, 망상도 내가 내고, 잠도 내가 잡니다. 거짓된 나 자신과의 모든 싸움에서 이겨 참 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유 스님 〈원효암 주지〉

자기 스스로 내면의 움직임과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느낄수 있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5분동안이라도 앉아보면 느낀대로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한 생각을 놓아 버리면, 좋은 쪽으로 돌리고 돌리고 하다보면 나쁜 습성이 저절로 일어났듯이 좋은 습성도 저절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비룡 스님 〈월정사 조실〉

계율을 지켜야 선정에 드는 것이지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용맹정진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린 가운데서 도가 발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부른 상태에서 무슨 도를 찾고 용맹정진할 수 있겠습니까. 잘먹고 편안한 가운데서 공부하겠다는 것은 다 헛소리고 망상입니다.

천운 스님 〈대흥사 조실〉

우리 인간은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남에게는 절대 허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건 하나를 놓고 봐도 내것이라고 해봐야 저녁에 도둑이 와서 가져가 버리면 내것이 아닙니다. 이세상에 내것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공동체로 쓰는 공유물인 것입니다.

도서출판 명상에서는 자신을 바르게 보는 책들을 펴내오고 있습니다
TEL 739-2520 FAX 738-7709 명상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지요

장 군 죽 비

누가 부처를 죽이는가?

한 권의 책은 한 시대를 이끌고
그 시대의 사상을 다듬어 갑니다.

한번 보고 버리는 책이 있는가 하면 두고두고 곁에 두고 싶은 책도 있습니다.



신국판 상·하권 각권 9,000원

선사(禪師)가 쓴 우리 시대의 불교입문 지침서

이 책은 3년 전에 본문 100쪽 내외로 쓰여졌으나 여기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를 달아 이번에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성철 큰스님이 가신 뒤 공허한 한국불교에
『장군죽비』를 들고 휴암스님이 그 뜻을 이어갑니다.

지난 시절 서울대 법대 학생운동권의 주역이었던 성경섭(成慶燮)이 30여 년 침묵 후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선사(禪師)로서 사자후를 토하였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서산대사 휴정의 『선가귀감』에 버금가는 책이라고 평가합니다.

서산대사 휴정의 『선가귀감』에 버금가는 불교입문 지침서 『장군죽비』는 팔만대장경에서 진수만을 가려뽑아 이 시대의 목소리로 새롭게 다듬은 책입니다.

* 어떻게 하면 불교를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은 이 책에서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선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선물은 받는 이의 기쁨도 있지만 주는 이의 인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 아직까지 이 책을 읽지 않은 스님들에게 이 책을 권합시다.



선승(禪僧)으로서 불교의 이론에도 일가를 이룬 휴암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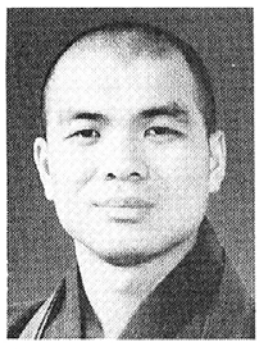
이제 『장군죽비』는 스님들의 손을 떠나 일반신도들의 애독서가 되었습니다.

창간1주년 특집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이끄는 사람들

내가 밝힌 법등 온누리에…

생활화



법 장 스님
〈무진법장사 주지〉

아파트촌 포교 자리매김
월 50회 설법…가족법회 '인기'

"포교하는 생활은 모든 사람들을 안락으로 이끄는 수행법입니다."

아파트촌 포교의 선두주자 법장스님(무진법장사)은 포교가 승가의 생활자체이며 성불의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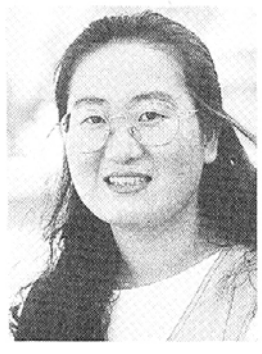
법장스님은 80년대초 불교계가 10·27법난을 겪으며 정권에 유린되는 것을 보고 "조직력이 미약하여 일방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과 스님이 왜 됐을까? 라는 물음의 답을 '불법홍포에 나서야 한다'는 것으로 내렸다.

81년 수유동 모사찰에서 중·고등학교 학생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전체역량이 생활포교의 장으로 집약될 수 있는 도량이 절실히 필요했다.

91년 4월 청년회원 30여명과 창동역앞에 부처님 사진을 모시고 간이법당을 마련한 스님은 '솥고 배고픔'을 견뎌야 했다. 맨바닥에 스치로플을 깔고 생활했었는데 이런 생활은 "이빨이 떨리는 것보다 더 큰 포교에 대한 열의를 주었다"고.

스님은 2년후인 93년 중계동에 1백60여평의 포교당을 분양받아 법당을 마련하고 어린이법회, 중·고등학생법회, 청년회법회, 거사림법회, 합창단법회, 자비봉사회,불교대학 등의 조직과 행정구역별로 11개 지역법등 법회를 운영중이다. 스님은 한달에 50회의 강좌및 법회와 도봉서 경승 37사단 향승으로 활동중이다.

또 우리말 법요집을 만들어 의식을 한글로 진행하고 가족위주의 법회를 운영하여 신도들의 호응 또한 높다.



사 기 순 씨
〈월간 백제불교 편집위원〉

"진정한 신행은 봉사"
기도 하며 포교 '억척보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부처님 말씀을 배우다 보니 자연스레 봉사활동도 하게된 것이지요. 부처님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해보려고 한 것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것 뿐인데 새삼스럽다는 사기순씨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또한 포교사로서 정불사 어린이·학생법회, 시립요양원 자원봉사, 불교환경교육, 법화경공부, 사찰회보 객원기자직에도 충실한 억척스런 불자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생활에 실천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학교때부터 별명이 법사였다는 사씨는 부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생각에 고등학교때는 친구집 빨래와 설겆이도 해주며 절에 같이 다녔다. 또 집안식구들을 불교로 귀의, 친정부모님이 신행에 적극적이고 남동생도 룽후도장을 운영하며 불교를 포교하는 등 온 가족이 포교에 열심인 부처님 향이 가득한 가정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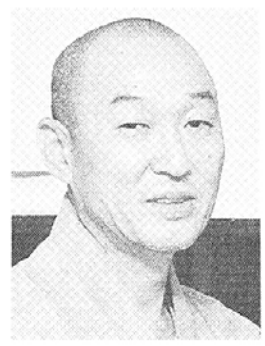
사씨의 관음정근 염송과 불교에 대한 확신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의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시립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불교이야기를 해준다"고.

임종시에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줘야겠다'는 일념으로 약사경과 지장경을 독경해, 주위봉사자들이 혀를 끌끌 찬다고 한다. "상의상관 관계만 알고 있어도 주위를 돌아보게되어 이시대 재가불자의 진정한 신행생활인 봉사를 하게된다"고 말한다.

내가 밝힌 법등 온누리에…

종 림 스님
〈해인사 고려대장경 연구소장〉

대장경 컴퓨터 CD제작 '불경 전산화' 선구자



팔만대장경의 내용을 컴퓨터를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그 편한 시대를 열어가는 주인공이 종림스님이다. 해인사 도서관장의 소임을 맡으면서 고려대장경 목록을 카드로 컴퓨터에 입력한 종림스님은 출가전 물려받은 유산을 털어 컴퓨터 몇대를 마련, 92년 해인사입구에 '해인사 대장경연구소' 간판을 내걸면서 전자대장경 발간 10년불사의 대장경에 들어갔다.

"팔만대장경의 전산화 작업은 분량이 많아 열람하기 힘든 대장경을 CD-롬으로 만들어 쉽게 열람케 하고 한국불교를 전세계에 심는 세계적인 텍스트를 마련하는 작업입니다."

한국불교의 현실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 없다고 종림스님은 한탄한다. 학승들이 우리의 팔만대장경을 기저로 만든 일본 신수대장경에 의지하여 공부하고 불교학을 공부하러 일본에 유학가는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고.

종림스님은 팔만대장경이 중국의 송판대장경이나 일본의 신수대장경에 비해서 내용이나 체제가 월등하여 한문경전 가운데서 중요한 저본으로 평가받으면서도 일본의 신수대장경이 세계불교학의 태수가 된 것은 활자화가 늦어진 때문으로 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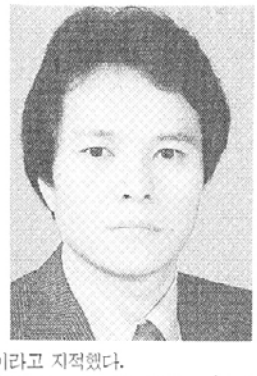
스님은 고려대장경과 한글대장경을 통합하는 전자대장경을 97년까지 구축한뒤 여기에다 영어 일어를 추가하고 첨단매체인 멀티미디어까지 제작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스님은 전산화의 통일적인 추진을위해 8개국이 참여하는 세계전자불전협의회도 설립하여 불교의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10월말까지 1차입력이 끝나고 교정작업에 들어갑니다. 2차 교정작업은 20번 이상의 손이 가면서 2년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방대한 작업입니다."

현대화

정 부 기 교수
〈중앙대 작곡과〉

불교음악 수준향상 주도…찬불가 전집 9권 발간



"종교와 음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선율에만 익숙하면 음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마음으로 음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음악을 현대음악과 접목시키고자 다양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정부기교수는 종교음악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한다.

정교수는 한국불교음악연구회 회장으로 목동 법안정사 합창단지도, 작곡, 작사, 평론 등의 창작활동을 해오고 있다.

"부처님의 사상을 전하는데 음악적 요소를 가미한다면 자금의 포교성과보다 몇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정교수는"우선 승가에서 먼저 불교음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원과 보급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교수는 3년전 교향곡 '붓다의 노래'를, 93년에는 국악관현악곡 '예불'을 발표한 것을 비롯 91년에는 찬불가 전집 9권을 발간했다.

특히 금년 7월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찬불가 창작발표회는 국악과 서양음악의 접목인 4개의 변주곡과 합창곡등으로 음성포교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했다.

한국불교 음악에 대한 교육의 부재를 꼬집어 말하는 정교수는 "현재 불교음악이 서양의 반주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여 찬송가와 거의 구별이 없다"며 "불교음악에 대한 인재양성과 향후 불교음악의 선율과 반주형태가 국악이나 인도의 음악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사상과 한국불교에 걸맞는 불교음악을 재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한다.

정교수는 불교음악을 현대화하기 위해 현재 전국 약 4백여개의 불교합창단에 상임 지휘자나 음악법사 제도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계화



원 명 스님
〈연등국제불교회관장〉

외국인에 교리 참선강의
유럽·소련등 불교 불모지 개척

한국불교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외국인들의 불교교육을 목적으로 지난 87년 연등불교국제회관을 건립하고 해외포교를 전담해오고 있는 원명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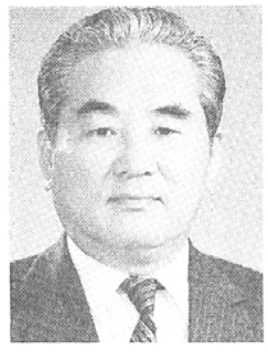
스님은 "외국인들이 한국불교(선불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한국불교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찰이나 문헌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타종교의 경우 극성스럽다시피 활발한 선교활동이 전개되고 있어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해외포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연등국제불교회관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기초교리, 참선, 경전등을 매주 강의하는 한편 토론회를 개최, 한국불교를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포교의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 영국 소련등을 비롯 외국에서는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은 특히 높게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인식하고 일선에서 해외포교활동에 열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불과 손으로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해외가 바로 포교의 황금들판이라고 강조하는 원명스님은 하루빨리 각 종단차원의 해외불교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스님은"앞으로 외국의 불교현황을 정확이 진단해 예비국제포교사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 해외포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 "이라고 해외포교에 대한 남다른 열의를 표명했다.



박 동 기 씨
〈WFB 한국본부회장〉

67년부터 국제 불교운동
'오계파지' 운동에 앞장

"불교인만을 위한 불교, 한국인들만을 위한 불교는 대자대비한 부처님법이 아닙니다. 과감히 껍질을 벗고 세계의 눈과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세계의 큰 길을 향해 용맹정진해야 합니다."

세계 불교국 상호간의 유대와 불교지도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술강연회, 수련대회, 설법대회 등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세계불교도 우의회 한국본부 박동기회장(동국대교수·체육과).

67년부터 세계불교지도자들로 하여금 한국불교의 본질을 알리기 위해 불교운동을 시작한 박동기회장은 한국불교가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참선을 바탕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

"불자라면 반드시 계를 수지하고 실천하는 승가가 구성됨은 물론 출가승을 존경하는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운동으로 화합하는 승가가 구성될때 불교의 세계화는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박회장의 지론이다.

지금까지 오계에 대한 인식이 소극적으로 실행해 왔는데 앞으로 한국불교의 세계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향해야 한다고 박회장은 주장한다.

박회장은 또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불교지도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오계파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세계불교지도자들에게 한국불교의 오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오는 12월 경주에서 '오계파지로 세계평화와 조화를 이루자'는 주제로 세계불교도 우의회 한국대회를 준비중에 있다.

봉 환생 축

티벳트 라마 사추 린포체 초청 대법회

귀의삼보하옵고

신심 깊으신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가호 지묘력으로 부처님의 혜은이 충만하시옵기를 합장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법은 건곤에 충만하고 보살의 무시무종한 자비는 삼천대천세계에 장익하여 멀리 시공의 구애를 벗어났으며 상사의 유한상을 떠났건만, 미혹한 중생은 미로에서 헤매며 자성을 찾지 못하고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구제하기 위하여 이땅에 강림하사 무진설법으로 법우를 만진로에 뿌리사 방편의 문호를 열어 고해중생을 제도하셨습니다. 이에 불은에 보은하는 뜻으로 소승은 많은 불자님들께 크나큰 인연을 지어드리고자 티베트 라마 사추 린포체를 초청하여 대법회를 봉행할까 하옵니다.

부처님 방편의 진로인 환생을 통해서 무려 24번을 환생하신 12살 난 사추 린포체의 무진설법과 마정수기의 큰 인연을 지어드리는 법의 자리이오니 부디 많은 동참과 권선을 통하여 다생에 지은 모든 업장을 소멸하시고 영겁의 복전을 지으시길 발원합니다.

마정수기라 함은 우리가 수겁을 통해서 지은 모든 업장이 수기를 받은 찰나에 모두 소멸된다는 크나큰 뜻이 있는 것으로서 불자님들께서는 이러한 인연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 일 시 : 불기 2539년 10월 17일 ~ 18일까지, 오전 11시부터
■ 마정수기 동참금 : 50,000만원(오만원)
■ 연 락 처 :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어비리 산 99-2
(0335) 33-7417 / FAX (0335) 33-7747
■ 교 통 안 내 : • 서울 강남 터미널, 동부 고속버스 이용
• 남부터미널 경남 직행 이용
• 동서울 터미널 경남직행 이용
(용인시외버스 하차 동도사행버스 10시 출발)

※ 행사일부터 마지막날까지 조계사 앞에서 오전 8시에 동도사행 버스 출발

▶신라말의 고찰 금단사 복원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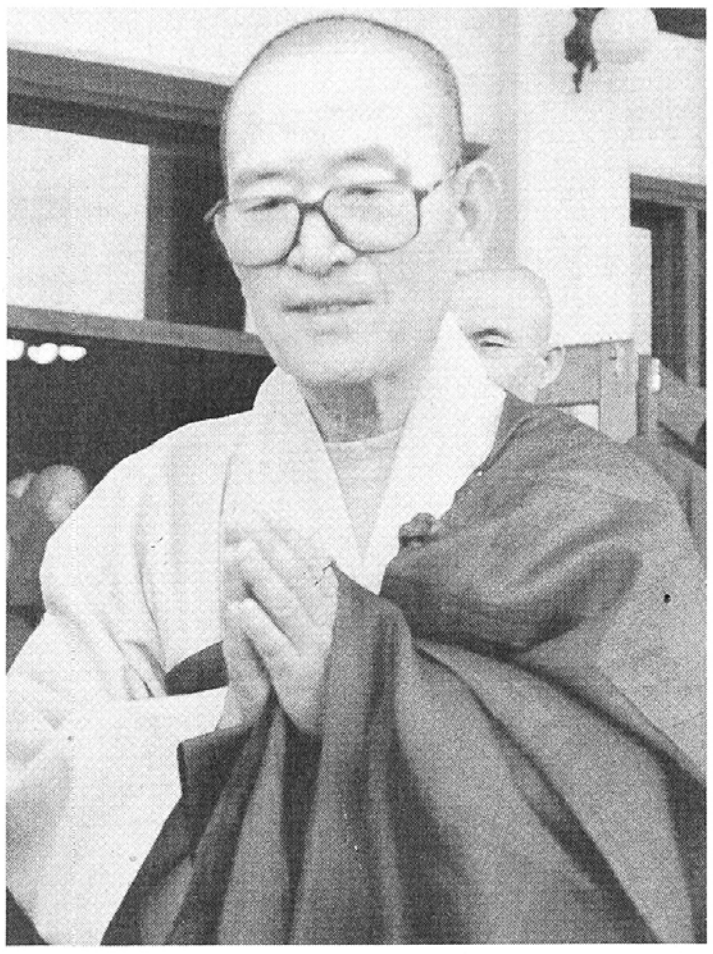
전통사찰 95호
갈마산 동도사

주지 혜 성 두손 모음

창간 1주년 기념 지상 법석

"십선계 지키면 환경오염 걱정 없어요"

송담스님 〈용화사 법보선원 원장〉



오늘은 대승십선계를 설하고 화두와 불명을 수여하는 법요식이 거행되겠습니다.

불도수행을 성취코자하면 계(戒) 정(定) 혜(慧) 삼학을 겸해서 닦아야 합니다. 계의 그릇이 온당해야 선정의 물이 담기고 선정의 물이 맑고 고요해야 지혜의 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계로써 스승을 삼으라며 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대승십선계를 설하겠습니다.

첫째, 불살생(不殺生)이니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 살생을 하지말아라 하는 것은 불법을 믿는 불자는 자비심으로 일체중생을 제도하려는 서원을 세웠거늘 어찌 산목숨을 죽일 수가 있겠는가.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으로 되는것 입니다.

일곱째, 불악구(不惡口)니 악한 말을 하지말라. 불자는 항상 자비롭고 부드럽고 좋은말로써 해야 하는데 입에 못담을 욕악한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그것이 어찌 불자로서 할 일 이겠는가.

여덟째, 불탐욕(不貪慾)이니 탐욕심을 내지말라. 무엇이든지 남의 것을 자기것으로 만들려 하고 하늘 높은줄 모르고 탐욕심을 내면 탐욕의 불로 인해서 스스로의 복덕을 잃게 되는 것이며 끊없는 탐욕은 결국 패가망신의 근원이 되는것입니다.

아홉째, 불진에(不瞋恚)이니 진심을 내지말라.무엇이든지 제 욕심에 차지 않으면 진심을 내는것이 일반

"계의 그릇 온당해야 선정의 물 담기고 선정의 물 고요해야 지혜의 달 나타나"

둘째, 불투도(不偸盜)니 남의것을 훔치지 말라.내것을 널리 보시하여 일체중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소시키고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것이 불자의 목적인데 어찌 남의 것을 훔칠수가 있겠는가.

셋째, 불사음(不邪淫)이니 사음을 하지말라.살생을 하면 자비종자를 상하게 되고 도둑질을 하게되면 복덕종자를 손상하며 사음을 하면 청정종자를 잃게됩니다. 자비심과 복덕심 그리고 청정한 마음이 있어야 도를 성취하고 나아가서는 일체중생을 제도하게 될 텐데 어찌 사음을 하겠는가.

넷째, 불망어(不妄語)니 거짓말을 하지말라. 거짓말을 하게 되면 진실종자를 잃게 됩니다. 진실한 마음 하나가 스스로 도업을 이루고 일체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인데 어찌 진실한 마음을 잃고서야 되겠는가.

다섯째, 불기어(不綺語)니 음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음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면 공부하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며 이것도 또한 진실한 마음이 무너지게 되니 기어를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여섯째, 불양설(不兩舌)이니 이간하는 말을 하지말라.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사이를 화합시켜야 할지 언정 어찌 여기가서 이말, 저기가서 저말로 이간질하여 화합을 깨뜨릴 수가 있겠는가.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아라한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하는 오역죄와 같은 죄가 바로 중생의 버릇인데 진심을 내면 그동안에 쌓은 모든 공덕을 찰나간에 잃게 됩니다.

열째, 불사견(不邪見)이니 어리석고 삿된 견해를 갖지말라. 어리석고 삿된견해는 인과의 법칙을 믿지 않는것이요, 인과의 법칙은 지극히 과학적인 사실임에도 그것을 믿지 않고 부정해버리면 못할짓이 없습니다. 모든 결과는 반드시 그럴만한 원인이 있어서 그런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인과의 법칙을 부정하고 마구잡이 행동을 하게 되면 그사람은 정도에서 벗어나고 삼악도밖에 갈곳이 없습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은 몸으로 짓는 죄고 불망어 불기어 불양설 불악구는 입으로 짓는 죄고 불탐욕 불진에 불사견은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이상 설한 열가지 대승십선계는 불자로서 마땅히 잘 지키고 실천하여 스스로도 생사해탈하고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대원을 세우고 구경에는 원을 이루어야 할 바입니다. 능히 잘 지키겠는가?

그러니 몸으로 짓는 세가지 입으로 짓는 네가지 마음으로 짓는 세가지 합하여 열가지 계를 잘 지키면 십선계를 지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 행동을 하면 이것은 십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선을 지키면 불자로서 도에 나아가는 기초가 잘 이루어진것이고 십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십악을 행하면 도의 문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승십선계를 받고 연비를 마쳤습니다. 연비하는 뜻은 무량겁이래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지은죄를 참회하고 앞으로는 그런악을 짓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를 부처님전에 하는 것입니다. 계를 받고 연비를 한 이 공덕으로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악을 짓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열가지 악을 짓지 않을수가 있을까?

戒 따로 지키려면 어려워… "참선과 생활 둘 아냐"

열가지 계를 따로 따로 지킬려고 하면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고 간단하게 잘 지키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찾는 공부인 참선법, 최상승법인 활구참선을 하게 되면 저절로 살생을 안하게 되고 도둑질, 거짓말도 안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량겁으로 내려오면서 익힌바가 습으로 남아있어서 무심결에 그런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생각이 일어날려고 하면 퍼뜩 이뭐꼬 화두를 들면 그죄를 범하기 전에 막을수가 있는것입니다.

항상 화두를 챙기고 화두를 들고 참나를 찾는공부를 하면 저절로 계가 지켜지게 됩니다. 참선하는 사람이 무슨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며 사음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뭐꼬, 이몸뚱이를 끌고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속이 상할 때나 기분이 나쁠때나 성이 날때나 외롭고 슬플때나 원망스러울때나 무슨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생각이 일어날려고 하자마자 탁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이뭐꼬·숨이 다 나가면 또 들이마셔서 내쉬면서 이뭐꼬·이렇게 하다보면 치밀어 올라오던 가슴이 쑥 가라앉으면서 저절로 계를 지키게 되고 참 나를 찾는 공부로 나아가니 이것이 바로 최상법입니다.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도 늦은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산에 들에는 여기저기 오곡백과가 익어서 문자그대로 금수강산이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자연을 예찬만 하고 있을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아름다운 산의 골짜기에는 등산객들로 인해 병들어가고 공장폐수, 생활폐수가 흘러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면 바닷물이 벌겋게 오염이 되는 적조현상을 일으켜 해산물, 바다고기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한 몰지각한 인간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산이,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넓고 넓어서 맑은물이 물결치던 바다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산과 강과 바다가 오염되면 결국은 인간이 살 수 없게 됩니다. 독한 물질로 모두가 병들게 되는것입니다.

"마음보를 고쳐 몸 건강하고 주변환경 아름답게 하는것이 신토불이"

한국의 가을하늘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것인데 지금은 하늘이 파랗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시커먼 구름이 끼어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먼지로 인해서 푸른하늘이 없어져 버린것입니다. 숨도 제대로 못쉬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도 먹지 못하고 또 들에는 독한 농약을 함부로써서 곡식도 마음대로 먹을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먹을수 없으니 옛날에는 별로 구경하기 어렵던 각종 병이 여기저기서 우리가족과 친지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미리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산이 저렇게 망가지고 강 바다가 저렇게 더러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이 금수강산을 우리는 지옥보다도 더 고약하고 못된 강토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환경을 보호하자는 말이 높습니다. 법을 엄하게 제정하고 감시를 철저히 하고 환경운동을 전국적으로 조직하는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도 안들고 시간도 안걸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보를 고치는 것입니다. 몸도 세계도 영원토록 살수 있는 좋은 극락국토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음보를 고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마음보를 고치기위해서는 오늘 받은 십선계를 지켜야 합니다. 마음보가 바로 잡혀지고 안잡혀지고는 몸으로 하는행동, 입으로 하는 말과 마음 쓰는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씀에 덧붙여 이뭐꼬를 참구해야 합니다. 앉아서나 서서나 걸어가면서나 일하면서나 일체처 일체시에 항상 이뭐꼬를 놓지않고 생활속에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선과 생활이 둘이 아니어야 하는데 신토불이가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외국농산물을 먹지 말고 이땅에서 나온것을 먹자. 신토불이의 뜻이 어찌 그렇게 값없이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신토불이는 우리의 마음과 몸, 몸과 세계가 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보를 고쳐 몸은 건강하고 우리 주변환경도 아름다와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토불이의 참뜻입니다.

오늘 법회에 참석하여 대승십선계와 화두, 불명을 받은 이공덕으로 세세생생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청법문중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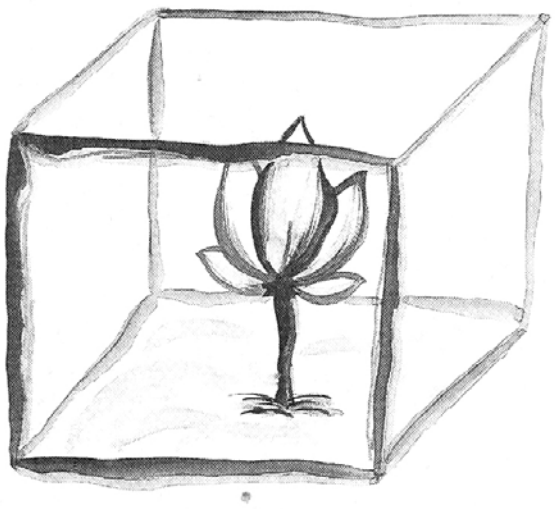
화두는 '이뭐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나 별로 재미도 없고 맛도 없지만 법문을 자주듣고 자꾸 법문대로 이뭐꼬를 열심히 찾으면 차츰차츰 저절로 동요하지 않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번뇌망상이 일어나도 짜증내지말고 그냥 그대로 놔둔체 이뭐꼬만 추켜들면 번뇌망상은 본래 뿌리가 없는것이라 저절로 없어지고 화두가 순일하게 됩니다.

어떠한 찰나에 통의 밑구멍 빠지듯 툭 터져서 의단을 타파하게 되면 그때는 선지식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확철대오를 했으면 공부해나가는 법을 지도받을것이고 그것이 바른 깨달음이 아니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가야 할 것입니다.

생활속의 불교 ㊺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지만…



달 마대사와 혜가대사의 첫 대면은 마음공부의 좋은 공안으로 손꼽힌다. 달마가 "불안한 마음을 가져 오너라. 안심시켜 주리라." 했을 때 혜가는 끝내 "마음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게 된다.

마음은 본래로 체가 없고 청정하며 만가지 법의 근본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혜가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다고 했을까?

마음은 천지의 근본이요 일체만법을 운영하는 주체이다. 그러면서 색체도 없고 형체도 위치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다. 그러나 움직였다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태양계 혹성을 징검다리 삼아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승 저승을 종횡으로 휘젖고 다닐 수도 있다. 크기로 말하면 우주를 감싸고도 남고 작기로 말하면 바늘 끝이 넓다고 한다. 가만히 있으면 부처 자리이고 움직였다 하면 그 나툼이란 무소부재, 그야말로 자유자재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정체를 오해하고 있다. 몸 가운데 어디쯤 '내 마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가령 '내 마음'이 나의 신체조직의 작동원리와 연관된 것이라면 '내 마음' '네 마음'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마음이 몸 가운데 어디엔가 있다거나 두뇌나 심장 따위의 작동과 관계된 것이라 한다면 마음은 물질적인 것이 되고 만다. '마음에 체가 없고 우주의 근본이 된다'는 부처님 말씀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죽으면 그뿐'이 되고 만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힘이나 이심전심은 처음부터 헛소리에 불과하게 된다.

혜가의 '불안한 마음',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이름 짓는 것 그것은 '나'라는 주체에 강하게 집착한 데서 출발한 분별의식, 번뇌망상을 일컬음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면서 자신도 모르게 주체와 객체(대상·환경)로 나눠 보는 가운데 생멸하는 의식작용을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법에 철저한 서양에선 불안의 요인을 환경에서 찾지만 달마가 혜가에게 던진 질문은 '네 마음을 가져와 보라'는 것이었다. 달마는 마음의 근본과 그 나툼을 일러주기 위해 '네 마음' '내 마음'하는 따위의 분별부터 부수고 들어간 것이다.

중생은 생멸심-번뇌망상·분별심 따위를 마음이라 하고 그나마도 '내 마음'이라 하여 마음에 체가 있고 어떤 색깔, 또는 저마다의 특성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 육신이라는 통에 갇혀 한발짝도 떼어 놓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어찌 우주를 드나들며 이승저승을 넘나들 능력이 있는 줄 감히 생각이나 해보겠는가.

마음엔 벽도 없고 천장도 없다. 아무리 깊은 물 속, 땅 속이라도 물이 물이 아니고 땅이 땅이 아니다. 어디든 미칠 수 있고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열려면 열고 뚫으려면 뚫는다.

죽은 세상 산 세상도 없고 이리 가도 문, 저리 가도 문이니 그야말로 마음대로이다.

마음은 본래 그토록 신령한 것, 오묘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마음이 우주의 근본임을 누누히 설명했지만 그걸 믿지 않으니 중생의 마음이라 한다. 혜가의 첫 깨달음은 '마음엔 체가 없다.'는 것이었다.

협찬 : 홍기연 · 홍준석

창간1주년 특집

타종교인의 '내가 만난 불교'

'깨침'의 가르침 삶의 소중한 인연

오 강 남 〈캐나다 리자이나대 교수〉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처음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대하게 되었을때 그 놀라움이 클 수 밖에 없었다.

이론보다 체험을 강조하는 불교는 특히 선불교에서 '깨침'을 종교의 최고 목표로 한다는 점이 종교를 교리의 이해나 수납 정도로 여기던 종래의 나의 생각에 큰 변화를 주었다.

화엄연기 사상의 심오함에 감동

상즉상입(相卽相入)을 가르치는 화엄의 법계연기사상을 대하게 되었을때 그 사상의 심오함에도 놀랐지만, 특히 오늘같이 인간중심주의에 의해 생겨난 환경공해나 개인주의에 의해 빚어지는 삭막한 인간관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시대에서 이런 상호연관성을 강조하는 사상은 나에게 중대한 의미를 지니기에 충분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이론이나 실천사항을 방편으로 본다고 한다. 어느 한가지 가르침을 독선적으로 주장하거나 절대화하지 않을뿐 아니라 모든 교설이나 실천사항들이 결국은 더욱 깊은 경지에 이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우리주위에 편만한 교리절대주의나 편협한 독선주의와 대조되어 더욱 놀라운 것으로 보여졌다.

불교와의 내면적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 이런 놀라운 발견들이 종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일까 하는데 대한 나의 생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듯 불교는 내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한번 인생의 나아갈 길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윤 이 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불교와의 첫인연은 어언 3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대 종교학과에 입학한 나는 이기영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원효스님의 사상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면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학생종교학회' 활동하며 큰 감화

그러다 63년에는 동국대 불교학과 학생들과 함께 한국학생종교학회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함께 참여했던 이들이 현재 동국대 교수로 재직중인 오형근선배와 지금은 출가한 관음종 총무원장인 홍파스님 등이다.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알고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문화적 책임도 함께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혼란을 겪고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근간으로 한 불교가 그 특성을 오늘에 맞게 적용해 정신적으로 불안한 현대인들을



'마음닦는 법'을 통해 이끌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의연하게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램이다.

정 현 경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나는 위빠사나 명상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불교를 사모한다"고 말하는 기독교학자다.

내가 불교를 정식으로 만난 것은 87년 뉴욕 유니온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교환교수로 계시던 스리랑카인 가톨릭 신부밑에서 조교로 일하면서다. 불교학을 연구하기도한 신부님은 수업시작 15분전에 반드시 위빠사나 명상수행을 지도하셨다. 신부님의 가르침은 이후 'Love and wisdom'이라는 스터디그룹으로 심화됐고 거기서 말하자면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지혜를 공부했다.

이후 불교인연이 깊어진 것은 92년 내가 하버드대 교환교수로 부임해서다. 대학 바로 옆에 숭산스님 선센타인 「관음선원」이 있었고 그곳에서 1년여 동안 매일 108배를 하고 15시간씩 용맹전진을 해댔다. 천수경을 외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쳤다. 불교관련 책을 섭렵했고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찾아다니며 법문을 들었다.

그때 독일에서 법문하신 틱낫한스님을 친견했고 설법속에서 그동안 내가 고민해왔던 생의 문제에 대해 답을 찾아냈다. 감사했다. 그후 틱스님께 수계를 받았고 학계와 교계로부터 이단이라는 비판도 들었다.

좋은 기독교인 되려 불교 깊이 공부

불교와의 인연으로 삶과 학문의 좌표를 확실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모태기독교인이고 한국인으로 진정 좋은 기독교인이 되기위해 불교를 더 깊이 배우고 있다.

김 흥 호 〈목사〉



불교라는 종교를 잘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동양인의 정신에 뿌리내린 고유한 사상인 것 만큼은 확실한 것 같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뿌리내린 불교적인 색채를 간과할 수 있으니 말이다. 철저한 직관력, 실천력, 그것이 불교의 매력일까.

미국에서 소학을 공부할 때 도서관에서 스즈끼 다이세스의 '선'에 관한 책 몇권을 읽은 경험이 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불교를 알게됐고 그 매력에 푹 빠졌었다.

禪에 매료…큰스님 초청 강좌도

그후 불교는 줄곧 하나님 가르침을 따르는 내 생활 가까이에 있었다. 그래서 이대 강단에 서던 시절에는 청담스님, 법정스님, 광덕스님, 무진장스님, 김용정교수, 이기영박사 등을 초청해 강연을 마련한 일도 있었다. 길지 않은 시간에 열의를 다해 강의하시던 그분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는다.

그후 불교는 줄곧 하나님 가르침을 따르는 내 생활 가까이에 있었다. 그래서 이대 강단에 서던 시절

나에게 있어 불교는, 불교인은 한 형제나 마찬가지다. 불교에서 말하듯 둘이 아닌 셈인 것이다. 이렇듯 멀지 않은 불교를 그동안 소홀히 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야 아쉽다.

송 창 식 〈가수〉



오래전부터 음악을 하는 관계로 이곳 저곳 여행을 가면 반드시 근처의 사찰을 찾곤 한다. 불교와의 인연도 여행하는 속에 자연스레 이뤄졌다. 사찰에서 느끼는 감흥이 때로는 내 음악작곡에 도움이 되기도 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인연을 맺은 사찰이 여러 곳이다.

그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금산사는 경내와 주위를 둘러싼 늙은 나무들이 마치 오랜 고승을 만나듯 평온함을 느끼게도 했다.

절에서 느끼는 감흥 내 음악 일부

반면에 불국사 같은 곳은 너무 관광지화 되어 있어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가끔은 안타까웠다.

우연한 기회에 만난 서정주선생님께 노래하기에 적당한 시가 없냐고 물은 것이 인연이 돼 선생님의 시 '푸르른 날'을 추천받아 만든 내 노래속에는 불교적 사상이 많이 내포돼 있어 간혹 불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생각해 보면 서정주 시인과의 만남도 불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내 삶의 중요한 인연이었던 것 같다.

요즘은 새 음반 발표를 위해 연습과 재충전으로 소일하고 있다. 앞으로도 종종 지방에 갈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때마다 나와 불교와의 만남은 사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사찰은 단순히 불교신자들의 장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 문화적 재충전의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여 동 찬 〈한국외국어대 불어과 교수〉



내가 신부로서 프랑스에서 한국에 왔을 때의 첫 느낌은 당혹스럽다는 것이었다. '불교문화'를 모르고서는 한국에서의 선교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불교를 먼저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했다. 그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지금 동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그때는 정말 당황스러웠다.

나는 안다. 불교를 모르고서는 한국을 알지 못하듯 타종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내 종교에 대해 자신있게 내세울 수 없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선교 할 수 없다는 것을. 불교라는 것을 계기로 큰 것을 깨달은 셈이다.

그래서 내게 있어

한국 알려면 불교공부는 필수

법경스님, 효진스님 같은 분들이다.

그때를 돌이켜 보면 재미있는 일도 참 많았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신부로서 불교학과에 입학했을때 불교학과 동기들이나 선배들로부터 '첩자'라는 오해를 받은 일이 있었다. 타종교인이 불교학과에 들어 왔으니 그럴만도 했다. 지금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불교는 그다지 생소하지 않은 종교로 지금도 자리하고 있다. 운허스님, 청담스님, 경산스님, 무진장스님….

하나님의 말씀과 큰스님들로 부터 전해들었던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는 강단에 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있어 삶의 경책이 되고 등불이 된다.

김 도 향 〈가수, 명상음악 작곡가〉



내가 만난 불교는 잠자는 이들의 내면의 정신을 깨워주는 각성제같은 것이었다.

나의 음악세계, 나의 삶. 한 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게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행동거지를 차분하고 안정되게 한다.

내면의 세계 일깨워 주는 각성제

생활 그 자체가 '수행'이라고 할까. 불교인이 아닌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불교를 접하게 하는 이유가 그런 매력들 때문인 것 같다. 결코 질 하지 않고 일관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혜로운 가르침들.

하지만 그 가르침이 때로는 아집에 쌓인 종교인을 낳기도 한다. 멀지않은 과거에 있었던 조계사 사태며, 불교계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은 그 사실을 잘 대변해 준다.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그런 커다란 착오가 생겨났는지 모르겠지만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있는 그대로 헛된 사견의 개입없이 따르고 지킨다면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또 그것이 종교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고로, 한 순간 한 순간을 차분하게 호흡하면서 내 속에 깊이 잠재돼 있는 그 무엇을 일깨워 주는 것, 그것이 내가 만난 불교다.

봉 비구·비구니계 수계식 행

한국 불교계 원로이시고 덕이 높으신 덕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는 불이성 법륜사에서는 금번 11월 5~7일 2박 3일간 비구·비구니계 수계식을 봉행하오니 비구·비구니계를 받지 아니한 스님들은 동참하시어 이 계를 수지하옵기 원하나이다.

일 시	: 1995년 11월 5일 ~ 7일(음력 9월 13일 ~ 15일)
장 소	: 불이성 법륜사 큰법당
대 상	: 삭발 염의한 스님
지 참 물	: 가사·장삼
동 참 비	: 50,000원
접수기간	: 1995년 10월 31일까지
문 의	: ☎ 732-3920, 2710

불이성 법륜사 주지 석혜일 합장

영가 천도 안내문

우리들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부모를 받드는 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직접 부모님을 위해 도솔천궁에까지 왕래하시면서 마야부인을 제도시킨 예를 지장경에서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금년은 윤달이 든 해이고 해서 우리 법륜사에서도 7일간 영가천도를 올릴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무루 동참하시어 돌아가신 부모, 조상님을 잘 천도시키는 동시에 여러 신도 가정에 이러한 기도로 인하여 무병과 지혜를 얻어 국가가 안녕하고 집안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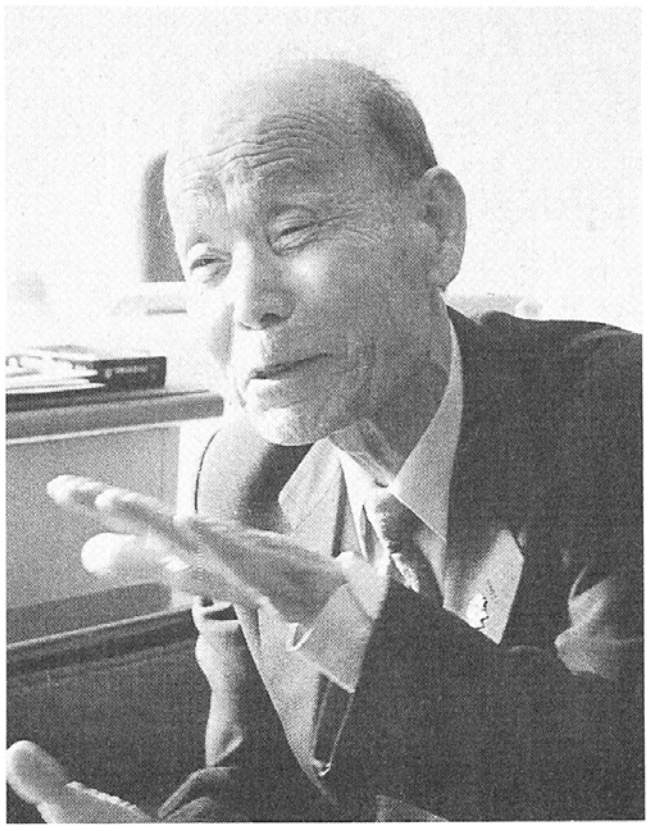
일 시	: 입재일 : 1995년 11월 4일 (음력 9월 12일) 회향일 : 1995년 11월 10일 (음력 9월 18일) 7일간 오전 10시
장 소	: 불이성 법륜사 큰법당
동 참 비	: 50,000원
전 화	: ☎ 732-3920, 2710

불이성 법륜사 주지 석혜일 합장

"악기연주도 춤도 마음이 하는 일"

산문밖의 禪

인간문화재 1호 김천흥 翁



궁중무 맥 잇기 73년… 呈才동작 40여종 복원
악보속 악보 볼때 득음…"멈춰진 동작도 춤"

화려한 도드리 선율과 흥청대는 타령 반주에 용상의 임금은 귀가 즐겁다. 축연의 분위기는 무르익어 대신들의 눈과 귀가 가운데 큰 북을 두고 둘러선 무인(舞人)들에게 쏠리고 정재(呈才)의 동작은 멈춘듯 흐르는듯 끝없이 이어진다. 무인들은 손에 든 목단꽃을 멋드러지게 움직여 보인다. 춤추는 이와 음악과 그것을 보는 임금과 대신들이 한바탕의 정재에 빠져드는 즐거움이 하루의 축연을 치장한다.

나를 잊고 율동에 빠져

정재 '가인전목단(佳人揃牧丹)'의 한 바탕은 옛날 궁중 연례를 이렇게 무르익혔을 것이다. 고귀한 왕실의 품격과 인간적인 흥겨움을 임금과 신하 사이에 흐르는 도드리·타령장단으로 어우르면서.

일제 강점이후 자칫 끊어질뻔 했던 궁중무의 맥을 이어 온 김천흥(金天興·무형문화재 1호 종묘제례악 기능보유자·87세)옹. 김옹은 현재 국립국악원의 원로사범으로 음악에 몸담아 73년의 성상을 지켜 온 재량을 후학에 전하고 있다.

"궁중무용은 궁중이라는 별난 분위기로 인해 매우 격이 높은 율동이지. 요즘처럼 방정맞은 동작이 임금 앞에서 허용될리가 없잖아. 그 높은 격의 동작은 인간의 흥겨움을 합부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이성의 다스림과도 통해 있어. 그러나 무인(舞人)은 그 격조 때문에 긴장하거나 임금 앞이라서 떨거나 하질 않지. 그저 율동에 빠져드는 것만이 그들이 할 일의 전부이니까."

지금은 임금도 없고 궁중이란 절대권위도 없지만 그 율동을 이은 한 무인으로서의 김옹에겐 오직 정재의 율동에 빠져드는 일만이 최고의 일로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종묘제례 문묘제례의 일무(제례의식 때의 춤)와 해금·양금·아쟁 등 기악을 두루 섭렵한 노악사(老樂師)로서의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김옹의 할 일. 그 일은 다름아닌 우리 음악과 무용의 정신을 올곧게 찾아 세우는 일이다.

"내가 해금을 탄다고 해. 한 박자의 악보를 타고 다음으로 이어질 때의 그 사이에 무엇이 있다는 거야. 다시말해 수많은 음악들이 물 흐르듯 이어지며 하나의 곡을 형성시키는데 그 사이사이의 흐름을 잇는 그 무엇이 뭐냐는 질문을 하는 것이지. 악보 읽으며 그저 기보된 대로 연주를 한다고 그것이 훌륭한 연주가 될 수 없거든. 그 악곡이 살기 위해서는 그 음악의 정신을 연주해야 한다는 것이야."

하나의 음악이 연주될 때 그 음악이 살아있는 음악이 되기 위해 연주자는 악보 속의 악보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득음(得音)이란 얘기다. 악보만 좇아가다 연주를 마치는 것은 잘 된 연주일 수 없음을 김옹은 재차 강조했다. 그래서 김옹은 "손으로 악기를 타지말고 마음으로 악기를 타야 한다"고 단언을 한다. 이 이치는 김옹이 14세의 나이로 1922년 이왕직 아악부에 들어가 음악을 시작하면서부터 화두처럼 끌어안고 살아 온 것이기도 하다.

"춤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이 춤과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의미없는 몸짓에 불과해. 손 동작이 어느 순간 멈춰져 있는듯 해도 사실은 그게 계속 율직이고 있는 것이거든. 보는 사람의 마음이 그 춤에 젖어 있으면 그 정중동(靜中動)의 흐름이 보이기도 해. 춤추는 사람도 한 동작 한 동작을 넘기는데 온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해."

마음을 비워야 춤이 된다는 의미 역시 정격의 정재를 추어 온 김옹의 화두이다.

"내가 춤을 추면서 다음 동작이 무엇인가를 일일이 생각한다면 그 춤은 어기적거리는 둔한 몸짓이 될 수 밖에 없어. 다음 동작과 그 다음 동작까지 모조리 잊어 버려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바탕의 춤이 완성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나긴 연습시간과 몸에 배인 동작의 자기화로 가능해 지는거야."

음악이건 춤의 가장 기본적인 골간은 다름아닌 장단고저(長短高低)이다. 음을 길게 짧게 불고 강하게 약하게 치는 것이 음악이고 동작을 크고 작게 힘있게 약하게 이루는 것이 춤이다. 그 장단고저의 막힘 없는 조절이야말로 악사나 무인(舞人)의 재량인 것이다.

장단고저 막힘 없어야

"긴 박자를 길게 하고 강한 곳을 강하게 표출하는 것. 그 쉬운 것에서 수많은 음악과 춤이 생겨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 그러나 그건 쉬운게 아니야. 깨달으면 부처된다는 수운 말이 막상 그렇게 이루기는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로."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려움을 평생 걸어 온 음악의 길에서 절감한다는 김옹의 이야기. 그러나 어린 소년시절의 밤낮을 가리지 않은 연습과 옛날 서적을 뒤적여 전하지 않는 정재 40여종을 복원시연해 온 긴 세월의 열정이 아니었으면 이 쉬운 이치에 대한 절감도 없었을 것이란게 김옹의 고백이다.

요즘의 음악과 춤은 빠른 박자 일변도다. 그러나 김옹은 "느린 것에 도(道)가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느린 동작의 감동이 오래 간다구. 빠르면 빨리 사그라드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야. 느릿느릿한 동작, 그 속에 인간의 혼을 담아 내는 것이 제대로 된 춤이지. 옛날 것이어서 느린게 아니고 인간과 귀신을 감동시키는 혼의 힘을 담기 위해 느린 것이거든. 사실 느리게만 보이는 궁중무에도 추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빠른 곳이 있어. 그것을 보는 사람은 눈이 열렸다고 할 수 있지."

열린 눈, 열린 마음으로 정재를 시연하고 또 그런 자세로 보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춤의 조건이란 것이다.

"순종황제 50세 생일잔치 때문에 엄동설한의 밤에 배운 정재가 우리민족의 율동을 잇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어. 그러나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잘 하니까 다행이지 뭐. 그 율동과 음악 속의 정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임연태 기자

어떻게 앞일의 예측이 가능한가

문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란 사람이 수백년 전에 예언서를 썼는데 그게 80~90%는 맞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없다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해서 앞일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인지요.

〈최숙현·인천 중구 사동〉

답 전에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언이란 소인배들의 관심사이지 공부하는 이들의 바른 지견이 아닙니다. 가령 어느 때쯤이면 자동차가 나온다, 컴퓨터가 나온다고 예언을 했다 합시다. 그 예언이 있어서 자동차가 나오고 컴퓨터가 나온게 아니라 나올 때가 되니까 나온 것이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예언같은 말씀하신 일이 없으신데 그것은 일체유심조, 마음으로 자유자재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없지요. 삼세가 지금 이 순간에 다 집결되고 거기서 벌어지고 하는 것이니 찰나찰나 마음내는데 따라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니 예언은 소인의 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음공부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령 뭔가 잘못될 것 같다 싶으면 '잘못될 것이다' 말하기 전에 좋게 돌리고 좋게 이끌어 주는게 도리이지요. 그렇지 않고 '내가 미리 말했듯이 그렇게 되지 않더냐, 거봐라'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십만팔천리나 벌어지는 것이 됩니다. 유념하기 바랍니다.

윤회는 상·하천계 오르내림인지

문 사람이 윤회를 한다면 상천세계와 하천세계를 오르내리게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 하천세계로 떨어진다면 지옥을 거치게 되는 것인지요.

〈김이준·성남시 상대원동〉

답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처음엔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시작했듯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할 수 있지요.

지금 동물의 탈을 쓰고 있는 것들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사람으로 살아봤던 경험이 있다면 동물의 탈을 썼어도 좀 더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람으로 살다가 짐승이 되는 수도 있고 짐승으로 살다가 다시 벌레가 되는 수도 있고…. 그렇게 얼마를 돌고 돌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공부 열심히 해서 차원 높게 진화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동안 신·구·의로 짓는게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해서 개의 몸을 받게 되었다 합시다. 개 모습으로 태어났으니 개대접 밖에는 못받을 터이니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나마 국 냄새 밥 냄새도 못맡는 존재로 태어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지옥이지요. 몇천 번을 밟혀 죽고, 어느 때는 칼 맞아 죽고 끓는 물에 튀겨지고… 그게 지옥이지 뭐겠습니까. 지옥이 어디 따로 있어서 지옥이 아니라 이 이승에도 지옥같은 삶이 있지만 깨우치지 못하면 자유자재할 권리도 없으니까 사람의 몸을 받지 못하고 엉뚱한 굴로 들어가면 다 지옥인 셈이지요.

그러니 이 몸 받아 불법만났을 때 깨우쳐 부처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부처 되겠습니까. 부처되기까지 계속 닦아야 합니다. 육도윤회에서 자유자재하려면요.

습이 무거운지 놓아지지 않아요

문 일체를 한마음 주인공에 믿고 맡기라는 말씀을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다시 의심이 일어나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만 습이 지중한지 잘 안됩니다. 가르침 비립니다.

〈남태정·진해시 용원동〉

답 본래 뿌리를 굳게 믿고 안다면 한 생각에 놓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번뇌망상이라는 게 과거에 숱하게 녹음되었던 것이 솔솔 풀려나오는 것과 같은데 예를 들어 나무로 치면 잎사귀나 가지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잎사귀나 가지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뿌리이지요. 나무의 정체를 알려면 잎새 하나하나를 따질 게 아니라 뿌리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 뿌리, 즉 한마음 주인공에 일체를 몰락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살던 습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그 습이 잔뜩 입력된 녹음기, 또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된 것은 하나도 예외없이 자동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따라서 입력된 것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되입력 시켜라 이겁니다. 믿고 놓으라는 것은 이열치열과 같지요. 그런데 습을 떼어야겠다고 애를 쓰는게 아니고 무조건 맡기는 것입니다. 습을 녹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녹음테이프를 지워서 공테이프로 만들라는 것이지요. 지우면서 다시 녹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늘 한마음 속에서, 주인공 속에서 나온 것이니 그 자리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일러주는 것은 또하나의 작위가 아니라 공테이프로 돌아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 다 알아서 하라고 못맡길 이유가 없지요. 한발 떼어놓으면서 발떼어 놓는 것 생각하질 않아도 잘 걸어가듯이 그렇게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의구심이 나더라도 그것마저 나온자리에 놓으라는 것이지요.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축 창간1주년

덕암 화상 문도회

임원 및 연수교육 공고

귀의 삼보하옵고

10월 21일(음 8월 27일) 문도 정기 총회에서 선출 및 위임 구성한 덕암화상 문도 임원진과 제1차 연수교육 모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협조와 참석을 바랍니다.

연수교육

- 일 시: 2539년 11월 14일(음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2시부터 2539년 11월 15일(음 9월 23일) 수요일 오후 1시까지
- 장 소: 서울 종로 불이성 법륜사 (주지 : 혜일)
- 전 화: (02) 732-3920, 2710
- 대 상: ① 은제자 ② 법제자 ③ 수계제자 ④ 참회제자 ⑤ 큰 스승님의 손 상자
- 지참물: ① 가사 장삼(각자 종단 가사 수 가능함) ② 교육비 ③ 필기 도구 ④ 기타

임원명단

- 명예회장: 혜초·소암
- 고 문: 철화·혜우·혜천·정각·혜철·혜숭·영운·금선
- 회 장: 무공
- 부 회 장: 고허·만화·학성·상허·혜등
- 총 무: 혜각
- 교 무: 혜준
- 재 무: 혜일
- 사 회: 혜광
- 서 기: 수근
- 감 사: 법련·광해
- 이 사: 혜공·충허·법해·세웅·청공·용화·혜숭·도명·영계·혜운·성각·산웅·고진

(이사회는 집행부와 이사로 구성함)

문도명단 … 임원제외(무순)

- 서 울: 혜선·석운·법정·혜명·각명·상태·지광·운계·혜범·형진·무심·성덕 상묵·혜성·혜적·혜공·원산·태순·혜명·영공·혜덕·도봉·중남·선덕
- 경기·인천: 혜양·혜득·혜충·충허·혜장·효진·고산·수산·덕승·영공·천연 원성·성태·지환·혜봉·성우·철우·경전·만허·진원·도봉
- 충 청: 혜화·혜암·삼명·문허
- 강 원: 금선·혜청·혜성
- 경 상: 겸담·석송·도송·보련·자원·영운·남화·도오·정허·향암·혜춘·탄경·상수·혜학 고진·지운·청운·보화·산웅·무재·청안·동법·청원·운산·자행·법웅·춘식·혜장
- 전 라: 상명·도산·자행·혜조·혜신
- 제 주: 현각·혜종·해관·지조
- 해 외: 혜원·혜성

※ 문도 208여명중 문도록에 올라 있지 않아 통지를 못 받은 80여명의 문 형제들께서는 양찰하시고 서로 연락하고 말씀드려서 빠짐없이 참석하고 스스로 연락해 죽으로써 완전한 문도록을 만드는 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암 화상 문도회 회장 무 공

고은 불교 대하소설

또 한 사람의 행방불명

수원이 그 아이에게 말을 시켜 보았다.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대꾸는 커녕 이쪽의 수원에게 고개를 돌려 보지도 않았다.

"네 이름이 무엇인고?"

"..."

"내 이름은 수원이란다. 그러니 네 이름도 알려주어야지?"

"..."

"아무래도 사람이 아닌가 보구나. 짐승들이야 갑이다 을이다 하는 이름이 있을 리 없지."

그때에야 홱 앵돌아진 새침떼기 얼굴을 수원 쪽으로 돌렸다. 아리따운 아이였다. 어린 아이가 그토록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단련된 것 같은 인상은 예삿일이 아니었다. 수원은 섬뜩하였다.

"절에 들어가 도를 닦는 사람이 왜 그렇게 이름 타령입니까? 이름에나 의지해서야 그것이 어디 참다운 것이겠습니까?"

수원은 이 성숙한 말투에 무번 섬뜩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이의 이름을 알고 싶었던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 흔히 조선사회에서는 남존(男尊)체제이므로 여자에게 이름 따위가 없기 십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격하던 양반 중심의 체제나 가정의 까다로운 관행도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함으로써 계집아이를 낳아도 엄마가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아비가 묵인하는 일이 많다. 엄마로서는 그녀 자신이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변변한 이름도 없이 한평생을 살아온 것에 대한 어떤 비분강개가 마음 깊이 박혀있을 법도 하였다.

아무튼 수원은 그 머리를 곱게 따서 앙징맞게 댕기까지 드린 아이에게 불현듯 괴를 썼다.

"얘 옥아(玉耶)야!"하고 불렀다.

"흠 내 이름은 옥야가 아니어요. 점이(岾伊)예요. 내 등에는 점이 아홉개나 있거든요."

"네가 점들을 어찌 보았느냐?"

"엄마가 보셨지요. 엄마 눈이 내 눈인 줄도 몰라요? 대사는 헛공부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마치 열대여섯살의 당돌한 소녀가 내뱉은 말 같았다.

그런 아이를 수원이 유심히 쳐다 보았다. 그로써는 할 말이 막혔던 것이다. 말이 막히자 장닭이 힘센 중병아리 한 놈을 눈으로 기죽이는 것 처럼 노려보는 수 밖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수원이 놀랐다. 아이의 눈매나 콧마루 그리고 입과 귓불이 다 무육도에서 세상을 하직한 비구니 합두의 얼굴과 닮았던 것이다. 어디서 본 아이 같다는 또하나의 인상이 바로 합두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

"점이야, 네가 정녕 세상이 물바다 불바다가 된다고 말하였더냐?"

아이가 까르르 웃었다.

"참 어리석은 도인이셔요! 세상이 불타거나 물 속에 파묻히거나 그런 일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머지 않아 물과 불이 난리를 일으키는 일은 대사의 몸안에서 먼저 일어날 것이오. 대사는 그것도 모르시고 우리 집에 양식을 얻으러 오셨어요?"

"내 몸이 무너진다는 말이냐?"

"그렇다 마다요."

수원은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겁 없는 말에 겁을 먹지 않을 수 없다.

> "세상이 불타거나 물 속에 파묻히거나 그런 일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머지않아 물과 불이 난리를 일으키는 일은 대사의 몸안에서 먼저 일어날 것이오. 대사는 그것도 모르시고 우리 집에 양식을 얻으러 오셨어요?"

일찌기 그는 인담으로부터 당나라의 약산(藥山)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어느날 약산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질렀다. "법당이 무너진다! 법당이 무너진다!"

그러자 절에 있던 대중들이 깜짝 놀라



48

"그런데 이 대사님이 자꾸 나를 노려보아요."

"이제 들어가야지."

라고 어머니가 타일러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걸어가는 치마 밑의 마당이 젖었다.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를테면 대뇌가 지나치게 발달한 아이가 다른 신체의 부위는 아주 지나치게 미숙하거나 불구상태인 것인지 모른다. 늙은 개가 나타나 아이의 오줌자국을 핥아먹었다. 그러고 보니 그 집의 바깥마당과 안마당 사이의 낮은 담밑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던 개도 통 짖을 줄 모르고 있었던 터였다.

그런데 바로 이 늙은 개도 서산과 안면도 일대가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는 동안 그 폭우 속에서 집채가 흔들리는 지진이 몇번 지나갔는데 바로 지진 전야에 어떤 기척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구 짖어댔다 하였다. 그런 개가 수원이 그 집안에 있는데도 가만히 눈 감고 있었던 것이다.

"제가 듣기에는 덕숭산 수덕사도 요즘은 대사들이 거의 비워서 빈 집이나 다름없다 합니다. 한달전 우리 세 사람—본부인, 둘째부인과 그녀 자신—이 함께 그곳으로 불공을 드리러 갔다 왔는데 그저 법당지기 스님 한분이 우리를 맞아들이데이다."

"허어 수덕사가 비다니요."

이제 임첨지는 그 집안 살림의 실권을 셋째부인에게 넘겨주는 사태까지 되었다.

그녀에게 단단히 반한 나머지 밥상도 반드시 겸상인데 그 겸상으로 마주 앉은 것이 아니라 아예 임첨지의 무릎에 그녀를 앉혀서 서로 밥을 떠 넣어주기를 다투는 형편이라 하였다.

밥상머리 반주조차도 한 잔 가득히 부은 술을 서로 조금씩 입속을 적시는 일을 번갈아가며 빈다 하였다.

이런 처지이므로 본부인은 공연히 투기나 일삼는 것이 그녀의 의젓한 품성에 맞지 않는 일이어서 아예 곳간자물쇠 꾸러미를 그 셋째에게 맡겨버렸다 한다.

"나야 이제… 이 집의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네. 예로부터 곳간에서 인심 난다하였으니 부디 이것을 무슨 권세로는 알지 말게… 오직 잘 꾸려나가겠는가… 자네를 내가 믿네."

아무튼 큰 부자인 임씨네 살림은 그 명분은 본부인에게 있고 실질은 셋째부인에게 있게 되었다.

둘 사이의 둘째부인은 주로 집안의 하인배나 소와 나귀 그리고 일꾼들을 관리하는 바깥일에 손을 대고 있었다.

그런 집안에서 무육도에의 관심은 깊은 신심의 일부분일 뿐이었다. 워낙 본부인은 계룡산 갑사와 마곡사, 그리고 개심사와 무량사까지 두루 시주가 되어있거니와 그 중에서도 수덕사에는 큰 단월(檀越)이



"괴이한 일이로다" 아무데도 파현의 자취가 없었다

서 모두 법당 주위에 몰려와 버팀목으로 법당을 고이는가 하면 주위에 흙을 쌓기도 하는 등 야단이었다.

그때 약산이 그들을 말리며 말하였다.

"헛참 내 뜻을 모르는군먼."

이 말을 끝내자마자 약산은 그대로 주저앉아서 입적(入寂)해버린 것이다.

이를테면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으라는 것,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꼭 찾을 데서 찾아야 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실현이었다.

수원은 아이 앞에서 면목이 없어졌다. 마침 아이의 어미인 임첨지의 셋째부인이 집안에서조차 치장을 한 옷매무새의 아름다운 용모로 마당에 나와 아이를 부르는 것이었다.

"들어가 책을 읽어야지…"

"마당 공부가 끝났으니 이제 책 공부를 하겠어요. 엄마."

"음 그래야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만 무육도 스님들이 수덕사로 옮기시면 어떨지요. 무육도 선원은 건너다니기에도 불편하기가 여간 아니겠지요. 그리고…"

그녀는 더이상의 말은 거기서 딱 끊어버렸다.

"그리고…"라고 입 다문 까닭은 수원의 짐작으로는 어린 아이가 틍명스럽게 그곳 일대가 앞으로 재난에 파묻힐 것이라고 말한 것을 떠올리게 하였다.

아무튼 수원과 파현은 그들의 떼배를 물의 포구에서 수선하도록 맡기고 그대신 임첨지네 겸인(兼人)이 따라와서 노는 주낙배 한 척을 마련해 준 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 주낙 낚시를 그만 둔지 오래되는 낡은 것이라 마음을 놓을만큼 편안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탔다. 볼론 곡식섬과 그 밖의 다급한 물건들이 임씨네 본부인과 셋째부인의 자상한 태려로 배에 실렸다.

배는 섬의 선착장에 닿았다.

인담이 나와 있었다.

"아니 파현수좌는?"

"저도 모를 일입니다. 분명히 이 배를 함께 탔는데… 짐 뒤에 있었는데…"

"오는 동안 서로 말도 주고 받지 않았오?"

"선객(禪客)이야 굳이 말할 것이 없다면 무엇하러 허튼소리나 나눌 일이겠습니까. 저는 앞에 있었고 파현은 뒤에 있었는데…"

"오는 중에 무슨 일이 난 것은 아니오?"

"바다에 풍덩!하고 몸뚱이를 던지는 소리라도 들었느냐는 말씀입니까?"

"아무튼… 자취 없이 사라진 것이 걱정이오."

수원은 인담 우녀에 대해서 차츰 어떤 죄라도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파현이 사라진데는 수원의 데면데면한 것이 기회가 된 것은 틀림없다. 결코 먼 물길은 아니더라도 배의 가운데에 실은 짐의 앞과 뒤에서 서로 살가운 말이라고 주고 받는 사이였다면 최소한 파현이 언제 사라졌는지 알 수 있었다.

쨌거나 선착장의 배에서 인담과 수원이 곡식섬과 블건들을 옮기는 것도 힘든 일이었다. 끝내 우녀까지 등짝에 무거운 물건을 지고 바위등걸을 오르다가 넘어지기도 하였다.

"이제 셋이로군, 셋뿐이로군."

이라고 인담이 얼굴의 땀을 훔어내며 배의 짐을 다 옮긴 뒤 구슬피 중얼거렸다. 다른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고보니 무육도 숲속에서 살고 있던 새들도 떡 줄어들었다. 이른 아침의 새소리가 벌로 들리지 않게 된 것은 세사람으로 줄어든 뒤에야 알게 된 일.

그림 · 조향숙

설악산 통일 청동대불좌상 완공

"세계 최고의 장엄신으로 신흥사 도량에 나투셨습니다"

다 겁생에 서원을 세워

저는 세계 최고의 위용으로 장엄하신 부처님을 조성하고자, 다겁생에 걸쳐 서원을 다져 왔음을 이 불사 기간에 거듭거듭 깨달았습니다.

자비스럽고 원만하신 상호

저는 세계 최고의 위용과 원만하시고도 자비스러우신 상호를 표현하기 위해 10년에 걸친 이 불사기간 중, 단 한순간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상을 염두에서 놓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금세기 최대불사

천추만세(千秋萬歲)를 넘어 미래제(未來際)가 다하도록 중생의 고난을 건져주실 자비의 미소상을 우러러 해마다 1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귀의례를 올릴 수 있게 한 이 불사는 단연코 금세기 최대의 세계적 불사입니다.



〈김성호 관장〉

최고의 불모(佛母)가 되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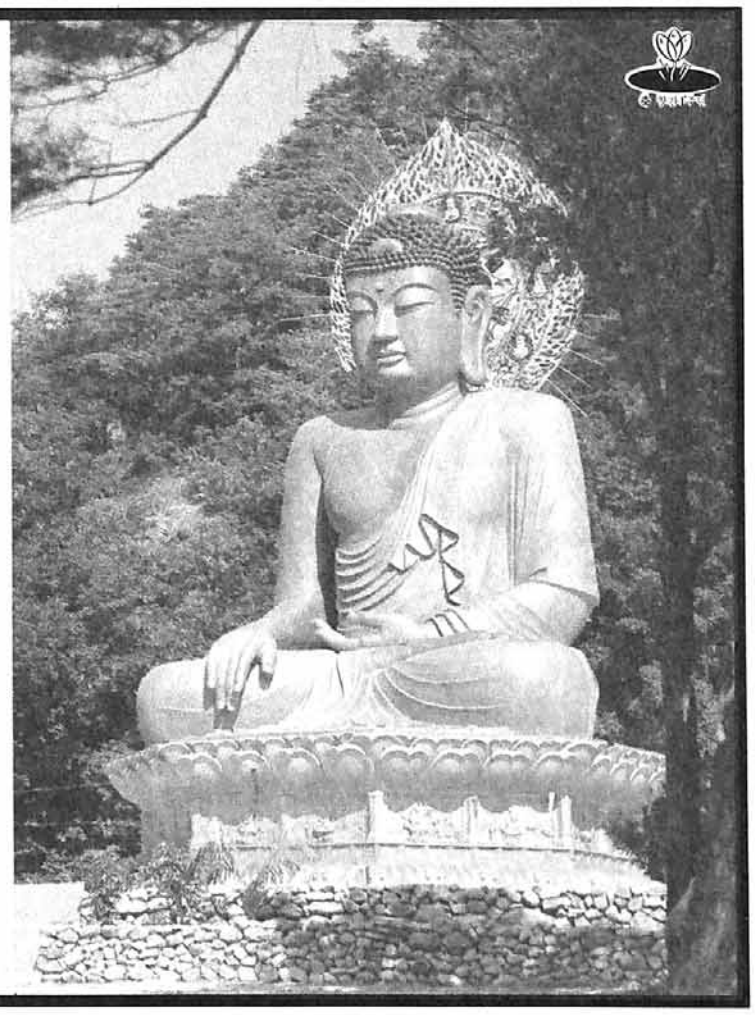
저는 더욱 신심을 돋우고 기량을 닦아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호를 입고 금세기 최고의 불모된 명예를 더욱 빛내기 위해 쉬지 않고 정진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에 봉사합니다.

- 노천불 조성 · 봉안
- 불상 · 불화조성
- 탑파 · 석굴 법당 설계 · 건조
- 법당 내부 장엄

■ 전시관 : 서울 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38-2
☎ 사무실 : (02) 733-4800, 739-2991
FAX (02) 739-2992
자 택 : (02) 591-9197

불교미술전시관 관장 김성호 (성도) 합장



'부처님 노래' 대중화 길 연다

불교음악硏, 음악감상회 매주 개최

의식 찬불가·교향곡·범패등 다양

가사의미·이론·감상법 공부 기회

불교음악을 이론적 배경이해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음악연구회(회장 정부기)가 11월 말부터 마련하는 불교음악감상회는 법회 현장에서 불려지는 의식찬불가는 물론 교향곡, 전통불교음악인 범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 구로 관음포교원 문예회관에서 매주 1회씩 열리게 될 이 감상회는 음악이론에 대한 배움의 마당으로도 활용된다.

불자들이 흔하게 부르는 삼귀의·사홍서원을 비롯한 찬불가의 가사에 대한 의미 해석과 선율의 음악적 특징은 반영규, 정부기, 박이제씨등이 상세히 안내한다. 이같은 이론을 토대로 실제 음악을 감상함으로 불교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것이 주최측의 의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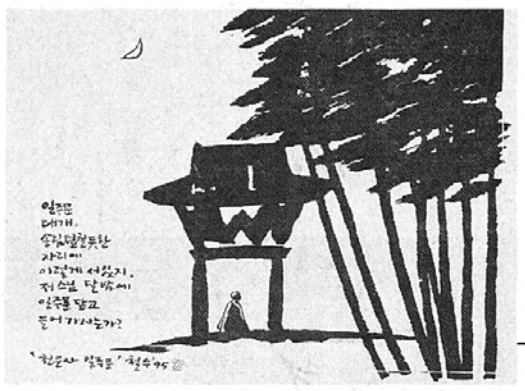
특히 현행 찬불가가 '찬송가를 닮았다'는 지적과 관련 실제 찬송가와의 비교 감상을 통해 그 실상을 이해하며 새로운 불교음악의 창작 영역도 제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일부 기존 찬불가의 편곡에 대한 현실적인 근거도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향곡의 감상은 '붓다의 노래'등을 토대로 이뤄지며 이 시간에는 교향악의 전개 방법과 감상법등이 자세히 안내된다. 전통불교음악인 범패의 이해와 바른 감상법은 작곡가 김희경씨가 맡게 되며 전통에 근거한 새로운 불교음악의 창작에 대한 문제도 깊이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불교가곡의 경우도 가곡이 갖는 특징과 불교적 정서의 융합문제등을 집중 조명하며 기존의 악곡들을 감상하게 된다.

현행 찬불가의 음악적·신앙적 의의와 음악 듣는 자세와 방법을 비롯 불교음악의 당면 문제까지 심도 있게 다루게 될 이 음악감상회에는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불교음악연구회는 그간 월보 '불교음악'을 통해 현행 찬불가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해 문제점 지적은 물론 발전적인 방향제시를 해 왔다.

이 감상회도 이같은 맥락에서 불교음악의 전문성과 대중화를 결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임연태 기자



◇ 이철수작 '천은사 일주문'

생활속 禪의 세계 함축 표현

이철수 판화전 18일~11월 12일, 전국 동시에

판화가 이철수씨의 '마른풀의 노래'전이 오는 18일부터 11월12일까지 서울을 비롯, 전주 대구 제주 등 전국에서 동시에 열린다.

3년만에 마련된 이씨의 이번 개인전에서는 불교를 소재로 한 그림과 생활을 소재로 한 그림을 단순하고 선기 넘치게 표현한 판화 72점이 선보인다.

작가 자신이 작품의 화자가 돼 끊임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작가가 찾아다닌 절, 실상사 백장암 천은사 대승사 등 절에 대한 감상을 삶의 한 표정으로 그려낸 '절' 시리즈, 앉아서 열반에 드는 스님을 그린 '좌탈'시리즈가 전시된다.

또 성철스님의 다비장을 소재로 한 작품, 조계종단의 개혁을 소재로 한 작품등도 소개된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단면이 그대로 표현된 작품에서부터 깊은 사색의 자취를 드러낸 작품까지 생활의 단상을 함축적으로 그려낸 판화작품이 함께 선보인다.

현실주의 미술, 민중미술에서 출발한 작가 이씨는 이번 전시에서 현실을 초월하는 정신세계뿐 아니라 정신세계를 초월하는 현실세계가 공존하는 선의 세계를 장식물들을 지워버린 단순한 화폭 속에 표현하고 있다.

이철수 '마른풀의 노래'는 대구-기림갤러리·광주-원화랑(~10/25), 부산-조현화랑·원주-카톨릭센타전시장(~10/27), 서울-학고재화랑·제주-제주아트갤러리·천안-이채관화(~10/31),전주-우진문화공간(~11/12)에서 개최된다.

〈필〉

'만다라' 대나무로 표현

황수로씨 설치미술. 26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부산 출신의 꽃꽂이 작가 '황수로 설치 미술전'이 지난 10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 형식으로 미술관 야외 조각장에서 열리고 있다.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서 이씨는 전남 담양에서 구해온 직경 15 길이의 대나무와 대나무 바구니로 꾸민 '만다라'와 '세월, 그리고 도전''홍살문'등 10점의 설치미술작을 출품하고 있다.

오는 26일까지 계속는 이번 전시는 공공미술관 최고 권위의 국립미술관에 지역작가로는 드물게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찬불가 교실 마련

본사 부산지사 강당

찬불가를 쉽게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16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2시~3시30분 범일동 현대불교신문 강당에서 찬불가 교실을 연다. 배천종씨가 지도하며 누구나 동참, 무료로 배울수 있다.

강진 보련사 여래좌상등 17건

전남·충남서 문화재로 지정

전남도 문화재위원회는 최근 유형문화재 2건과 무형문화재 1건, 지방기념물 5건, 문화재자료 1건 등 모두 9건을 새문화재로 지정했다.

이중 새로 지정된 유형문화재는 강진 옥련사 목조여래좌상과 강진 귀곡사 소장 익재이제현상(像) 및 백사 이항복상 등 2건이다. 특히 보련사 목조여래좌상은 1684년 조선 숙종 10년에 제작한 것으로 제작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어 당시 불상양식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유물로 주목된다.

한편 충남도 문화재위원회도 지난달 30일 예산 보덕사 극락전, 부여 보광사지 등 8개 문화재를 도문화재로 지정했다. 보덕사는 고종 2년(1871)에 흥선대원군이 옛절인 가야사를 승계하는 의미로 지은 사찰이며, 보광사지는 고려시대의 절터이다.

괘불 탱화 2백여점 수록

서울시 '사찰 불화집' 발간

서울시 문화관광국은 이달말까지 서울시내 13개 사찰의 괘불탱화의 촬영을 완료하는등, 연말까지 서울시내 사찰의 탱화 2백여점을 수록하는 도록 〈서울전통사찰불화집〉을 발간한다.

문화재관리의 효율성과 학술연구자료 이용의 편이를 위해 3년전부터 이 작업을 준비해온 서울시는 도록에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불화도 공개할 예정이다.

분신통해 '구도' 조명

연극, 끽다거 만해의 갈등그려

만해스님의 서거 51주기이자, 광복 50주년을 맞아 극단 서전이 선보인 연극 '끽다거(喫茶去)'가 지난13일 공연을 끝으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막을 내렸다.

제19회 서울연극제 공식 참가작이었던 연극 '끽다거'는 최현묵 작, 박계백 연출로 극단 서전의 열세번째 작품.

만해스님의 생을 빌려 생사일여(生死一如)의 삶과 죽음의 문제 등 한용운의 생애와 인간적 면모를 밀도있게 담아냈다.

만 화

法句經 법구경

* 자신의 장 *

내가 저지른 죄악은 바로 내게서 일어난 것



이 향 원



축 창간1주년

사단법인 한국불교발전연구원

"한국불교의 올곧은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 사 장 유 월 탄
원 장 김 용 정
실 장 홍 윤 식
상임연구위원 김 묘 주

상임이사 김 현 해
이 사 이 혜 총
이 사 이 성 웅
이 사 박 진 영
감 사 최 지 원
감 사 윤 법 안

기획조정실장 김 동 성
사 무 처 장 박 현 광
사 무 국 장 최 선 종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38 내자원B/D 6층 / ☎ 736-6202

축 창간1주년

鷲洛佛教長遊宗 禪宗 開院 大法會 및 奉佛 點眼式 招請

귀의삼보하옵고, 국화향기 그윽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편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소매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우리 사람들은 몇 생을 만나, 서로서로 탁마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가락사의 일부인 가락불교를 복원하기 위하여 영남의 제일명산, 신선이 기유한 성지, 중무산 중원에 서기 1994년 3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대웅전, 장유선사영정각, 장엄보전, 공양청 등 건물네동을 준공하고, 상기와 같이 본 선원 **開院 大法會 및 奉佛 點眼式**을 봉행코저 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두루 참석하시어 무한한 공덕인연을 맺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초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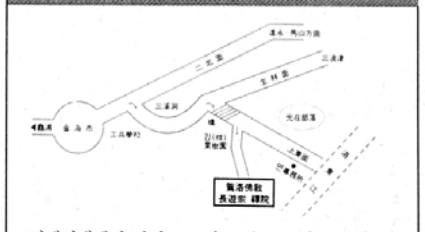
記

■ 일시 : 서기 1995년 10월 27일(금요일)
• 奉佛點眼式 : 오전 10시 • 開院大法會 : 오전 11시

■ 장소 : 경남 김해군 상동면 석계리 1050-1번지(광재부락)
鷲洛佛教長遊宗 禪院(약도 참조)

1995년 10월 일

鷲洛佛教長遊宗 禪院 위치 약도



● 김해시내에서 차편으로 약 20분 소요되는 지점임

鷲洛佛教長遊宗 禪院 創建佛事推進委員會
위원장 金 容 彩
주 지 金 玄 徹 합장

* (연결전화) 김해 선원
TEL : (0525) 23-6174~5
부산사무소
TEL : (051) 635-4111~4

개혁으로 거듭나는 종단

대한불교조계종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해의 종단 개혁 과정 이후
대한불교조계종은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인류문명의 전환기를 주인되어 능동적으로 맞이하고,
교단을 오래도록 유지하며 훌륭한 화합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불교계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기에 누군가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한국 불교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교육·수행·역경·포교·사회복지 등
교단의 발전과 뭇 생명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여러 종단과 힘을 모아 내일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월하
원로회의 의장 혜암

총무원장 월주
중앙종회 의장 설정
교육원장 원산
포교원장 정락

총무부장 법타
기획실장 현응
재무부장 원우
문화사회부장 시현
사업부장 설송

호법부장 혜창
교육부장 향적
불교연구소장 덕운
포교부장 원혜
사서실장 평상

광복50주년 기념 팔관재 및 생전예수재 봉행안내

지난 해 서울 정도 6백년 기념으로 조선조 초반 이후 그 맥을 잇지 못한 팔관회를 본종에서 새로이 전통불교문화행사로 재현한 팔관대재는 교계는 물론 일반 사부대중들까지도 전통문화계승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종단중흥발전은 물론 민족의 대화합과 평화통일성취를 기원하고 동참자의 가정안락을 기원하기 위해서 10만등을 밝히고 팔재계를 설하는 팔관법회와 생전 예수재를 서울·인천·경기 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여법하게 봉행하오니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수희 동참하시어 무루의 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 시	1995년 10월 20일(음력 윤 8월 26일 금요일 오후 1시 ~ 5시)
장 소	신촌 봉원사
동참비	생전 예수재 = 4만원 팔관재 = 2만원 (1인 1등) 영가위패 = 1만원 (1위)

문의전화 : 745-2030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박 서 봉**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이법홍
종회의장 김덕현
원로원장 윤몽봉
총무원장 설대운

총무원장직무대행	송무진
규정위원장	김도원
상벌위원장	박송파
고시위원장	차도민
강원종무원장	김도원
경기종무원장	우종산
경남종무원장	박송파

전화 : 02-735-0501 / 팩스 : 02-736-3509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대한불교 화엄종

종정 : 한구하 의장 : 정희수

405-230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산 21 / ☎ 032-422-2066 ~ 7 · 0413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공익법인) 대한불교화엄장학회

이사장 : **정 희 수**

서울사무소 : 110-130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B/D 101호
☎ 02-730-0798~9 / 팩스: 02-722-3205

스님들이 옷을 갈아 입는다

기원 전 7세기 경
인도 대륙 카필라 국의 싯달타 태자가
행복의 비결을 깨달음으로써 탄생한 불교-

1,600여 년 전 이 땅에 건너온 이래
우리 조상들과 함께 질곡의 세월을 겪으며
엄마 품과 같이 아늑한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교는
이미 종교 이상의 그 무엇이 된 것입니다.

옷이 낡으면 새옷을 입어야 하는 법,
옛날 스님들은
한문으로 된 불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었지만
요즘처럼 다원화된 시대에는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 되어
다양한 언어로 각계각층에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 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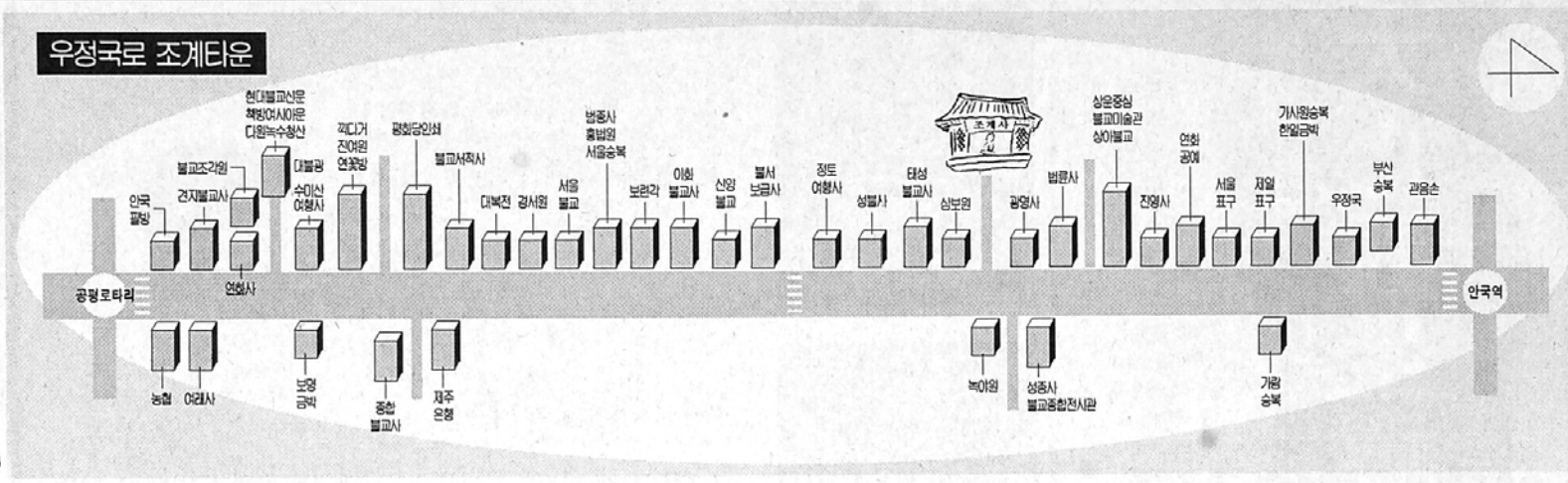
그러기 위해서는
학문과 수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현대적 공부방법을 과감히 수용해야만 합니다.

한국인의 고향을 지키며
늘 싱싱한 언어로 행복의 비결을 가르치는 구도자-
중앙승가대학은 그런 스님들을 길러 냅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송 월 주**
중앙승가대학장 **임 송 산**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6 / ☎ 925-5507~9

조계타운

창간1주년 특집



한집 건너 불구店…신행·포교 1번지

불교 대중화로 가는 문열이 조계타운

점포1호 '불서보급사'…80년이후 용품점 잇따라 개업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합장 "법향 가득한 거리"

종각4거리 제일은행 본점에서 안국동 로타리에 이르는 거리는 언제부터인가 행정가로명인 우정국로보다 조계타운으로 부르는 것이 더 익숙해졌다. 5백여미터에 이르는 거리에 온갖 불교용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자리잡고 있으며, 회색빛 장삼을 걸친 스님들의 모습, 합장으로 인사하는 풍경이 낯설지 않기 때문이다.

이 거리가 '불교타운'으로 모양을 갖추기는 30여년 전. 한국불교 포교1번지라 불리는 조계사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 타운 형성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여기에 지하철 1·3호선의 종각역과 안국역이 인접하고 있어 교통의 편리함도 한몫 거들었다.

이 거리는 조선조가 한양으로 도읍을 정한 이래 상설점포 격인 시전(市廛)이 형성된 종각네거리를 중심으로 번창했던 곳이다. 당시는 종각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3천여칸의 행랑이 조성되어 서울의 중심상가를 형성했던 곳이다. 우정총국과 궁중에서 사용하는 약과 왕이 하사하는 의약을 제조 공급하던 전의감(典醫監), 구한말 애국지사 민영환선생의 집터(지금의 조계사 육화당)가 있는 유서깊은 곳이다.

지금과 같이 40여개 점포가 잇따라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들어서다. 이때의 점포들은 '만물상'이었다. 한 점포에 염주 목탁 불상 승복은 물론 불교서적 어린이용품까지 취급했다.

한 품목만 취급해서는 장사가 안되는 것도 이유이지만, 스님들이 여러 점포를 다니며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보다는 한 곳에서 해결하려는 구매행위에 따른 것이다. 한번 맺은 인연을 중시하는 불가의 전통 때문인지 스님고객은 거의 단골손님이다. 주로 이용하는 손님도 스님이 주류를 이루었다.

지난 86년 개업한 견지불교사 대표 노순옥보살은 "관매물을 보면 여전히 스님들이 많지만 찾는 분들은 일반인들이 훨씬 많다"라며 "불교의 발전이 더디다고 하지만 그만큼 불교가 대중화 되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취급품목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염주하면 향나무를 둥글게 깎은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지금은 각종 열매, 심지어 투명 또는 유색의 합성수지 제품까지 나왔다. 각종 기념품의 종수 증가도 눈에 띈다. 고가의 크리스탈 제품은 이제 대중적인 상품이다. 또 선물용 또는 소지용의 호신불도 인기품목이다. 낯설지 않게 들르는 외국인의 손길이 가장 먼저 닿는 제품이 되었다. 예전에는 부처님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에 호신불이나 소형 불상이 어색했으나 지금은 액세서리로도 인기를 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조계타운은 외형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며 오늘에 이르렀다. 전통적인 불교용품점뿐만 아니라 신행활동과 연관된 점포들이 들어섰다. 수미산여행사 정토여행사가 사무실을 열어 성지순례를 이끄는가 하면, 대불광 한국불교전시관 종합불교전시관 등 불교미술·조각가들의 상설 전시매장이 자리잡아 거리의 모습을 변모시켰다. 전시장 내부도 단청을 하는 등 조계타운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해 지나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하나의 변화는 전문점의 등장. 89년 상운중심이 불교백화점으로 등장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승복 관음손 등이 줄을 이었다. 상운중심은 매장을 도자기부 은제품부 염주부 신발부 등으로 특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서울승복사는 마네킹을 설치해 진열장을 꾸미는 등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적극적인 판매방법을 동원 주목을 끌고 있다. 요즘은 법사복을 새로이 개발 보급하고 있다. 개신교의 목사법의와 비슷해 불교의 특징을 살리지 못했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관음손은 어린이용품이 주력상품. "어린이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불교팬시용품의 개발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밝힌 관음손대표 강종중씨는 "그러나 아직까지 어린이법회가 활성화되지 않아 수요는 그리 많지 않다"며 아쉬워했다.

전통의 향훈을 느낄 수 있게 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이다. 끽다거는 차를 마시고 싶으면 누구든지 들어가 다담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차는 무료로 제공한다. 92년 개업 차보급운동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야생차만 취급하며, 예술성과 실용성이 가미된 다구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지난해 8월 개업한 전통찻집 녹수청산도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소규모법회와 세미나 등 만남의 장소로 자리잡았다.

불서전문책방 여시아문의 등장은 조계타운이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하는 계기였다. 70여평의 매장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서 3천여종을 비롯 절판본 희귀본 등 2만권의 불서를 전시 판매하고 있다. 저자와의 대화 등의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문점이 늘어나면서 몇몇 점포는 업종을 특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륜사 조재효씨는 불상·불구점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팔상록 불교영험설화 강원교재를 펴내며 60년대 불교출판을 이끌었던 법륜사의 오랜 전통이 새롭게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30여년전 한 두곳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조계타운이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또다른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성운 기자



◇조계타운은 90년대 들어서면서 외형적으로 큰 변화를 보였다. 전통적인 불교용품점뿐만 아니라 여행사등 신행활동과 연관된 전문점들이 들어섰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타운 터줏대감 이봉수씨



한국불교 상징거리 "역사현장"

30여년 동안 불서 6백여종 내

조계타운 지킴이 이봉수거사(68·도서출판 보련각 대표). 지금은 40여개 점포가 어깨를 맞대고 조계사 좌우에 자리잡아 하나의 불교타운을 형성했지만 이씨가 이곳에 출판사와 서점을 연 60년대 후반은 서울의 여느 거리와 다름없었다.

그때만해도 서점은 물론 불교용품점도 몇 안되었다. 고 장경호거사가 문서포교를 위해 설립한 불서보급사가 불교타운의 1호 점포로 기록된다. 법륜사 보련각이 뒤를 이었고, 그후 태성불교사 광명사가 문을 열었다. 거리 모습도 지금과는 판이했다.

"일본식의 2층 기와집에 표구점 필방이 한집 건너 자리잡았고 불구점은 곁다리였어요. 거리도 지금보다 좁은 2차선 도로였는데, 79년 도시계획에 따라 차도와 인도가 넓혀지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지요. 불교용품점이 잇따라 문을 연 것도 이때였어요."

이씨가 이곳에 보련각을 개업한 것은 68년이지만, 불서출판사업은 이보다 훨씬 앞선다. 한국전쟁 직후 서대문우체국에 근무한 1년을 빼고는 줄곧 불교책을 펴내왔다. 초발심자경문도 필사해서 볼 정도로 책이라고 부를만한 것이 없던 시절이었다.

그후 30여년 동안 이씨는 6백여종의 불서를 펴냈다. 외길로 불교출판 문화를 일궈오며 이 거리를 지켜온 것이다.

현대 한국불교의 숱한 영욕을 보아오며 그를 오늘까지 이 거리에 있게 한 것은 그의 넉넉한 삶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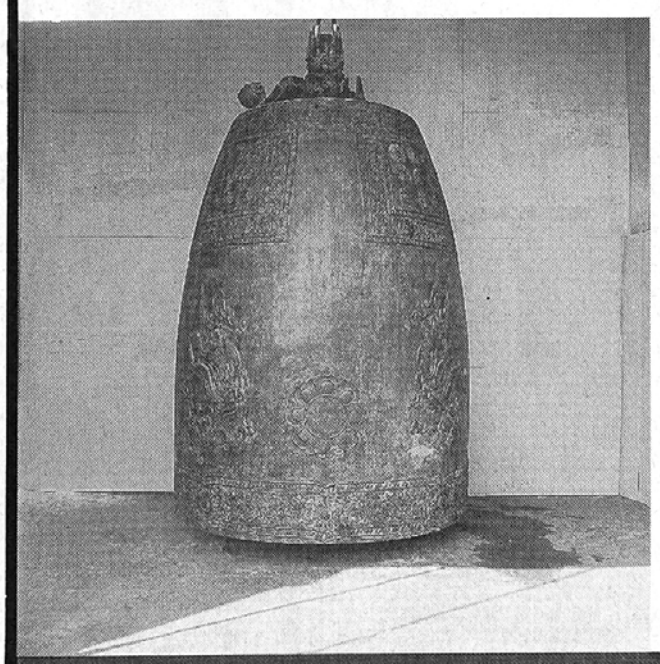
"큰 집 갖고 좋은 차 타고다니는 사람이 잘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반쪽의 행복이죠. 진짜 잘사는 사람은 몸 건강하고 건실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죠. 모두들 그렇게 살아야 해요."

아울러 이 거리가 이제는 불교인만의 거리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이씨는 "부처님 덕분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거리가 된만큼 그 고마움에 보답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을 찾아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포교사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축 창간1주년

신라범종과 고불의 재현



"범종 주조의 기술혁신과
이조부처님의 재현을 위해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연구끝에 특수주조 정밀공법을 개발하였으니
고승 대덕 스님과 사부대중의 지도편달 바라오며
을해년 한해도 불사의 현장에 창업 45주년 경험과
성실을 바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국내최대 범종주조회사 성종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2(조계사 앞)
서울사무실 (02) 733-6141
공장 (0331) 283-2083
부산지사 (051) 803-0781
대표 원광식(梵山) 합장

서울대 교수, 전북대 총장, 한국철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던 고형곤 박사의 역작!!

增補版

선의 세계

高亨坤 著

제1권
서양철학과 禪
제2권
한국의 禪

한국불교의 통불교적 성격, 선교일치의 전통을
밝히고 동양문화의 특색을 이룬 선불교와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통해 제3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명저

신국판 양장
1권 380쪽 · 13,000원
2권 330쪽 · 12,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

선(禪)수행의 보고(寶庫)!
지관선(止觀禪)의 집대성!

摩訶止觀
大止觀坐禪法
대지관좌선법

천태대사의 〈마하지관〉
드디어 현대어로 완역

〈마하지관〉은
천태대사가
선수행의 방편을
자신의 수행 경험과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책이다.
지관법(止觀法)은
석가세존이 깨달음을
얻으신 방편인 동시에
석가세존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고 풍부하게 된
수행방법이다.

天台智者 大師 述
空綠 金無得 註釋

전5권
신국판/값 각권 8,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

화제의 신간
〈보문품〉의 가르침을 우리의 언어로
새롭게 쓴 생명 법문
관세음보살
보문품강화
普文品講話
법령스님 지음

축 창간1주년
건강 때문에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여 투병해 온 한 출가인의 수행기

고통스럽고 외롭고 잠시 즐거울
때도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여 자
신을 가늠하면서 살아온 수행인의
관세음보살의 영험과 체험을 통해
얻은 신앙의 결정체

신국판/값 8,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옛말과 지금 부적의 결정판!!!
김백만 편저/값 35,000원

관음독송경 시리즈

1. 우리말 금강경(심재열/값 2,000원)
2. 한문 금강반야바라밀경(심재열/값 2,000원)
3. 우리말 불설아미타경(심재열/값 2,000원)
4. 한문 불설아미타경(심재열/값 2,000원)
5. 우리말 천지팔양심주경(이청벙/값 2,000원)
6. 한문 불설천지팔양심주경(이청벙/값 2,000원)
7. 우리말 예불대참회문(심재열/값 2,000원)
8. 지장보살본원경(동봉/값 6,000원)
9. 원각경 보안보살장 · 팔양경(경흥/값 2,500원)
10. 천수경(근간)
11. 부모은중경(근간)
12. 관음경(근간)

※범보시물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전화 : 02) 921-8434, 929-3470 팩스 : 02) 929-3470
관음출판사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
2천 5백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금강경〉은 다이아몬드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다!
'그대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우는 인생의 큰 스승
오쇼 라즈니쉬! 그만의 독특한 깨달음의 언어와 강의법, 탁월한 삶의
인식으로 '우리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운다.
어떠한 집착도 번민도 없는 무상도의 세계, 구름 너머 저멀리, 깨달음의 밭으로
인도하려는 그의 노력이 우리에게 시공을 초월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
삶에 찌든 우리에게 샘물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신국판 · 432면 · 값 7,000원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갇힌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라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한다.



오쇼 라즈니쉬! 그는 잠초가 무성한 법구경이라는 밭을 완전히 갈아 엎는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깨달음의 씨앗을 뿌린다. 우리는 그의 법구경 강의를
통해 고타마 붓다의 시대로 돌아간다. 스승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깨달음의 언어, 방금 건져올린 물고기처럼 생동감 넘치는 삶의 지혜,
그 무한정의 감동이 우리를 압도한다.

법구경 (上)(下)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전2권 / 각권 값 6,500원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112 가지 명상비법 무삭제 완역공개
인생을 무덤덤하게 살 것인가? 황홀하게 살 것인가?
목마른 영혼만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고민이 없이 삶에의
무지와 무관심, 무감각에 빠져 버린 메마른 의식과 안일한
삶의 대도에서 이젠 깨어나십시오!
인도 5000년의 지혜 「비그아나 바이라비 탄트라」
국내 출판 사상 최초 완역본!



탄트라 비전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전4권 / 각권 값 6,500원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를 아십니까?

이 존재들을 모른다면 지성인이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인간 정신의 가장 차원 높은 지적
유희가 바로 선(禪)입니다.
이 존재들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당신은 초범입성
(超凡入聖)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조가 당신을 만난다면 그 즉시 당신의 머리를 베어버릴 것이고,
조주는 그 남은 몸뚱어리를 부처의 몸으로 조각할 것이며,
임제는 부처의 머리를 가져다 그 몸에 붙여줄 것이다.

마 MATZU 당나라 대사의 거보(巨步)를 앞지른 마조신사의 불구는 목적!
조 JOSHU 인간이라는 동량이로부터 붓다를 조각해 내는 훌륭한 장인정신의 소유자 조주의 신과 장상의 세계!
임 RINZAI 제 고금을 통하여 선(禪)어록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임제신사의 생생한 육성의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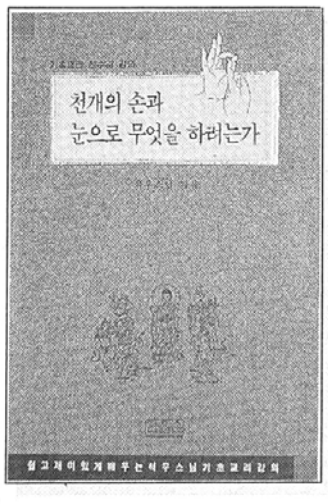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각권 값 5,000원

태일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대표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축 창간1주년
천개의 손과 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방황하던 우리의 영혼을 불러들여 보다 아름답고 통쾌한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삶의 지침서!
석우스님 지음

기초교리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20여년을 승려 생활하면서 스님, 왜 불교는 스님마다 설법이 다릅니까? 불교는 알듯하면서도 도통 모르겠습니다. 스님, 불교는 왜 통일되고 체계있는 이론이 없습니까? 깨달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초심자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 많은 서적 중에서 어떤 책을 소개해 주어야 하는지 난감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이 너무 많아서라거나 그 내용을 다 읽어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정말 초심자에게 안심하고 권할 수 있는 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강의를 마감하며 이 책을 내었습니다. 책을 내어보니 부족한 점은 없지 않으나 그나마 속이 후련합니다. 하고 많은 책 중에서 왜 기초교리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초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면 중급교리인 반야심경과 금강경도 쉽고 재미있게 써볼 작정입니다. -저자의 말-



부처님은 누구인가?

부처님을 알려면 본래적인 의미의 부처님과 역사적인 부처님을 다 알아야 합니다. 본래적인 부처님은 우주의 주체입니다. 그것을 법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진리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주의 신이 있어서 창조한 것이 아니고 법성의 법칙에 의하여 우주가 벌어진 것입니다. 주변에 이미 그러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을 잘 둘러보면 과거 · 현재 · 미래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한 탐구심만이 우주의 근원과 그 결과를 알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중생과 부처님은 어떠한 관계인가? 이제 이런 문제로 자비의 전화에 전화걸지 마십시오. 문제의 답을 자기의 속에서 찾도록 하십시오. 확실한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알면 우주를 알고, 자신을 깨달으면 대자연을 압니다. 당신은 지금 거기에 있는 당신이 진정 당신의 정체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기초교리서가 아닙니다.

늦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값 6,500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30번지 ☎ 02) 720-1147~8

사찰풍수

왜? 그곳에… 한국의 산이 아름답은 것은 절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 60개 명찰 풍수답사기

임학섭 지음



산은 서있고 절은 움직인다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산은 생명의 원천이다. 만물을 태어나게 하는 기(氣)는 산에서 발원하고 산의 맥을 통해서 흐른다.

절-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 마음을 갈고 닦는 공간-
그곳은 생불(生佛)을 만드는 도량이다.
수 많은 사람들이 산속의 절을 찾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곳에 절이 있는지, 그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절이 산속에 지어진
이유는 산천의 쇠한 기운을 보익하여
국가의 기업(基業)을 튼튼이 한다는
「산천비보 (山川神寶)」의 의식때문이다.
절이 들어선 그 땅은 바로 산천정기가
응집된 요새요혈이며 주변산세가 순화된
길지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의 생명체이다.

신국판 | 전 2권 | 각권 6000원



대변신 (大變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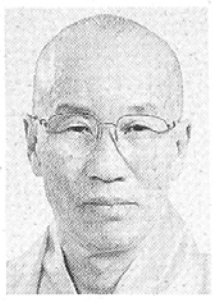
21세기를 맞이하는 지구는
지금 신음하고 있다.
대공해, 대홍수, 대지진, 대기름 -
이제 한인이 되기위한
대변신이 필요한 때이다.

지자경 지음
신국판 | 값 7000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2동 320 개암빌딩 | 도서출판 밀알 | 전화 5290140~5 팩스 5792312

"전법도생 매진하는 종풍 정착"

선교종 새 종정 동 호 스님



"작금의 온갖 사회병폐와 중생들이 겪는 고통은 더불어 살아갈 줄 모르는 마음, 즉 자기만 알고 타인은 알바가 없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1월 9일 대한불교 선교종 제2세 종정으로 취임하는 동호스님이 현 세태를 보는 일갈이다.

스님은 이같은 허상에 얽매인 무명의 상태가 연기작용에 의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회병폐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진단한다.

"40여년을 간단없이 교화하신 불타의 근본 가르침은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것입니다. 이의 실천궁행으로 불향이 저푸른 창공에서 내려오는 한점의 맑은 바람같이 심산유곡에서 흐르는 한줄기 옹달샘처럼 끊임없이 가득찬다면 그것이 바로 불국토가 아니겠습니까."

스님은 창종 3주년을 맞이하는 선교종은 향후 보우국사의 원융종풍을 선양하여 전법도생에 매진하는 개혁종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품은 공덕의 어머니' 체험

부산시내서 탁발수행

송광사 강주 지운 스님



"탁발은 무소유와 하심을 실천하는 하나의 수행방법입니다. 납자의 길에 들어선 지 얼마되지 않은 학인승들에게 이번 탁발이 발심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6일 부산 번화가 일대에서 탁발을 시작한 지운스님(송광사 강원 강주)은 탁발을 깨침의 한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스님은 또 불자에게 있어서 세상의 크고 작은 공덕은 모두 베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평범한 진리의 실천이 바로 탁발이라고 말했다.

송광사 강원은 작년부터 1년에 네차례 탁발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올해는 광주(두번), 진주에 이어 부산이 마지막 일정으로 50여명의 학인들이 참여해 그 인원도 가장 많았다. 진주서는 탁발 보시금 4백만원 전액을 심장병 어린이 수술 비용으로 기탁하기도 했다는 지운스님은 이번 탁발에서 모인 보시금은 중국 연변 도문시 화엄사 복원에 쓰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병〉

교차로

비구·비구니계 수계식



덕암스님(전 태고종 종정)은 11월5일~7일까지 2박3일간 불이성 법륜사에서 비구·비구니계 수계식을 봉행한다. 접수마감은 오는 31일까지.(02)732-3920

광주 '나눔의 집' 방문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8일 경기도 광주에 건설중인 정신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 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둥지소년의집 개원식에도 참석했다.

미주 불교 창간기념 행사 참석



법성스님(대승원 원장)은 미주 현대불교신문 창간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키 위해 지난 16일 도미, 현지서 '현대사회와 불교'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석용산스님 초청 법회



도업스님(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은 오는 18일 오후 4시 석용산스님을 초청 '열린 마음 열린 세상'을 주제로 10월 정기법회를 갖는다.

미8군법우회 창립 15돌 행사

박동윤씨(미8군법우회 회장)는 오는 22일 미8군 교회강당서 '미8군 법우회 창립 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불교와 효…' 주제 법회



명호근회장(대불련총동문회)은 오는 23일 오후 7시 조계사 1층 불교회관에서 월주스님과 오형근 박사(총동문회 학술원장)를 초청, '불교와 효의 재조명'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개최한다.

'암자순례' 중앙일보 연재



정찬주씨(소설가)가 산중암자의 역사와 그곳에서 주석했던 큰스님들의 이야기등을 주제로 하는 '암자순례'를 10월 말부터 매주 1회씩 중앙일보에 연재한다.

하이텔 '불동' 회장 피선

오상룡교수(상주 산업대)는 지난 1일 하이텔 불교동호회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오회장은 소모임활성화, 강원·제주지역모임 결성, 스님공동아이디 운영등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성남불교인 산악회 창립



임선교법사(성남불교신도회장)는 오는 21일 오후 5시 성남 신흥동소재 수정부페에서 성남불교인산악회 발단식을 갖는다.

청소년가장 돕기 모임



정영자씨(지혜의 등불 봉사신행회 회장)는 오는 28일 오후5시 여의도 63빌딩 별관3층 코스모스홀에서 '95 무의탁노인·청소년가장어린이돕기 지혜의 등불 가족모임 만찬을 연다.

원효학 연구원 초대원장 김 영 태 교수

"대승적 융회·무애사상 다시 선양"



"원효학의 산지(産地)이자 근본도량인 경주 분황사에 연구원을 개원하는 것은 원효스님이 저술하고 수행한 성지에서 그 뜻을 이어받아 원효학을 부활시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새벽을 밝힌 원효스님의 사상을 학문적으로 승화시킬 원효학연구원(이사장 성타)의 초대원장을 맡은 김영태교수(동국대·63)는 "원효스님의 화쟁(和諍)·회통적 근본정신으로 돌아가 성사의 위대한 생애와 정신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연구원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분황사(주지 종수)에서 개원식을 갖고 정식 출범하는 연구원은 원효스님의 교학 및 사상의 발굴·재정비, 원효저술의 번역 주해 및 연구, 연구발표회 개최 및 연구논집등 발간, 원효관련 유적지 조사 및 성역화 등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김교수는 "원효스님은 한국불교와 우리민족이 낳은 불멸의 스승이며 위대한 종교인이자 독창적인 사상가로서 대승보살도의 탁월한 실천가였다"며 원효스님의 보살행을 되살리는 원효대재 봉행, 원효문예대전 개최 등의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분황사 황룡사지와 경주시내 일원에서 봉행될 '해동초조 원효성사 제향대재'는 경주시 차원의 문화축제로 준비된다. 또 원효문예대전에는 무애가무 거리굿 시가행렬 등의 앞길놀이와 국악관현악단의 열린마당 북춤 관소리 연등탑돌이 등 뒷마당으로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

김교수는 "원효대사가 완성한 융회(融會)·무애의 정신을 이 시대에 상응하는 문화형식으로 재구성해 선양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독특한 지역문화를 형성·정착시키는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김재경 기자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동대 불교사회복지회



◇대창양로원 거주 사할린 교포 노인을 위한 위문공연을 펼치고 있는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사회복지회.

'시름의 세월' 달래는 화합 한마당

귀국 사할린 동포에 성금·의류 등 전달 위로

"멀리서 이렇게 찾아와서 잔치를 베풀어주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사할린동포 영구귀국노인 51명이 거주하는 대창양로원(경북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산12-11, 원장 오기문)에서는 위문공연이 베풀어졌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회와 한국전통가요 동호인회등 4개 단체가 합동으로 위문공연을 마련한 것.

공연에 앞서 4개 단체가 정성껏 준비한 성금과 의류 및 의약품등이 전달됐다. 이는 연중 최고온도가 섭씨 27도 정도밖에 안되는 사할린에서 온 동포노인들이 공동적으로 피부병과 환절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인사말에서 운월스님(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회장)은 "내생에는 우리나라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일생을 보낼 수 있는 인연갖기를 기원드립니다"고 말하며 사할린 교포 노인들을 따뜻하게 위로했다.

공연이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분 두분 무대앞에 나와서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해서 눈치만 보던 노인들이 한울타리 봉사회원들이 이끄는 손길을 따라 너나없이 무대앞으로 나왔다.

열기가 한층 고조되자 구경만 하던 둥네아저씨, 아주머니들도 덩달아 어깨춤, 엉덩이춤 대열에 가세했다.

사회자의 권유로 스님들도 국적불명의 승무(?)를 추었으며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영글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고국을 떠나올 때 한번, 사할린을 떠나올 때 한번 등 모두 두번의 크나큰 별리를 겪은 이들 할머니·할아버지들은 잠시나마 맺힌 한과 슬픔을 달랠 수 있었다.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43년 징병으로 끌려간 남편을 좇아 사할린에 건너갔다는 김순덕할머니(73)는 "남편과 사별한 후 죽지못해 살아왔다"며 "그나마 늙으막에 고국에 돌아온 것은 모두 부처님 덕분"이라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이날 공연은 불교도 소극적 행동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실현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앞장서 나가야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편 대창양로원 가족들은 운월스님 초청으로 지난 2일 KBS 가요무대 공연을 관람하고 63빌딩도 둘러보았다.

고령=이윤호 기자



불지사 '선학사전' 출판기념회

〈선학사전〉(불지사 펴냄) 출판기념회가 지난 6일 쌍용빌딩에서 월운 동국역경원장, 보광 동국대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장 이기영 한국불교연구원장, 김종서 한국교육개발원장, 송석구 동국대총장, 권기종 연기영 박경준 동국대교수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선학사전은 선불교와 관련된 9천1백여 항목의 표제어를 수록, 풀이한 한국 최초의 선종 관련 사전으로 월운스님이 감수했다.



무주 안국사 이전복원 불사 회향

무주 적상산 안국사(주지 원행) 이전복원 회향식 및 만등불사가 지난 6일 성황리에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송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정락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천운스님(대둔사 주지)등 스님 50여명과 김세웅무주군수 신도 1만여명이 동참했다.

7년여에 걸친 이전불사를 회향한 안국사는 극락전 천불전 요사채등 10여동의 전각을 복원했다.



제주 문강사 불교회관 낙성식

천태종 제주 문강사(주지 전문구)는 지난 9일 오전 10시 제주시 삼양동 산1-2 원당봉에서 불교회관 낙성식을 성황리에 봉행했다.

이날 낙성식에는 김도용증정을 비롯 전운덕 총무원장, 윤덕산 종회의장, 주정산 감사원장, 박형철 참의원장, 김지문 제주불교사암연 회장, 신구범 제주지사, 고민수 제주시장, 김인규 제주도의회의장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했다.



법왕사 경로잔치 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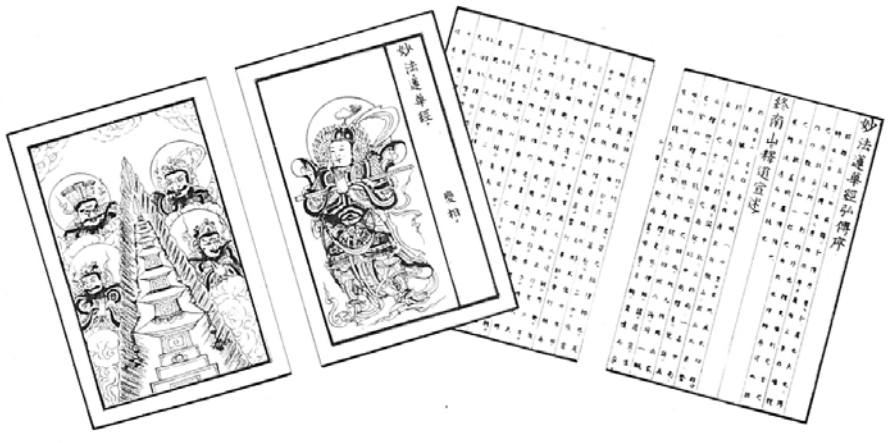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스님)는 지난 7일 대구시내소재 양로원·경로당 및 사할린 영구귀국동포가 거주하는 고령군 대창양로원 노인 1천5백여명을 초청 '제4회 경로잔치 한마당'을 개최했다.

대구 예총연주단과 공연단의 음성 및 춤공양, 범진스님의 회심곡, 대연스님의 법화경 음성공양 등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즉석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참석 노인들을 즐겁게 했다.

원효스님의 종요·
김시습의 별찬이
수록된 법화경
한장본

묘법연화경

현재 발간된
영인본과는 달리
각 품마다 대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서는 이미 발간되었던 법화경과는
다른 도광 10년, 170년전 필사본으로
귀중한 사료로 남을 것입니다.

첫째, 원효대사의 법화경 종요 序수록
둘째, 淸寒子 김시습의 법화경 별찬·별찬서 수록

■ 내용. 최고급한지 인쇄. 수제본
■ 표지·케이스는 최고급 한지배접 제작
■ 전7권 최고급 한지 케이스 입
■ 한정판 출간 예정

값 200,000원
※ 선 주문시 15% 할인해 드립니다.

佛書專門出版
大興企劃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수성B/D 101호
전화 : 738-6270, 735-7202
FAX : 733-1016

무의탁 노인들 정성모아 더 어려운 이웃에 '자비행'

맹인불자회·법륜회·곰두리 차량봉사대도 보시행 '열심'

"우리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

불우한 처지에 놓여 주위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우이웃들에게 보시행을 펼치는 자비나눔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 노인들, '맹인불자회', 신체장애인 불자모임 '법륜회', 곰두리 차량봉사대가 바로 이 미담의 주인공들.

미아 6동에 사는 박숙자할머니(72)는 오는 20일 파주 관음대비양로원 위문갈 날을 꼬박 기다리고 있다. 박숙자할머니는 노동을 하는 아들과 손자와 근근이 살아왔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월세방마저 쫓겨날 정도로 생활이 궁핍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매일 미아자비의 집에와 점심을 먹는 노인들중 하나이다.

이렇게 미아동과 상계동 자비의 집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무의탁·생활보호대상자 노인 1백여명이 오는 20일 양로원 노인들을 위문갈 계획을 세웠다.

매년 자비의 집에서는 불우노인들을 위한 단풍놀이를 실시해 왔는데 이번엔 노인들이 놀이 대신 "우리보다 더 외롭고 소외된 처지의 노인들을 위문하자"는 발심을 낸 것. 이들은 이때부터 자비의 집에 모금함을 만들어, 올 때마다 10원도 넣고 100원도 넣었다. 지금까지 모인 돈이 40여 만원. 물론 이중에는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들의 격려금도 들어 있지만 이 성금으로 관음대비양로원 노인들의 겨울 난방비를 보조하고 노인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준비해 갈 예정이다.

대구 대광맹인불자회(회장 이재달)는 오는 11월11일 부산 문화회관에서 기금마련을 위한 춤공연을 개최한다. 공연에서 나온 기금은 시각장애인 자녀들의 장학금과 양로원·감호소 등 소외된 곳을 방문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서울의 시각장애인 모임인 혜광맹인불자회(회장 김부봉)도 회원들의 회비를 알뜰히 모아 2년째 소년소녀가장 4명에 매달 3만원씩 학비를 전달하고 있다.

신체장애인불자모임인 법륜회(회장 이영균)는 운전기사불자회 법륜회(회장 원상식)와 함께 노원구 각 동의 장애인 가구와 생활보호대상자 5가구씩을 선정해 김장보시를 계획하고 있다. "보호자 없는 장애인들 중엔 10년이상 밖에 나가보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하다"는 이영균회장은 "따라서 겨울철이 다가와도 김장준비가 어려워 김장보시를 무척 고마워한다"는 것.

지난 88년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자'는 취지로 설립된 곰두리차량봉사대(회장 김만용) 역시 전국 12개지부 7백여 회원이 무보수로 장애인의 각종 행사 참여를 도와주고 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보시행도 소중하다. 그러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우이웃을 보살피고 보시를 펼치는 일은 함께 사는, 따뜻한 정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이뿐 아니라 보시받음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며 나도 남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보시가 또 하나의 보시행으로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이들 어려운 이들의 자비행이 더욱 돋보이고 있다. 〈이경숙 기자〉



◇고려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연동사지 석조 지장보살상과 땅에 묻혀있던 3층석탑의 옥개석.

폐사지에 노천법당 선다

전남 담양 연동사지… 2천좌 지장보살 안치

수백년간 방치됐던 폐사지에 대형 노천법당이 조성된다.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산 8부능선에 위치한 연동사지(煉洞寺址)가 2천좌의 지장보살상을 안치하는 대형 노천법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연동사지의 복원은 담양읍내에 위치한 용화사의 원행스님이 결성한 청년회와 담양군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연동사지에는 무너진 3층 석탑과 석조지장보살입상(전남도문화재자료 제188호) 그리고 수성암 암벽에 형성된 감실, 옛 건물 벽면으로 보이는 흑벽담의 벽화흔적들이 남아있다.

금성산성 남쪽 약 5백미터 지점의 협곡(이천골)에 방치돼 있는 연동사지에서는 최근 석조지장보살상에 대한 발굴이 실시돼 땅에 묻힌 보살상 전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인근의 3층석탑 3층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옥개석도 출토됐다. 지장보살상의 높이는 2백67㎝이며 조성연대는 고려하대의 것으로 추정(성춘경박사 조사결과)되고 있다.

연동사의 창건 연대등 사력에 대한 자료는 상세히 전하지 않고 있지만 〈동국여지지〉 등 사료에 연동사가 언급되고 있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에 "고려 문종대의 학자 이영한이 어린시절 연동사에서 공부했다"는 기록이 있어 이 절이 고려초기의 사찰일 가능성도 높다.

특히 연동사지가 위치한 이천골은 정유재란때 이 지역 민간인 2천명이 왜군에 학살된 곳. 때문에 연동사지 복원은 2천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지장보살 2천좌를 안치하는 법당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법당조성은 사지정비가 끝나는 내년초부터 본격화된다.

최근 주변에 흩어진 3층석탑의 탑신들을 파악한 원행스님은 오는 11월23일 3층석탑 복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담양=임연태 기자〉



◇허흥식교수



◇현각 스님



◇성본 스님

조계종 기원·신라禪 조명

보조사상硏, 21·22일 학술회의

허흥식교수 나옹법통설 강조…14산문 주장
현 각 스님 무설토론 앙산유래설 '의문' 제기
성 본 스님 구산선문은 한국禪 초기단계

한국 선불교의 연원과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같은 의문에서 구산선문과 낭혜무염(郎慧無染:800~888)의 무설토론(無舌土論)을 중심으로 한국선의 원류를 조명하는 학술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이 10월21~22일 송광사 사자루에서 '한국선의 원류-나말려초 구산선문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여는 이 학술회의는 구산선문의 성립과 성격, 낭혜무염의 무설토론을 중심으로 조계종의 기원과 전개, 신라선의 사상적 특징을 조명한다.

특히 이날 허흥식(정신문화연구원)교수는 '조계종의 기원과 전개'를 통해 그간 주장해 온 '나옹(懶翁)법통설'을 다시 강조하면서 통설(9산문)과는 달리 14산문을 주장한다. 허교수는 "고려초기까지 14산문이 골격을 이루고, 중기에 천태종을 기반으로 흡수된 5산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9산문은 11세기말까지 존속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구산선문의 성립과 그 성격'을 발표하는 김영태(동국대)교수는 구산선문의 연원과 사상적 특징을 역사적으로 조명한다. 김교수는 구산선문의 성격을 "고려초에 확립된 조계혜능을 조사로 하는 해동의 선종" 또는 "남종선(南宗禪)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의 초기 禪세계"로 규정한다.

구산선문은 신라 41대 헌덕왕 13년(821) 무렵에 귀국한 도의(道義)로부터 비롯되어, 고려대에 수미산문(須彌山門)과 희양산파(曦陽山派)가 이루어짐으로써 완성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요지.

이어 성본스님(동국대교수)은 '신라선의 사상적 특성'에서 "신라선종의 독창적인 특성은 화엄불교의 토대 위에 조사선을 수용한 것"이라면서, 신라선의 특성을 무염의 무설토(無舌土:깨달음의 세계는 언어문자로 표현할 수 없다는 言語道斷의 세계)론을 중심으로 조명한다.

'낭혜무염의 무설토론'을 발표하는 현각스님(동국대교수)은 무설토론이 중국의 앙산(仰山:813~891)에게서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앙산의 나이보다 무염이 13세가 앞서며 두 스님간에 서로 만난 기록이 없다는 것. 또 설사 만났다 해도 앙산이 31세 이전에 무염을 만난 것이 되므로 앙산의 사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재〉

대구경북 BBS 설립 범종단 추진위 구성

대구·경북 불교방송 설립추진의는 지난 6일 동화사등 5개 본사 주지스님들과 태고종 혜공스님, 진각종 진산대정사가 참석한 가운데 3차회의를 개최하고 '범종단 설립추진위'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선과 관련 본·말사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 지역불자들의 불교방송 설립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11월말까지 각본사차원에서 설립자본금 일정액을 납부키로 했다.

자원봉사단 모집

btn부산·경남후원회

불교텔레비전 부산·경남후원회는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할 자원봉사단원을 모집한다. 부산·경남지사 자원봉사단은 간병 장애자 수발등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051)645~5114

불방특위 해체요구

재불련등 재가단체

재가연합 전불련등 재가 6개 단체는 지난 9일 '불교방송의 정상화와 개혁을 바라는 우리의 견해'를 통해 "불방특위를 조속히 해체, 새로운 사장을 중심으로 불교방송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의견을 모아 불교방송을 정상화 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불교방송의 경영권독립이 필요하다"며 "조계종은 방송의 경영과 운영의 원칙을 차지하기보다는 경영요직에 대한 감독과 견제를 통한 영향력행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진흥원은 도덕적으로 의심되는 정치인인 정동호씨를 사장으로 추천함으로써 올바른 권한행사에서 일탈했다"며 "재가불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가단체대표에게도 이사지분을 배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6개 단체는 재불련, 전불련, 대불청, 대불련, 대불련 총동문회, 여불련 등이다.

진기 49년 추기 스승강공회

총인원서 18·19일

진각종(통리원장 락혜)은 오는 18일~19일 양일간에 걸쳐 총인원에서 '진기 49년도 추기 스승강공회'를 봉행한다.

'맑고 밝은 마음으로 밀엄정토 구현하자'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이번 추기 강공회는 종단 산하 전 스승 및 종립학교 정교등이 참석하며 인강대종사의 강연도 개최될 예정.

한편 종의회는 오는 20일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300회 정기 종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종의회는 △진기50년 각부예산안 심의의 건 △스승복지회 발족의 건 △유치원 설립의 건등이 상정된다.

경인지역 체육대회

삼룡사청년회, 22일

천태종 서울 삼룡사 청년회(회장 황기수)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창립 18주년 및 제3회 경인지역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경인지역 청년회의 화합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체육대회는 약 30여개의 청년회가 참석할 예정이며 줄다리기, 축구, 배구등의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남대충대종사 열반재

천태종 26일 구인사서

천태종(총무원장 전운덕)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종단 간부스님을 비롯 전국 각지역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본산 구인사에서 남대충대종사 제2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한다.

3존불 봉안 점안식

탑골공원 원각사

종로3가 탑골공원 원각사(주지 보리)는 3존불(석가모니불·지장보살·관음보살) 봉안 점안식과 범종타종식을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봉행한다.

표류하는 중앙승가대

목탁소리

도 필 선 〈취재2부 기자〉

중앙승가대학이 표류하고 있다.

소쩍새마을 인수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교직자의 비리로 인해 빚어진 학교 내부의 문제가 종단적 사안으로 비화, 중앙승가대 학사이전까지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가시화돼 버린 학교문제에 대해 종단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종회와 총무원 교육원 재단 학교 등 합동으로 '중앙승가대학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학교 이사회는 지난 7일 대책위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승가학원 정관에 중앙승가대학 이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갈길 바쁜 중앙승가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교수 교직원 학생 동문 등 학교 구성원들은 자율적 해결을 원칙으로 외부세력의 개입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또 중앙승가대 일각에서는 종단의 학장사퇴 종용과 학교이전 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학사이전을 전면 백지화하려는 의도와 학교를 종단의 통제하에 두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학교의 어려운 처지에 현명하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했던 학생회가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한데 모으지 못하고 분열의 양상조차 보이고 있어 학교는 더욱 슬령이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발전과 학사이전이라는 근본취지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현안 해결의 방향설정에 있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학교발전위원회 운영협의회 교수협의회 재학생등 학내 각 주체의 분분한 움직임은 학사이전을 더더욱 '험겨운 불사'로 만들고 있다.

할일도 많고 갈길도 먼 중앙승가대학은 언제 안전한 포구에 정박할 것인가. 소쩍새마을 사태와 학교내부 분열로 인해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통일된 기구의 설치와 교육불사 차원에서의 의견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다.

하루빨리 승가교육의 전당이 안정되어야 한국불교의 미래도 희망적일 수 있다는 상식적인 바람을 관계자들은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마지막호도기회

60년만에 찾아온 을해(乙亥), 복 돼지해 윤달

최고의 윤달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25일부터 윤(閏)8월

오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음력으로 윤(閏) 8월이다.
장의용품 업체에는 수의(壽衣)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반면 예식장 및 이삿짐업계는 예약이 끊겨 울상이다.
올해는 60년만에 찾아 온 을해(乙亥)년 "복 돼지"해.
하늘과 땅, 남녀 등 모든 음양이 "합일(合一)을 이뤄 올해 낳는
신생아들은 최고의 사주팔자를 지니며, 윤달에 결혼이나
이사를 하면 해롭고, 수의를 마련하면 재앙이 들지 않는다는 속설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세시풍습중 윤달이 든 해에는 집안의 연로하신 어른께
효심을 전하기 위해 수의를 지어 올리는 미풍양속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무병장수하신다하여
수의를 미리 준비하여 갑작스런 장례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세상은 변했어도 노부모님에 작은 소망은
누구나 한결같이 간절합니다. 〈서울신문 95.9.18 보도내용〉



수의 가격 조견표

품 명	시중가	행사가	비 고
품4호(마)	640,000	350,000	일반품
품3호(천연마)	1,360,000	680,000	천연마 100%
품2호(보성포)	1,960,000	980,000	대마 수제, 순창 강포
품1호(특손삼베)	4,500,000	2,200,000	특산단지 지정품 특대마 100%

※댁으로방문하여 증류별 비교하여 드립니다.



캐디락 리무진 장의차

*전 회원에게 리무진 이용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 고급제품은 겹 삼베로 제작됩니다.
※ 남자 19가지, 여자 18가지 갖은 수의입니다.
※ 본(주)원품 수의는 특허청 의장등록 제159132호로 등록되었으며 능어촌 특산단지에서 생산된 고급제품으로 품질이 보증됨.

장례 토탈 서비스 안내

갑자기 상을 당해 당황하는 상주님들을 위하여
임종에서 장지까지 전과정을 신속하게
무료 서비스합니다.

** 서비스 안내 **
■ 국내최초 장례무료 상담전화 개설운영 24시간
■ 장례행사 대행(전국체인연결) ■ 표지상담알선
■ 파출부, 도시락(음식) 알선
■ 현재 평생회원제도 운영中(91년시행)

※이조목제기·병풍을 전시(윤달기간 할인판매)※



고급 오동박스

※전 제품을 장기보전용 오동박스로 포장하여 드립니다.

찾아오시는길





※ (주)원품은 손삼베 전문업체 입니다.

※수의판매 이익금 일부로 무의탁노인, 청소미화원, 뼁소니차 사망시 수의를 무료로 드립니다.

신용카드 구입시 18개월 장기분할
※일반할부가능

전국취급점모집
공휴일 및 주·야 24시간 전화상담받습니다.

본사영업부 (02)566-7676 종로:3673-5226

■광역시
부 산
대 구
인 천:462-3562
광 주:361-1349
대 전:627-9575

■경기도
수 원:216-6336
고 양:913-2181
원 당:915-4097
구 리:557-2166
성 남:721-5782
부 천:323-6484
분당·이천:(0342)756-8841
일산·파주:(0344)977-0031
김포·강화:(0341) 82-2818
안 양: 61-0336
안 산: 80-6690
의정부:876-8872
평 택:655-0966

■강원도
춘 천
강 릉
속 초
원 주

■충청도
천 안:582-3612
온 양:545-1533
청 주
홍 성
대 전
서 산

■전라도
전 주: 85-5130
군 산:452-0386
이 리:832-1944
정읍·김제: (0652)231-7694
목 포
순 천
여 수

■경상도
진 주:43-0880
경 주
구 미
포 항
마 산
거 제
진 해

충 무

■제주도
제 주:58-3023

(주)원 품
TEL 566-7676
제1공장:광주(주)반 석
제2공장:(특산단지)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고속철 경주통과 백지화

백만인 서명 돌입

재가회의등 신행단체 18일 결단식…불교유적 훼손 '최대 법난'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불교계 신행단체들이 '경주노선 백지화운동'을 선언하고 1백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한국불교 재가회의(상임의장 서돈각)등 18개 불교신행단체는 지난 11일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준비위원으로 고은(재가회의 공동의장) 안동일(재가연합 공동회장) 한상범 교수(교수불자연합회장)를 선임했다.

추진위는 이날 대통령, 문체부장관, 건교부장관, 4개 정당 대표, 국회의장 앞으로 보낸 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고속철도 경주통과 결정은 △28개 유적지등 민족문화가 파괴되는 민족정신 상실의 정책 △세계 10대 유적도시의 보호를 외면한 국가적 수치 △1천년 불교유적 훼손하는 최대의 법난을 초래하는 정책이다"며 "경주노선 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각 종단과 소속사찰, 신행단체가 앞장서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진위는 오는 18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결단식'을 갖고 1백만 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 추진위는 결단식에 앞서 각종단과 사찰, 신행단체의 동참을 받고 있다. (02)277-2676

전국체전 관계자에 불국사, 간식등 제공

지난 8일 막을 내린 전국체전에서 불국사(주지 설조)가 종교단체로는 처음으로 전국체전 준비요원들에게 떡과 과일등 간식을 제공해 화제가 되고 있다.

불국사와 70여개 말사는 체전준비기간인 지난 8월20일부터 준비요원 및 관계자 2천여명에게 매일 떡과 과일을 제공했으며 체전기간에는 포항종합경기장에서 찻집을 열어 매일 3~4천여명의 시민들에게 전통차를 제공했다.

불교자원봉사센터 교계 첫 한봉협 가입

조계종 '불교자원봉사센터'(단장 시현스님)는 지난 6일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가입했다.

영산대재 전국 곳곳서 봉행

부산아시안 성공 기원·팔관대재 등 잇따라

가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연등재를 비롯 영산수륙대재등 각종 행사가 한창이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회장 정관스님)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을숙도에서 낙동강 연등대법회를 봉행한다.

금년으로 5회째를 맞는 낙동강 연등대법회는 수륙대재,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 기원 대법회, 불자연예인 공연, 유등 및 불꽃놀이 등이 펼쳐진다. 이어 식후행사로 유등행사가 봉행될 예정이다.

태고종(총무원장 서봉스님)도 오는 20일 봉원사에서 제2회 팔관대재를 봉행한다.

이번 팔관대재는 광복 50주년 기념법회와 생전예수재, 10만관등법회로 나뉘어 치뤄진다.

팔관대재를 준비하고 있는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종도들의 자긍심 함양과 종단위상정립을 위해 준비해왔다"며 "인간문화재 50호인 영산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전통불교의식을 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지난달 29일 안동 임하댐에서 수륙영산대법회를 개최했다. 또한 담양불교사암연합회(회장 수진)도 지난 3일 담양 추성경기장에서 18개 사찰 1천5백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륙대법회를 성황리에 봉행했다.

"현안문제 조속해결"

월하종정 원장에 당부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10일 오전 통도사 정변전으로 종정 월하스님을 예방하고 종단 현안 전반에 대한 종무보고를 했다.

월주스님은 월하 종정에게 △종토세·토초세 감면 △사찰관람료 자율화 △불교박물관 건립의 정부지원 △불교관계법 개정 등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대행스님 부산법회 1만명 '성황'

중앙승가대 발전기금 4천8백여만원 모금

중앙승가대학 발전기원 대행스님 부산법회가 지난 8일 KBS홀에서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 대행스님은 "일체를 주인공에 맡기고 그대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참구하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접수된 4천8백여만원의 보시금은 전액 중앙승가대학 발전기금으로 전달된다.

정관개정 재요구

조계종 법인대책위

조계종 산하 법인대책특위(위원장 정우스님)는 지난 7일 총무원 청사 4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선학원측에 조계종 종지봉대를 정관에 삽입할 것 등을 재요구키로 했다. 또한 정우 청화 혜창 현응 성문스님으로 소위를 구성, 선학원 이사들과 다시 접촉키로 했다.

대책특위는 또한 집행부에 법인을 관리하는 법인관리법안 성안을 다시 요구, 차기종회서 통과시킬 것을 결의했다.



◇중앙승가대학 발전기원을 위한 대행스님 초청법회가 지난 8일 부산 KBS홀에서 1만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부산=박병근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발기대회

내달 11일 조계사…준비위 출범

조계종 중앙신도회 발기인대회가 11월11일 조계사에서 개최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결성준비 실무위원회는 지난 8일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제1차 집행위원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범어사 신흥사 직지사 등 교구본사 신도회와 신행단체 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신도회 발기인대회와 함께 준비위원회를 결성키로 했다.

중앙신도회 준비위원회는 72~108인으로 하고 교구신도회 직능신행단체 개별인사의 비율을 1:1:1로 하기로 했다.

한편 조계종 교구본사 가운데 신흥사 월정사 법주사 화엄사 직지사가 교구신도회를 구성했으며 총 9백여만명의 신도가 등록했다.

"불교계 통일의지 보여야"

평불협 '남북한 법령 세미나'

평불협(상임부회장 법타스님)은 지난 11일 종단협의회 강당에서 통일문제 관계자와 스님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 염원 불교인 하나로 행사 '남북한 법령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원순 변호사와 최용기교수(창원대)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특별법' '북한의 신헌법과 노동당 강령 및 규약'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최교수는 이 자리에서 "불교계가 통일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불교계의 통일의지에 대한 확고한 위상정립으로 통일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제발표 후에는 토론자로 참석한 연기영(동국대 법학과) 백경남(동국대 정외과) 강광식(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준환(경기대 법학과)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학점은행제 첫 도입

동국대, 차등 납부도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정원이 자율화되는 98년도부터 졸업연한과 학기당 이수학점에 관계없이 필요한 과목에 한해 등록금을 내도록 하는 학점은행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동국대에 따르면 대학졸업자는 물론 중퇴자도 재교육을 원할때 졸업연한과 학기당 총 학점수에 상관없이 필요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뇌사자 장기기증 합법화

의료·법조·종교계 협의 추진…'뇌사판정 신중 기해야' 여론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뇌사를 인정하고 뇌사자의 장기 이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혀 생명공양실천본부등 종교계가 앞장서 벌이고 있는 장기기증운동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장기이식과 관련된 정보를 총괄 관리하고 공여된 장기의 분배 등을 전담하는 '장기이식 정보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진에 앞서 사전에 의료·법조·종교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장사를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뇌사도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판정이라는 찬반 양론으로 논란이 가중돼 왔다.

의학계는 뇌사상태에서 대부분 4~5일 이내 심장기능이 멈추고 아무리 길어도 14일 이내에 반드시 죽게된다고 볼 때, 뇌사자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 이식해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유익하다는 의견이다.

법조계나 종교계 일부에서는 뇌사 인정을 명문화하면 사망시기에 따른 민법상의 분쟁들과 인명경시 등의 우려를 들어 법제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펴왔다. 그러나 장기이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장기기증과 관리 수술대상 선정등을 공정하고 원할하게 총괄하는 관리법안을 정비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교육포교 토론회 개최

27일, 어린이지도자련

대한불교 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철오스님)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어린이 교육포교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황옥자(동국대 교수) 한정섭(한국불교교화원 이사장) 박정자(전 청룡국교 교장)씨 등이 '현사회 아동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어린이 교화의 불교경전상의 근거' '어린이 포교의 문제점 및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무료양로원 '소향원' 기공

광주 관음불교회관…50여명 수용

광주 관음불교회관(관장 정옥현)은 지난 7일 무의탁 노인들의 보금자리가 될 무료양로원 소향원(전남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495의 1) 기공식을 가졌다.

소향원은 관음불교회관과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김두원)가 주축이 돼 4년여의 준비끝에 건립하게 됐다. 소향원은 대지 4천평, 건평 2백17평의 규모에 목욕탕 오락실 세탁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무의탁 노인 50여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소향원은 앞으로 병원 및 요양시설 여가시설 등 2천평 구모의 노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비롯, 각종 노인편의시설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소외계층 원호사업 전개

대불청 서울지구…22일 기금마련 행사

대불청 서울지구(회장 김규범)가 '소외계층 원호사업'을 전개한다.

서울지구는 지난 9일 제8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서울지구, 사자암, 법련사, 금강정사, 무애원의 '주간부서장 5인으로 구성된 원호사업집행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소외계층 원호사업은 오는 22일 동국대학교에서 개최될 불청대회에서의 기금마련 불청먹거리 잔치를 시작으로 마련된다. 또 생명공양 실천본부와 함께 장기기증 활동의 의지를 함양하는 홍보대회도 개최한다.

뿐만아니라 보육원·재활원 봉사활동과 소외계층 원호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다지는 강연회도 11월 중에 펼칠 계획이다.

법문대회 개최

29일 한국불교교화원

한국불교교화원(이사장 한정섭)은 오는 29일 동국대 동국관에서 불교강연법문대회 및 중앙포교사·법사 품수식을 개최한다.

포교사와 법사양성을 위해 마련된 법문대회는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내용으로 입상자는 강연법사로 추천된다.

한편 불교문화원은 이날 승과학과를 졸업한 스님과 불교통신대학 졸업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각각 포교사·법사 품수식을 거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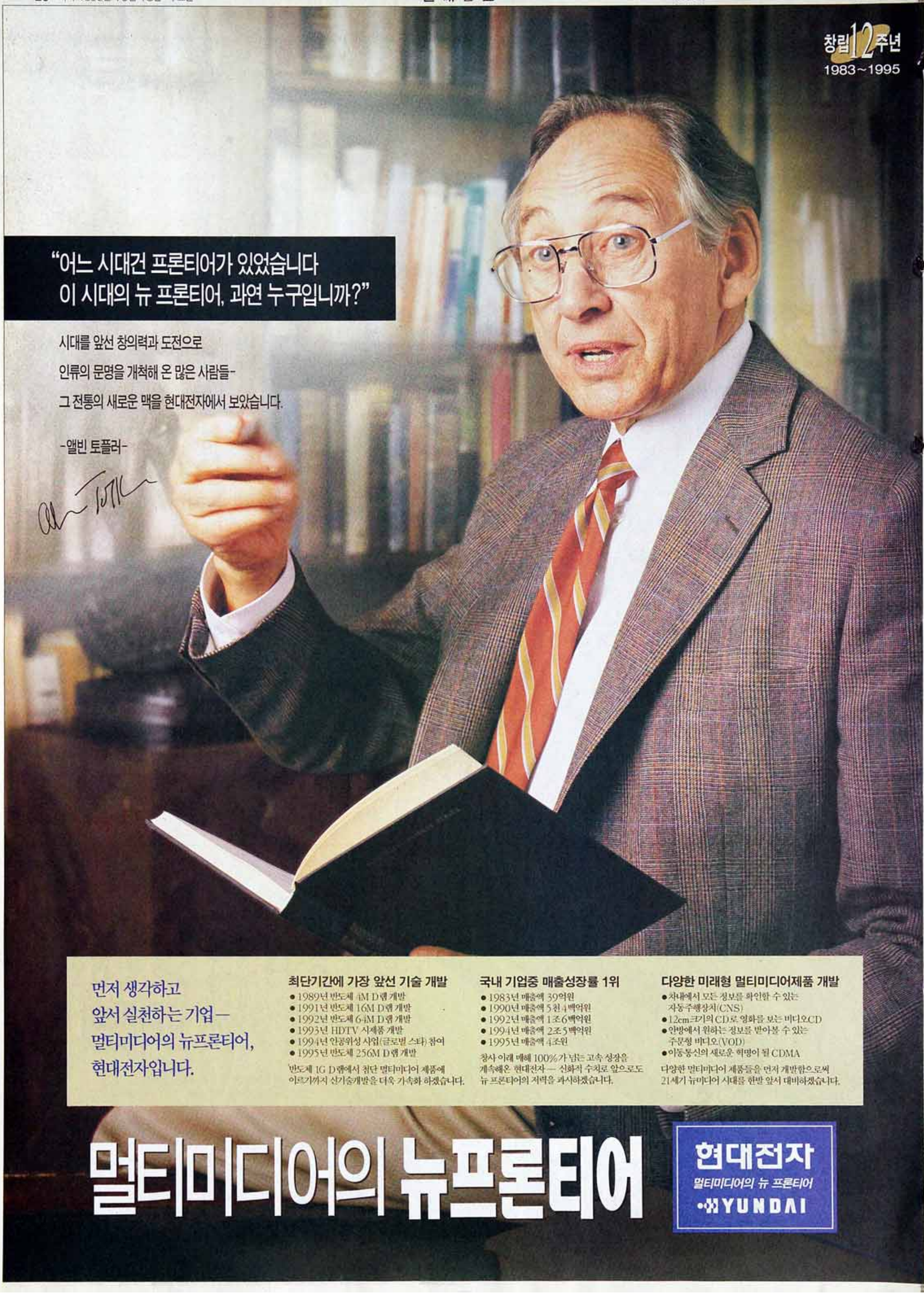
사원 헌다작법 발표

삼광사, 다회별 차겨루기도

한국 사원차 발표회 및 차겨루기가 지난 7일 천태종 삼광사(주지 춘광) 지관전에서 태정차회 등 16개팀이 참석하여 다선일미(茶禪一味)의 풍류를 연출했다.

이날 행사에서 1부 한국사원 헌다작법 발표, 2부 일본말차 다례시연, 다회별 차겨루기,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차겨루기에서 신용석(태정차회)씨가 장원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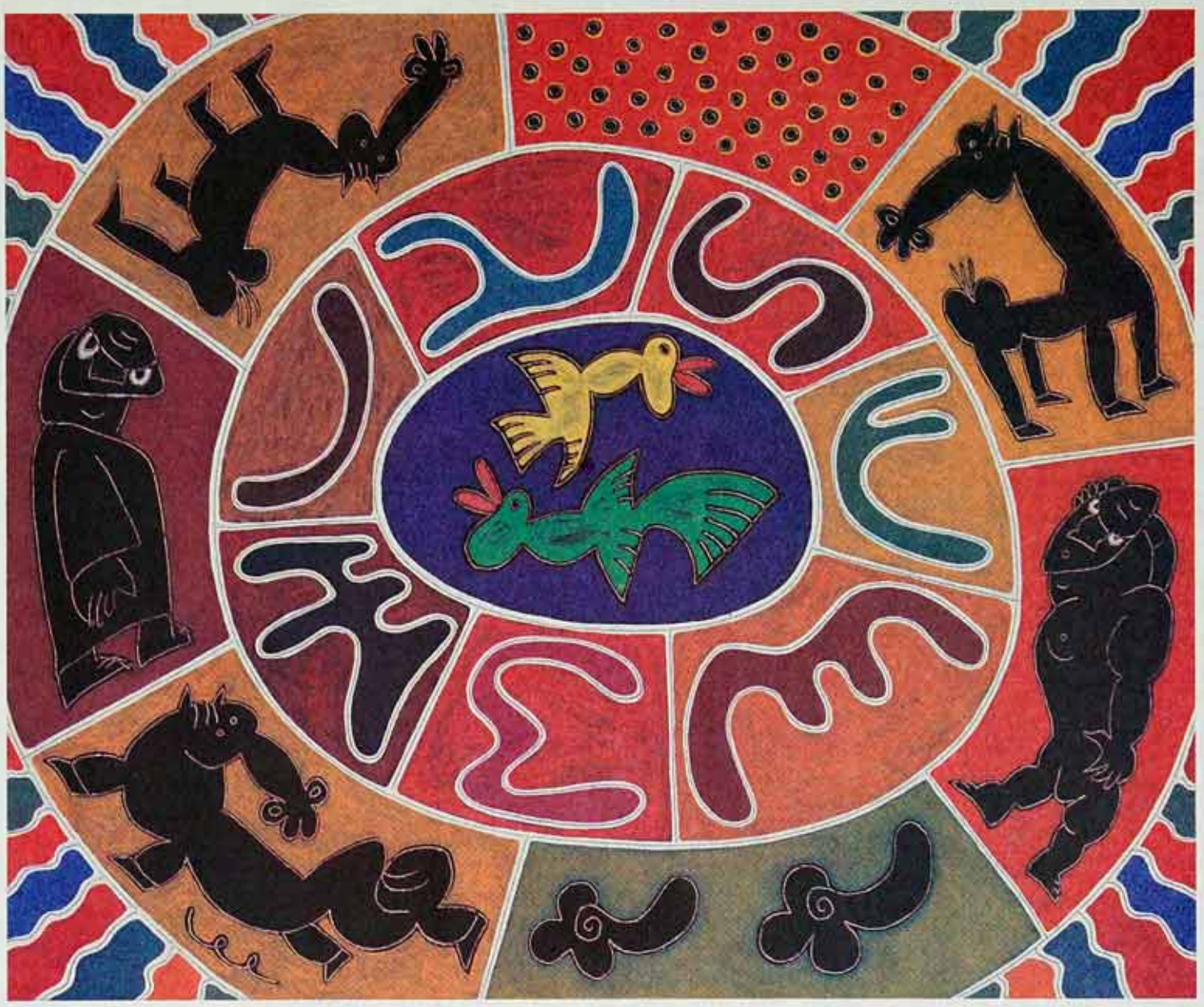

창립 12 주년
1983~1995
"어느 시대건 프론티어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뉴 프론티어, 과연 누구입니까?"
시대를 앞선 창의력과 도전으로
인류의 문명을 개척해 온 많은 사람들-
그 전통의 새로운 맥을 현대전자에서 보았습니다.
-앨빈 토플러-
먼저 생각하고
앞서 실천하는 기업—
멀티미디어의 뉴프론티어,
현대전자입니다.
최단기간에 가장 앞선 기술 개발
● 1989년 반도체 4M D램 개발
● 1991년 반도체 16M D램 개발
● 1992년 반도체 64M D램 개발
● 1993년 HDTV 시제품 개발
● 1994년 인공위성 사업(글로벌 스타) 참여
● 1995년 반도체 256M D램 개발
반도체 1G D램에서 첨단 멀티미디어 제품에
이르기까지 신기술개발을 더욱 가속화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중 매출성장률 1위
● 1983년 매출액 39억원
● 1990년 매출액 5천4백억원
● 1992년 매출액 1조6백억원
● 1994년 매출액 2조5백억원
● 1995년 매출액 4조원
창사 이래 매해 100%가 넘는 고속 성장을
계속해온 현대전자 — 신화적 수치로 앞으로도
뉴 프론티어의 저력을 과시하겠습니다.
다양한 미래형 멀티미디어제품 개발
● 차내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주행장치(CNS)
● 12cm크기의 CD로 영화를 보는 비디오CD
● 안방에서 원하는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주문형 비디오(VOD)
● 이동통신의 새로운 혁명이 될 CDMA
다양한 멀티미디어 제품들을 먼저 개발함으로써
21세기 뉴미디어 시대를 한발 앞서 대비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의 뉴프론티어
현대전자
멀티미디어의 뉴 프론티어
HYUNDAI

창간 1년

10월 15일

특집 Ⅱ

㉒ 축하메시지 · 휘호
㉓ 독자설문조사
㉔㉕ 불교 인터넷
㉗ 도천스님의 하루



만다라 — 기쁜 소식



이석조씨는 대구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그림과 조각을 공부했다. 80년 대구형제화랑 개관전에서 그림·조각·시·사진을 동시에 발표하며 화단에 나와 개인전과 초대전, 단체전등 왕성한 활약을 통해 만다라의 현대적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삶속의 법 일심의 법 설파하기 1년 어느새 곡식과 열매 거두니…



가을햇빛 가득한 현대불교

— 고 은 〈시인 · 본지논설고문〉

2천5백년전의 야무나강 긴다강 소나강들의 여러 갈래들이 합류해서 하나의 강가강을 이루고 있는 파트나에서 생각하건대

내가 생각한다 해도 내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은 있으나 생각하는 나는 없단 말인가. 나라는 모양, 나라는 이름은 무엇인가.

나라는 것이 이럴 바에 부처의 법이란 무엇이겠는가. 이미 부처도 부처의 법도 아니거늘 그것을 일러 부처의 법이라 하고 있으니 옳거니 거미가 거미줄을 지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있으리라.

강가강 기슭의 파트나.

지난 날의 마가다국 수도 파탈리푸트라. 그 뒤 마우리아왕조 아쇼카왕의 수도도 역시 파탈리푸트라, 지금의 파트나.

나는 여기에 와서 2천5백년전의 세존께서 그이의 마지막 여행으로 지친 하루를 보내신 바를 떠올렸다.

그이는 언제나 예배를 받으셨다. 황제로부터도 천민으로부터도 그러셨다.

그런데 이곳 파트나에 이르러 저자에 향하여 그이가 예배하셨다. 그이는 말씀하셨다.

"이 성은 장차 세상에 크게 알려지리라. 많은 현자들이 이곳에서 태어나리라.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리라."

아주 천연스럽게 세존께서는 80세의 노인으로 돌아가 그 도시의 운명을 확인하셨다.

과연 그곳에서의 아쇼카가 인도대륙을 하나로 만들어 부처의 법을 펼쳐왔다. 그의 아들을 실론에까지 보냈다.

어디 그 뿐인가. 이곳이야말로 많은 불교의 선지식들을 낳았던 것이다.

나는 한밤중의 거리에서 소가 네 다리를 굽히고 앉아 잠을 청하는 이 파트나에서 멀리 두고 온 조국 한반도의 불교를 떠올렸다.

지극히 힘찬 진리의 문화였다. 그러다가 지극히 아름다운 꿈의 문화였다. 고구려의 벽화를 보라. 백제의 미륵반가사유상을 보아라. 방금 물에서 건져올린 아침 태양의 빛살을 멀리 받아들인 토함산 대불의 그 오묘한 어깨에 서린 자비의 빛깔을 보아라.

그것을 이어 고려 청자의 비취빛 푸르름에 온몸이 떨려 그 떨림으로 저건너 종각의 종소리를 울려라. 28수(宿) 33천(天)이 하나로 아울러 그 종소리로 깨어나거라.

어찌 그 뿐이리요. 한 자 한 자 새겨 8만4천법문의 경판을 이마 위에 들어올리니 그것이야말로 고려의 깊은 불심(佛心) 아니고 무엇이랴.

그리하여 근세 산중의 선승들이 뼈를 갈아 공부하는 중에 외적이 국토와 인민을 짓밟을 때 과감히 일어나서 맞서 물리쳤으니 어찌 서산 사명 영규가 그들뿐이랴.

여기 한국불교 1천6백년을 받아들이는 동안 언제나 옛 법은 새로운 법으로 만나야 하였으니 과거의 법도 현대의 불교 아니고 무엇이더냐.

어느덧 고대 인도의 한 수도는 여기 서울 견지동에 이르러 부처의 새로운 법, 삶 속의 법, 일심의 법을 설파하기 어언 1년.

문득 봄 꿈을 깨니 어느새 곡식과 열매 거두는 가을 햇빛 가득한 강산으로 찬탄하고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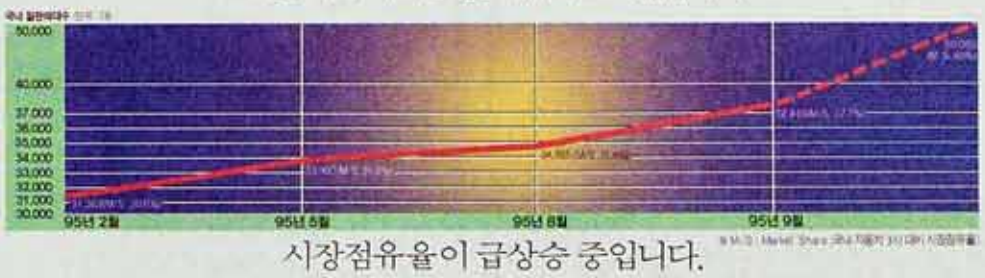
인기상승! 기아가 달린다



고객이 원하는 차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종마다 빅히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이 급상승 중입니다.

지금, 기아를 주목해 주십시오.
기아가 점점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차종별 특성이 살아있는 전정한 풀라인업 구축,
소비자 중심의 신차개발과 잇따른 빅히트,
세계랠리와 세계시장에서 입증된 탁월한 품질,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하나로 뭉친 勞와 使…
그결과,
기아차를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시장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新기술의 힘으로, 고객 여러분의 사랑으로
지금 기아의 성장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아를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KIA 기아자동차

창간1주년 특집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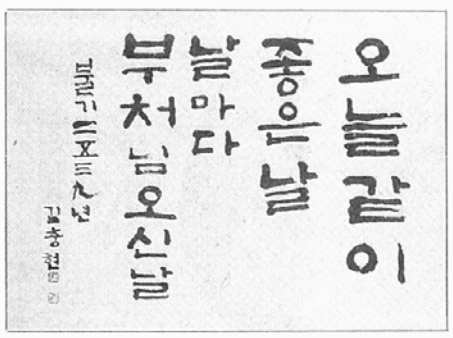
축하 휘호·메시지

불타의 횃불로 시방세계 밝히길…

청정하고 복된 일을 함께 기뻐합니다



◇원담스님 (수덕사 방장)



◇일중 김충현 (서예가)

WFB 회장 산야 다르마사크티씨

세계평화 번영 이끄는 안내자



불기 2538년 10월 15일에 맞이하는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에서 신뢰받는 현대불교신문은 사부대중을 포교하며 세계평화와 번영을 이끌기 위한 안내자로서 성실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현대불교신문과 사장님을 비롯해 직원일동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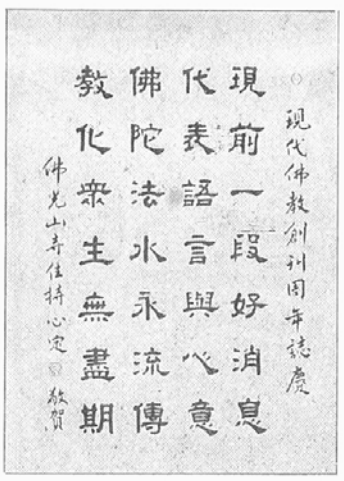
Sanya Dharmasakti

대만 불광사 주지 심정스님

부처님 가르침 영원토록 전파



일단의 좋은 소식 들리니
말과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치심 영원토록 전하여
중생을 교화함에 다함없길 기대합니다.



외몽골 간단사 주지 최잠츠스님





법음을 온누리에

전 몽골 불교도와 몽골불교의 중심인 간단寺를 대표해 축하드립니다.

현대의 불교창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귀 신문의 청정하고 복된 일을 함께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커지는 부처님의 횃불이길 기원합니다.

(간단사의 주지는 한국의 총무원장과 지위나 역할이 같고, 현재 한국의 종정격인 잡춘담바가 궐위이므로 몽골의 불교계를 대표한다.)

日 불교타임즈사장 矢部一雄씨

충실한 지면내용 매호마다 감탄



현대불교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이래 계속 현대불교의 신문을 받아보고 있지만 매호마다 질적으로 충실한 지면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부터 주간발생을 하고 있어 현대사회와 종교의 관계로 지면을 채우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옴진리교 사건으로 국내는 종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종교의 역할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아 세계로 열린 불교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사 고

현대불교 창간 1돌기념

『전국 전통사찰 안내도』 제작 배포

1차로 구독자에 증정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1주년을 맞이하여 국내 852개 전통사찰을 총망라해 한눈에 찾기쉽게 지도로 담아낸 '전국 전통사찰 안내도'를 제작했습니다.

정진의 도량이며 부처의 세계로 중생을 인도하는 사찰은 한국불교를 지켜온 성지이며 그 자체로 전통문화의 산실이자 우리역사의 산 현장입니다.

따라서 본지는 창간 1주년을 기념해 사찰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과 사찰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본질을 되새기고 쉽게 참배할 수 있도록 전국 전통사찰안내도를 만들어, 일차 본지를 구독하며 격려해주신 애독자여러분께 사은의 마음으로 증정 합니다.

문체부등록 852곳 총망라 '인사동 불교문화지도' 포함

◇**수록내용**:올 칼라로 제작된 사찰지도에는 전면에 문체부에 등록된 852개 전국 전통사찰이 지도상으로 표기됐고, 뒷면에는 수록된 사찰 전체를 가나다 순으로 나열 사찰명과 전화번호를 일일이 담아 찾기 쉽도록 색인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조계사와 전통문화의 거리 인사동을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지도도 담았습니다. 불교문화지도에는 불구용품 고미술 서각 표구 등 다양한 신행·문화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크기:4×6 2절 축척:1/80만 축소〉

만해스님 '님의 침묵' 판본전

20일~11월 3일, 여시아문

현대불교신문과 책방 여시아문이 창간·개관 1년을 맞아 만해사상 연구회(회장 전보삼)와 함께 만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판본 총 82종을 전시합니다.

1926년 초판 단행본 시집의 발간이래 현재까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은 꾸준히 발간되고 있으며 영문판도 3종이나 간행됐습니다.

특별강연회도 마련되는 이번 전시회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과 문학 그리고 불꽃같은 민족애를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6년 초판 비롯 총82점…특강도 마련

- 전시일정:10월 20일~11월 3일
- 개막식:10월 20일 오후 2시
- 장 소:책방 여시아문(본사 1층)
- 기타 전시물:만해스님 영정, 만해시비 사진 액자(5점), 〈님의 침묵〉 전문
- 강연회:10월 27일 오후 6시 녹수청산(본사 지하)
  - 1부-〈님의 침묵〉 판본 수집의 의의와 과정 (강사/전보삼·만해사상연구소장)
  - 2부-'님'과 '침묵'의 현대적 해석

현대불교신문사

이 시대의 참다운 불교결집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은 국내 40여 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근본불교의 『결집』 전통을 오늘에 되살려 현대사회의 제문제를 불교적 시각으로 분석, 부처님 본래의 가르침을 생생한 삶의 지침으로 승화시킨 대중불교 『결집』입니다.

■구성:제1장 불교란 무엇인가
1. 불교의 본질 2. 불교의 역사와 발달
3. 오늘의 세계와 불교

제2장 불교와 현대사회
1. 가정 2. 현대사회와 교육
3. 환경과 생명 4. 미래의 불가
5. 노동 6. 일상생활
7. 사회윤리 8. 복지
9. 과학 10. 사회와 국가
11. 문화 12. 정보통신
13. 미래사회 14. 타종교에 대하여

제3장 불자의 신행
1. 무엇을 믿을 것인가? (佛寶)
2. 어떻게 닦을 것인가? (法寶)
3. 불자의 자세 (僧寶)

●사양:4×6배판, 606p, 양장제본 ●발행: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02)719-2606
●정가:20,000원 ●보급:도서출판 대원사 (02)757-6717

축 창간1주년

불기 2540년 丙子年 달력

16나한도 보급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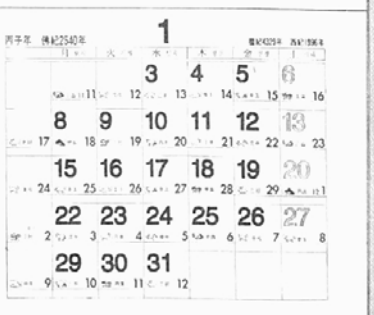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감로출판사에서는 불기 2540년(병자년) 16나한도 불교달력을 기획·제작하여 보급합니다.
전국에 계신 대덕 큰스님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 제작과정이 복잡하므로 미리 서신이나 FAX로 주문바랍니다.

감로기획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전화 : (02) 723-4306~7
팩스 : (02) 738-8682





■크기 26cm×26cm

독자 설문조사

창간1주년 특집 Ⅱ

애독층 30대(32%) 남자(64%) 대졸(61%)

현대불교를 읽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주년을 기념하고 보다 나은 신문제작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에 걸쳐 3백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자 설문조사' 결과 주 독자층은 남자(64%), 연령별로는 30대(32%), 학력은 대졸(6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은 현대불교신문으로부터 신행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본지를 통해 불교계의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교 일간지 필요 46%

현대불교신문이 신행생활의 길잡이로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독자는 56%였으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응답도 38%에 달해 독자들의 신행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4%가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대부분의 불교계 정보를 얻고 있다고 답했으며, 대체적인 정보를 얻고 있다는 응답도 33%에 달했다. 불교방송과 불교TV, 여타 교계신문과의 정보경쟁에서 창간 1주년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로 그 위상을 정립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설문응답자를 특성별로 분류하면 남자(64%)가 여자(36%)보다 두 배가량 많아 '치마불교'의 오명을 씻는데 현대불교신문이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령별로는 30대가 32%, 40대가 24%, 20대 19%, 50대 16%로 독자층이 젊은층이 많았고, 대졸 61%, 대학원졸 16%, 고졸이상(전문대졸 포함) 18%로 고학력시대에 걸맞는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업별 분석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가 7%나 됐으며 교사도 11%로 나타나 개신교나 천주교에 비해 뒤떨어졌던 교육분야와 최고급 두뇌집단의 독자수도 증가일로에 있음을 반영, 불교미래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가장 먼저 보는 기사를 꼽으라는 질문에는 1면(47%)이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상법석(17.6%) 길을 묻는 이에게(14.9%) 교계소식(14%) 목어(9%)등 10여개의 항목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독자들의 지적 욕구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남성독자는 1면 기사(61.4%)를 여성독자는 주부신행담(34.5%)을 가장 먼저 보고 있어 주부신행담에 대한 여성독자들의 높은 인기도를 반영했다.

또한 지상법석의 경우 남(20.5%) 여(19.8%) 모두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었으며, 1면기사는 대졸(54%) 대학원졸(20%) 대재(66.7%) 고졸(40%)로 학력과 관계없이 교계 내외의 중요사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신행담' 여성에 인기

독자들이 가장 즐겨 읽는 고정란으로는 지상법석(11.5%) 길을 묻는 이에게(7.7%) 열린마당(사설포함 6.8%) 나의 수행일기(5.1%)로 각 고정란마다 고른 선호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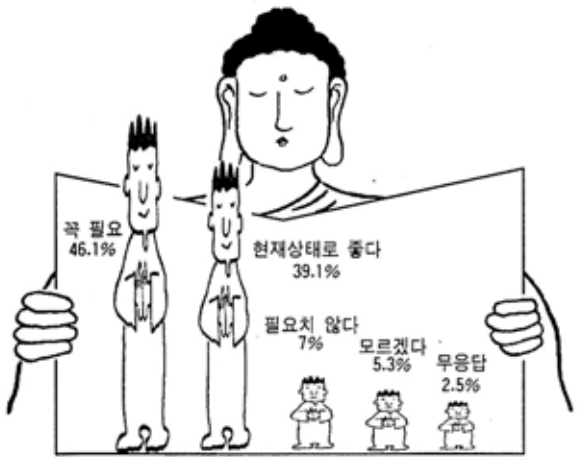
특히 지상법석의 경우 즐겨 읽는 고정란과 가장 먼저 보는 기사를 꼽으라는 두 항목을 종합할 때 단연 앞선 것으로 나타나 승가의 위상이 사회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고승들의 불자들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문을 읽는 소요시간은 30분 미만(37.6%) 1시간(30%) 2시간 이내(21.1%)등으로 평균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분 미만인 구독자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독자층이 주부보다는 직장인을 비롯한 직접적인 경제활동인구가 많고, 주부라 하더라도 쏟아지는 정보홍수 속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신행활동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바쁜 생활속에서도 독자들의 현대불교신문에 대한 욕구는 다양하게 분출됐다.

불교계 일간지 필요한가



우선 확대 취급되기를 바라는 기사를 꼽으라는 질문에 스님법어(25.1%) 신행생활에 관한 기획성 기사(17.4%) 경전해설(16.4%) 교계소식등 보도성 기사(15.1%) 교리·신행상담(14.1%)순으로 답했다. 재가자의 신행담(8.6%)과 정치·경제등 시사성 기사, 행사예고등 안내성 기사 등 8개 항목이 큰 권차없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지면구성과 체제에 관해서 독자들은 주 16면 발행과 한자표기, 사진등 대부분 현행체제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컬러면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0%에 달해 현대감각에 맞는 시각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대불교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에서는 불교종합지(49.6%) 교계 소식지(25.2%)라는 의견이 신행생활지(22.6%)라는 의견을 크게 앞서고 있어 현대불교신문이 창간당시 표방한 신행중심의 이미지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언론의 장래를 묻는 질문에서 "불교 일간지가 꼭 필요하다(46.1%)"는 응답이 현재상태로도 좋다(39.1%라)는 의견을 다소 앞서고 있어, 독자들은 현행 주간지체제에 만족하면서도 일간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불교계에서 일간지는 필요없다"는 의견은 7%에 불과해 일간지의 필요성이 불자들 사이에서 폭넓게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드러냈다.

컬러면 더 늘렸으면

한편 현대불교신문이 벌여온 '불자가정 스티커 보급운동'에 대해 응답자의 65.2%가 알고 있다고 답해 홍보는 적절히 이뤄지고 있었으나, 참여했다는 의견은 25.9%에 그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참여계몽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자가정 스티커 보급운동과 관련 응답자의 83.8%가 매우 잘하는 일이며 환영한다고 답했다.

한명우 기자

"신행생활 도움된다" 94%… '불자가정 스티커' 잘한 일 84%

즐겨보는 고정란 '지상법석' '길을 묻는…' '열린 마당' 順

현대불교가 신행생활에 미치는 영향



내가 본 현대불교 1년 — 남 지 심 〈소설가〉



그만그만한 산봉우리 속에 우뚝하게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준령(峻嶺)은 바라보기만 해도 미덥고 든든하다.

현대불교는 우리 앞에 처음 그렇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로부터 1년. 한 생명이 무진 세파 속에서 1년을 견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그 1년 안에 자신이 감당할 몫을 찾고 그 몫을 해낸다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 현대불교는 그 힘든 것을 해냈기 때문에 창간 1주년을 맞는 오늘, 찬탄과 격려를 받기에 모자람이 없다. 오늘이 있기까지 정갈한 공양물을 장만하듯 하루하루 정성을 다 하여 신문제작을 해온 김광삼 사장님 최정희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의 기자들과 관계자 모두에게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

현대불교는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라는 큰 원칙 아래서 신문을 제작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원칙을 실천한 가장 돋보이는 면이 '산문밖의 禪'이다. 禪하면 일부 스님 혹은 일부 신도만 하는 담장안의 그 무엇인 것 같은 거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선을 생활속에, 삶속에 녹여서 그 진미를 누구나 맛보게 해 주는 기사가 가히 일품이다.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불교의 참모습 생생히 전달

정보사회 불교역할 선도 언론으로 거듭나길

기도라는게 시간을 따로 내서 부처님 앞에 무릎꿇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시찰찰 생활과 삶속으로 이어져 갈 때 기도의 참다운 의미가 살아 난다고 믿고 있는 나로서는 더욱 이 기사가 가슴에 와 닿는다.

그리고 현대에 맞는 오계(五戒)의 재해석, 불자들이 스스로 불자임을 자신있게 드러내 보이게 하는 스티커 보급운동, 문화강좌 개설 등은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는 불교로 가꾸어 가려는 의식화 작업이라고 보여진다.

이런 여러가지 업적을 인정하면서도 독자의 한 사람으로 현대불교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현대불교는 교계에서 주목받는 언론지다. 따라서 신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부처님 정법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안목을 가꾸어 줄 책임감이 있다고 본다. 이런 신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 내기 위해 한달에 1번 정도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그달에 가장 문제가 됐던 일(교계 내·외를 막론하고)을 각계의 전문가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토론케 하여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게 했으면 한다.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기준은 부처님 정법에 입각해서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방법이 축적되어 갈 때 불자 한사람 한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부처님 정법에 맞게 해결해 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이런 노력들이 쌓여 질 때 이 사회는 진리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현대불교 발간 취지속에도 포함돼 있듯이 불교의 세계화 문제다. 몇년내로 음속의 두배빠른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비행기가 만들어지면 아침 일찍 파리에 가서 볼 일을 보고 점심을 뉴욕 레스토랑에서 먹고 중국이나 소련쯤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잠은 한국에 있는 집에서 자게 된다고 한다. 모두가 그처럼 숨가쁘게 살 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세계가 한 생활권이 되는 것 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런 세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의 사고도 거기에 맞게 열려가지 않으면 안된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다.

어느 매체의 광고인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데 우리가 산업화에서는 뒤졌지만 정보화에서는 앞서 가자고 주장한 광고문안을 본 것 같다.

그렇다. 우리 불교는 현대화 과정에선 타 종교에 비해 분명 뒤졌지만 미래사회속에선 인류를 제도해 가는 고등종교로 가장 우뚝하게 설 것이다. 그 앞에 현대불교가 선도적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본다.



불교 성지 순례

중국 불교유적지 13일
—중국 불교유적지와 간다라 불교유적—
· 동참금 : 195만원
· 일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실크로드 불교유적지 11일
· 동참금 : 188만원
· 일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벳 · 네팔 9일
· 동참금 : 210만원
· 일정 : 서울—상해—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방콕—서울

인도 · 네팔 성지 순례 10일
—불교 7대 성지와 네팔의 불교사원 순례—
· 동참금 : 160만원
· 일정 : 서울—델리—바라나시—사르나트(녹야원)—부다가야—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살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사윗성—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 · 스와이엠부넛 등)—서울

황산 · 구화산 6일
—지장보살도량 구화산 순례—
· 동참금 : 95만원
· 일정 : 서울—상해—황산—구화산—상해—서울

백두산 연길 북경 5일
· 동참금 : 100만원
· 일정 :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사원—
·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불광사 · 화련 · 타이페이—
· 동참금 : 65만원

■ 여행조건 ●호텔 : 특급 및 1급,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 ●최소 출발인원 : 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현대불교 전자게시판 15일 개통

현대불교 전자 게시판 … '부처님의 땅' 이란 뜻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실현 첨단매체

부다피아란

부다피아(Buddhapia, 부처님의 땅)는 현대불교신문이 구축, 제공하게 되는 불교정보 전문 전자게시판의 이름이다.
'부처님의 땅'이란 의미의 부다피아는 정보화 사회로의 흐름속에서 불교정보 보고의 기틀을 마련, 시대에 적응하는 전략의 체계를 구축하는 서곡이다. 또 현대불교신문이 지향하는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첨단 매체로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부다피아는 총 20종의 메뉴를 통해 다양한 불교관련 정보를 제공, 주제어 검색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큰스님들의 설법을 생생한 화면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동화상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최대 통신망인 인터넷과의 접속을 통해 한국불교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 해외불교와의 정보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본지 창간 1주년을 맞아 본격 가동될 현대불교 전산정보시스템 '부다피아'는 뉴미디어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모든 독자들에게 열려있다.

부다피아는 시범서비스를 거쳐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가입자를 모집해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방침이다.

불교정보 총망라 '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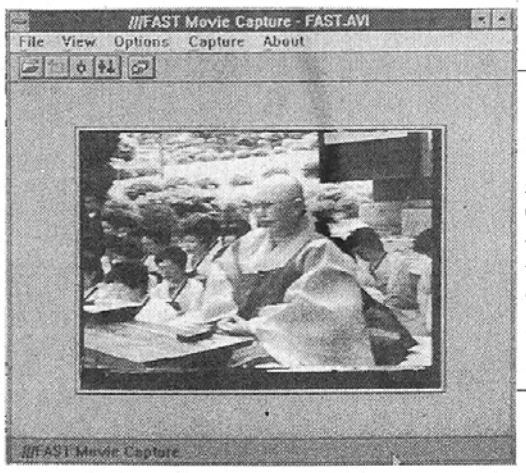
현대불교 영상 소프트웨어 교

멀티미디어 정보제공 5개월 연구 '개가'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중
주제·호수별 검색 …사찰 정보·교계 인물·북한 불교 등 열람 가능

흩어져 있는 불교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대불교신문사(이하 본사)전자게시판 부다피아(Buddhapia, 부처님의 땅)가 현대불교신문 창간 1주년을 맞아 10월15일 개통된다.

교계 최초로 개통되는 부다피아는 본사가 5개월여의 연구 개발끝에 서비스하게 되는 불교정보 전문 전자게시판으로 기존의 문자정보 이외에 음성 영상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본사 전자게시판 부다피아에 접속하게 되면 시간에 관계없이 큰스님 설법을 비롯 불교관련 비디오를 주문형으로 볼 수 있게 되며, 영상 지원을 위해 이미 영상 지원 소프트웨어를 개발 완료했다.



◇부다피아에 접속하면 큰스님 설법, 해외성지순례 등을 주문형 비디오로 볼 수 있다.

삼사장은 "거센 뉴미디어의 흐름속에서 교계도 시대적 적응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부다피아가 질높은 불교정보를 제공, 국내의 명실상부한 불교정보 보고로 자리잡으면 인터넷과의 연계서비스를 통해 한국불교의 세계 지향적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개발의지를 밝혔다.

부다피아 이용안내
모뎀번호 732-1520~4

부다피아는 어떤 통신용 소프트웨어라도 모뎀번호 732-1520~4번으로 손쉽게 접속. 시범서비스 기간에는 누구나 부다피아에서 제공하는 불교관련정보와 지난 1년 동안의 본지 신문기사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가입하게 되면 영상지원 소프트웨어와 통신소프트웨어가 담긴 CD를 받아, 부다피아에서 제공하는 큰스님 설법, 해외성지순례, 불교문화 등에 관한 화상 서비스를 주문형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다피아는 곧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모든 인터넷이용자들에게 불교관련 멀티미디어데이타를 제공하며 부다피아 가입자들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중이다. 이는 불교정보의 세계화를 앞당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부다피아는 모든 텍스트자료의 검색범위를 선택, 주제어 검색을 통해 체계화된 국내외 사찰정보 및 큰스님설법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지난 1년동안의 현대불교신문 기사도 제공한다. 부다피아는 또 전자우편기능을 포함 대화광기능, 자료 전·수송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자간의 상호 정보교환과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부다피아 개통에 앞서 본사대표 김광

부다피아는 교계인물, 사찰정보 등 불교관련 정보와 현대불교신문기사를 제공하는 자료실기능 이외에 가입자가 자유롭게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게시판기능, 회원들과의 친목과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우편기능, 가입자간의 이야기방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각 메뉴는 메뉴번호나 영문인덱스를 치게 되면 해당 정보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다시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어 가입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사찰정보, 교계인물, 생활문화, 북한 불교 등의 자료를 주제어로 검색, 제공받는 이외에 게시판, 여론광장, PC통신대학 등을 통해 가입자가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현대불교신문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방에서는 주제별 호수별로 지난 1년 동안의 신문기사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교계내 취업과 교육정보, 기업광고와 홍보를 포함하는 등 불교계 전반에 걸친 정보를 집결시켜 생활에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부다피아의 모든 불교관련자료와 신문기사는 24시간 계속적으로 새롭게 제공되며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 수정될 계획이다.

남수미 기자





'부다피아' 메뉴 안내

1. 서비스안내	11. 광고·홍보
2. 교계 인물(분야별)	12. 공공정보
3. 교계 생활문화	13. 사용자 정보관리
4. 교계 취업 교육	14. 공지사항
5. 교계 과학 특수문헌	15. 자료실
6. 교계 경영산업	16. PC 통신대학
7. 북한불교(종교)	17. 전자우편
8. 국내 사찰정보	18. 신문방
9. 게시판	19. 현대불교신문사
10. 여론광장	20. 이야기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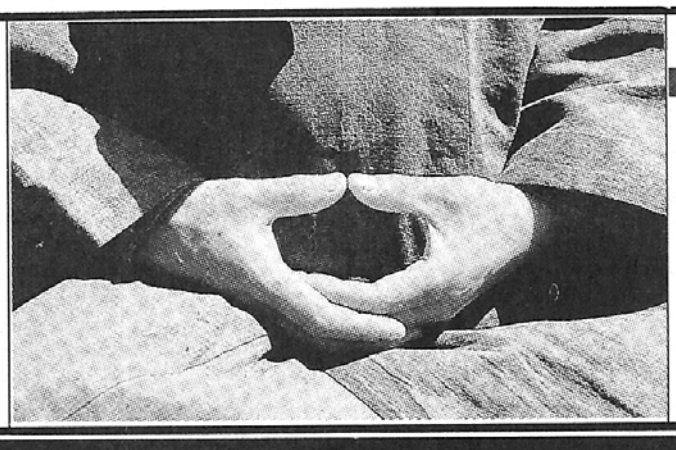
전자신문이란

200년 활자신문역사를 깨
오른 멀티미디어 전자
Newspaper).
지난 93년 20여개에 불과
7월말 현재 300여개로 늘어
97년에는 2000
여개로 늘어날 **활자**
전망이다.
전자신문은 기존의 활자
음성등이 추가된 멀티미디
서비스할 뿐 아니라 대화
서비스한다.
전자신문의 이용자들은
의문점이나 제보사항이 있
라인상에서 투고할 수 있으
슈나 논쟁거리를 주제로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 회원모집 : 수시접수(영구회원 접수중)
■ 수련과정 :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 문의전화 : (02) 735-6795·6796 / FAX (02) 730-9298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성오) 합장



한국신선도협회

지 부

■ 강원지부 : 동천관 전화 0361) 242-0553
관장·허 통 천

■ 일산지부 : 수신체육관 전화 0344) 914-0456
관장·김 일 영

경

국씨전영양소 후원으로 세계 여자 역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다

★일시 : 1995년 11월 ★장소 : 중국(광주)

축

세계인을 위한
다 이 어 트

5일 복용이면 3~5kg이상의 감량 !

건강관리, 체력보강, 체력유지, 비만해소 100% 효과 보장
비만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고혈압·당뇨·변비에도 탁월한 효과
10kg 미만 체중감량은 무조건 10일이면 끝
여러 제품으로 실패한 분들께 필히 권합니다



※약국, 피부관리에서 취급가능함

국씨전영양소란?

중국의 저명하신 다이어트 전문가인 **북경대 국민원 교수**가 주관하고 의학과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이 협조한 가운데 비만자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특수 한방비법으로 제조한 세계 최초의 완전 천연, 영양 농축다이어트 식품. **중국 여자 역도선수들이 체중조절 및 영양식품으로 복용**한 후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았으며 **복용 5일이면 최저 3kg에서 5kg 이상** 체중이 감량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되면서 체질개선, 혈액순환은 물론 **노폐물까지 제거**된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능과 성장발육**을 촉진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한번 감량되면 다시 비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오히려 허약자에게는 영양 많은 식품으로서 건강관리에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높다. 중국, 미국과 합자하여 만든 제품.

信心이 돈독한 佛子로서 악간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확실한 수입이 보장된 국씨전영양소 사업에 동참할 한분을 초빙합니다. Mr. 박



개발자 국민원 교수(박사)약력

1973년~1978년 북경대학에서 식물학 연구
1978년 북경 영양연구소 입소
1978년 中南海(중국 고위 간부 주거지/모택동 등소평 등 역대 중국고위관리) 食品營養 고문 임명. 현 재임중
1985년 감비식품 연구 착수
1992년 8년만에 국씨전영양소 개발완료 현 북경대 교수

세계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제품
한국에도 본격 시판…

정 우 무 역
전화:(02) 929-0211~4

이제 다이어트는
국씨전영양소가 책임지겠습니다.

현대불교 전자게시판 15일 개통

'아'로 앞서간다

최초 개발…비디오 설법도



삽화 · 박구원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사설BBS 'Tiger Team'의 홈페이지 장면.

인터넷 열면 세계불교정보 "한눈"

온라인 토론 · 전자우편 · 홈쇼핑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 동양학연구소(ANU)는 인터넷을 통해 웹이나 고퍼 에프티피사이트 등 불교사이트목록을 제공한다. http://coombs.anu.edu.au로 들어가 Buddhist Studies WWW Virtu-al Library(불교학 가상도서관)를 보면 현재 문자와 영상을 동시에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66개, 고퍼와 에프티피사이트가 23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국대학교와 해인사 장경연구소의 홈페이지가 올라가 있다.

▲〈Tricycle〉비영리 계간지로 기존 잡지에서는 불가능했던 독자토론 여론조사등 다양한 코너를 온라인으로 미련했다.

http://www.wel.com/user/tricycle

▲〈Lotus Buddhist Art Gallery〉 건축 그림 불상등 불교예술과 불교문화 관련자료들을 다룬다.

http://www.lotusstudio.com/

▲〈Pictures of Famous Buddhist Teachers〉 달라이라마 · 틱낙한 등 해외 유명한 선사들의 사진을 모아뒀다.

http://Carleton U, Canada

▲〈Tiger Team〉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불교자료와 불자들과의 온라인 토론을 제공하는 사설 BBS로 인터넷을 통해 범세계 공동체에 불교정보를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교신자들과 불교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이용자들의 대부분이지만 티벳불교 18% 중국불교 12% 상좌부 16% 등 다양한 방면의 이용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온라인 토론, 포럼등의 학술서비스를 비롯하여 정보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메일을 통해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메일링 리스트, 파일을 전송받을 수 있는 파일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또한 전자잡지 CyberSangha라는 전자잡지도 내고 있고 온라인상의 통신판매도 가능하다.

http://www.newciv.org/TigerTeam

들과 토론을 벌일 수도 있다.

최근에는 자신이 원하는 기사만을 제때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주문형 뉴스서비스는 물론 구매자와 판매자를 통신으로 연결해 주는 구매서비스가 한창이다.

이들 전자신문은 전화선만 가설돼 있으면 인터넷 또는 기존의 통신망을 통해 어느 곳으로든지 제공이 가능해 전세계 '얼굴없는 독자'를 확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과 관련기술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멀티미디어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를 영상 · 음성으로

인터넷 통한 정보교류 확대

교계 개발현황

90년대 들어 불교정보 전산화 작업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세계적 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한 불교정보교류가 점차 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9월 해인사 장경연구소(소장 종림)가 교계 최초로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에 이어 본사에서도 사설BBS '부다피아'를 통한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 서비스를 계획중이다.

〈해인사 장경연구소〉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 해인사 소개를 비롯 금강경 열람, 해외불교사이트 접속을 제공한다.

〈불교방송 불교정보연구실〉 천리안 하이텔을 통해 한국사찰총람을 비롯 불교계인물정보 역사정보 도서정보 등을 제공한다.

〈불교전산원 칠엽굴〉 '아함경'과 '부처님일대기' CD롬을 제작, 마무리 작업중이다.

〈중앙승가대학 전산원〉 '서산대사어록'의 CD롬 작업을 진행중이며 대장경에 포함되지 않은 선사들의 어록을 중심으로 계속 DB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비의 전화〉 '불교114'를 개통 사찰 및 불교단체의 정보를 전담자가 제공해 주고 있으며 관련자료 DB화를 계획하고 있다.

〈월간 반야〉 김충호법사가 지난 1월에 창간한 전자잡지로 PC통신의 불교동호회 회원들에게 제공된다.

'부다피아'에 거는 기대

범종단 자료 통합관리

▨ 오상룡 〈하이텔 불교동호회 시솝〉

바야흐로 통신의 시대를 맞아 통신인구는 날로 늘어가지만 이에 반해 불교관련자료는 너무도 빈약했다. 물론 하이텔 천리안 등의 불교동호회를 비롯 몇몇 곳에서 전산화를 추진, 서비스하고는 있지만 일반사람들이 접속하여 자료를 검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부다피아의 출범을 계기로 범종단적으로 불교관련자료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여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서서히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 작업을 부다피아가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부다피아가 세계최고의 불교관련자료 BBS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국경·언어초월 교류 가능

▨ 이종복 〈장경연구소 인터넷담당〉

불교의 모습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은 항상 새롭게 변하면서도 불교 스스로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보화시대를 준비하는 불교의 모습 역시 지금의 사회에 맞는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

인터넷에는 많은 수의 불교사이트가 있고 이것을 통해 전세계의 불교신자들이 시간과 국경 언어를 초월한 토론을 벌이며 자료를 주고받는다.

CyberSangha라 불리는 BBS를 통해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러워한 적이 있는데 이제 부다피아를 보며 우리나라의 Cyber-Sangha를 꿈꿔본다.

외국 불교소식 교량역할

▨ 여성혁 〈천리안 불교동호회 시솝〉

불교동호회를 꾸려나가는 젊은 청년으로서 부다피아에 거는 기대가 크다. 최근 학생불자들의 수가 날로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경전이나 설법등을 재미있게 풀어서 게시판에 올려주길 바란다.

또 외국불교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한 교계현실에서 부다피아가 인터넷과 연결하여 외국불교 소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불교계의 문제점이나 방향에 대해 일반 재가불자와 스님들의 의견등을 함께 게재하면 어떨까?

앞으로 부다피아가 불교정보 전문 BBS로 굳게 자리매김되기를 바란다.

불교만화

쉽게하는 불교공부
문서포교의 선구자
법보시의 새영역

온가족이 함께 봅니다

불타석가모니 · 만화화엄경
만화 반야심경 · 만화 백유경 · 만화 성철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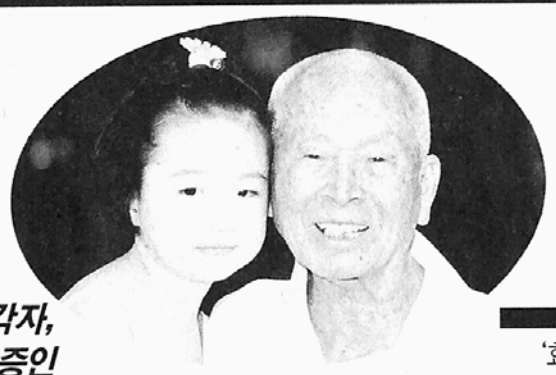
* 군부대나 교도소에 법보시할 회원을 찾고 있습니다. *

불교만화사
전화 : 723-8426~7 / 팩스 : 725-0194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4층

매우 감동적입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꾸 몇번씩봅니다

만화불교

어·른·과·어·린·이·가·함·께·보·는·책
어린이를 닮은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추천도서

민족불교의 선각자,
한국불교의 산 증인
강석주 큰스님의 투명한 이야기

석주 스님은 지극히 꾸밈없고 소박한 생활로 우리에겐 친근한 할아버지가 되어 잊기 쉬운 '효사상'을 일깨웠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오계'를 지키게 했다. 이렇듯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에서 '스님 할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 있는 큰스님, 늘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이를 닮아 사는 스님이다.

[redacted] 이 책을 통하여 '효사상'을 강조한 석주 큰스님의 참뜻을 알 수 있다

•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은 사람다움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다.
• 부처의 참뜻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마음 깨끗이 하기를 어린 아이와 같이 하라.

-석주 스님 말씀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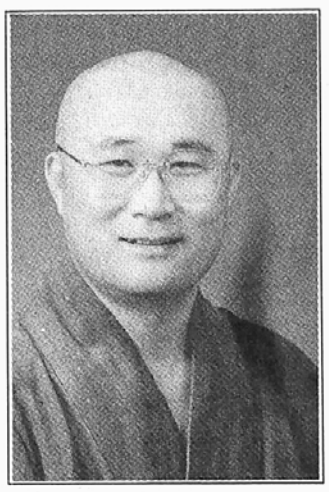
케이스에 담겨있는 예쁜 책은 이웃에 선물합시다!
지금 전국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조철규 지음 / ①·② 각권 값 4,500원

우리출판사 Tel. 313-5047 Fax. 393-9696

마음이 열리면
天堂도 보이지요.

시인 윤지원 스님이 산문 밖 우바이에게 보내는 산사의 편지



情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오랜 세월과 더불어 많은 사연을 동반하게 됩니다.
누구나 곡진한 사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살듯이.
구름을 벗하고 산에 깃들어 사는 수행자에게도 닦아도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情이란 것이 있지요 -본문 중에서-

산문 밖 우바이로부터 거듭되는 서신을 받고 출가 승려로서 인간적 사랑과 그리움, 연민, 고독과 고뇌, 번민, 원망,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추억, 깨달음, 현실과 영원 등을 묻고 진솔하게 답한 내용들이다.
산사의 골 깊은 운치와 서정어린 문체로 아름답고 평안한 마음을 열어주는 지혜의 보고이다. 지금 전국 서점서 절찬리 판매 중!

신국판 / 300쪽 / 값 6,000원

서울시 은평구 역촌1동 17-12
전화 : 02) 352-6406~7
팩스 : 02) 389-3262

도서출판 삼보

도서총판 운주사
전화 : 02) 720-9372~3
팩스 : 02) 723-0646

축 창간1주년

대 한 불 교 천 태 종

종정 김 도 용

총무원

원 장 전운덕
총무부장 김도원
교무부장 박덕수
교육부장 김국성
재무부장 남궁도재
사회부장 이문덕
규정부장 변춘광
종정사서실장 박법전

종의회

의 장 윤덕산
부의장 김국성
부의장 김걸두

감사원

원 장 주정산
감사위원 조진덕

참의원

원 장 박형철
간 사 이상래
금강불교대학 학장 이재창
구인사 전문강원 김지복

총본사 구인사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전화 : (0444) 423-7100 ~ 8 / 팩스 : (0444) 20-3399

축 창간1주년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종정 김 대 천 사서 김 성 진

원로원장 이혜웅
위 원 박종영
김명우
신경봉
조혜경
박삼우
장영월
김자월

총무원장 이홍파
총무부장 김지섭
교무부장 황법명
재무부장 김경철
사회부장 김성철
감찰부장 김화엄
조직부장 이종현
포교위원 정법성
종무위원 전동화

종회의장 정법륜
부 의 장 신무본
정춘담
사무국장 지법정

교육원장 김동령
수교부장 홍지묵
역경부장 오혜원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8-3
☎ (02) 763-3109, 3345 / FAX : (02) 765-5851

축 창간1주년

대한불교 진각종

총인 각 해
총인 사서실장 휴 명

통리원

통리원장 락 혜
총무부장 진 산
재무부장 혜 인
홍교부장 덕 혜
건설부장 대 경

중앙교육원

교육원장 도 혼
교법부장 혜 정
교육부장 효 암
교무부장 의 현

사감원

사감원장 색 암
사감부장 진 당

종의회

종의회의장 혜 일
종의회 부의장 일 정
종의회 부의장 복선정
사무처장 덕 정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 913-0751 ~ 3, 913-0803 ~ 4

축 창간1주년

불교총지종

종 령 록 정
통리원장 효 강
총무부장 원 봉
재무부장 법 공
사회부장 혜 암
교정부장 사홍화
재단사무국장 지 성

중앙종의회 의 장 송 하
부의장 우 승
사감원장 총지화

경·인 교구장 경 관
충·전 교구장 사홍화
대구·경북 교구장 수 성
부산·경남 교구장 의 강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 552-1080~3
팩스 : 552-1082

축 창간1주년

90세 청년—동국을 보여주자

개교 90주년 기념 앰블렘 및 표어 현상 공모

2006, 개교 **100**년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90세 청년 동국을 보여주는 표어와 앰블렘을 공모합니다.
동국대학교의 자랑찬 역사와 전통, 21세기를 향한 발전의지 등을
가득 담아 응모해 주십시오.

현상공모안내

구 분	앰 블 렘	표 어
응모대상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동문, 교직원, 일반인	
작품내용	90년 역사를 함축하고 미래동국의 비전을 느낄 수 있는 상징 도안	-90주년을 기념하는 내용 -21세기(또는 개교 100주년)를 향한 동국 발전의 의지를 담은 내용 -동국인의 화합과 단결을 담은 내용
작품형식	A4크기의 화판에 4원색에 이내로 직접 도안 또는 컴퓨터그래픽 출력물	20자 이내(소정 양식)
제출기한	1995. 10. 23(월) 17:00까지 (당선작이 없을 경우 2차 공모 예정)	1995. 10. 23 (월) 17:00까지 (당선작이 없을 경우 2차 공모 예정)
시상내용	당선작(1작품):100만원 가작(2작품):각 30만원	당선작(1작품):50만원 가작(2작품):각 20만원
제 출 처	동대신문사(학생회관), 개교100주년 기념사업본부(본관 4층)	
심사위원	개교 90주년 행사집행위원회에서 별도 위촉	
발표 및 시상식	1995년 11월 중 동대신문에 발표, 시상식은 발표시에 공고함	

문의 : **260-3792~4**(개교100주년 기념사업본부)

1995. 10. 15

동국대학교 개교 90주년 기념행사 집행위원회

축 창간1주년

삼화불교대학

학 장 혜 인
교학처장 최 복 기

불교학과장 정 용 수
유아교육학과장 심 경 자
신문방송학과장 조 광 희
중국어과학과장 方 徹
불교미술학과장 김 종 섭

졸업생 일동 · 재학생 일동

총 무 혜 원
재 무 정 금 옥
기획사무 김 용 섭
교 무 조 일
남경한의대부학장 査 傳 龍
조 교 장 승 이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511-1080 · 2026 · 2027 · 2028
TEL : 511-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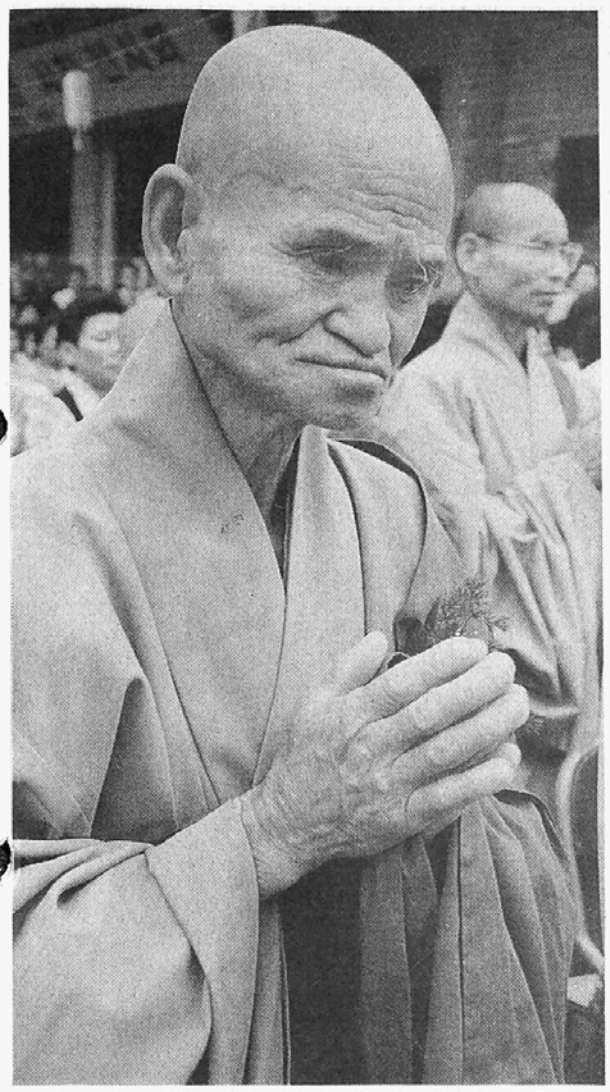
중국명문 한의대학

박사과정연수

- 대 상 : 한의사, 한약사, 스님, 불자
- 기 간 : 8박 9일
- 연수후 : 박사과정 연수 수료증(침구 · 기공)
- 인 원 : 15명 이내
- 출발일 : 1995년 11월 27일(월요일)
- 남경중의약 대학 : 중국남경 660-7129
- 한의과대학과정, 석사과정, 박사 과정 입학 문의
- 문의처 : 자매대학—삼화불교대학
  TEL : (02) 511-2026, 2027, 2028, 1080
  FAX : (02) 511-1080

도천스님의 하루

창간1주년 특집 II



◇긴 눈썹, 꽉 다문입, 맑은 얼굴 그대로가 수행자의 체취를 풍긴다. 굳은 살로 뭉쳐진 큰 손이 평생을 운력과 수행으로 살아온 스님의 이력을 보여준다. 두문불출하던 도천스님은 화엄사 석탑에서 출현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참석차 모처럼 화엄사에 나들이 했다.

"그저 일하고 때되면 밥먹지"

금산 태고사 도천스님의 하루

해뜨기 전부터 해질때까지 운력…밤엔 참선
66년전 금강산서 출가…40년간 두문불출

큰 산(山)에는 큰 스님이 계신다.

충남과 전북에 걸쳐 자리한 대둔산에도 태고사(太古寺)에 도천(道川) 큰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

도천스님은 큰스님이라 하지만 일반에게는 그리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40여년간 두문불출하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행에 전념한다'는 풍문 뿐이다. 더구나 일체 말을 하지않아 묵언스님이라는 소문까지 들린다.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그래도 도천스님의 하루를 지켜보는것이 곧 법문을 듣는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으로 무작정 태고사를 찾았다.

저녁 예불이 진행되건만 도량 어디에도 도천스님은 보이지 않았다. 공양주보살이 "노스님은 건너편에서 일하고 계실것입니다"고 한다.

산속이어서 어둠이 빨리왔다. 어스름한 곳에 대여섯명의 인부가 공사판을 벌이고 있었다. 유독 벙거지를 쓴 스님 한 분이 부산하게 공사를 지휘하고 있기에 합장으로 예를 표했다.

작은체구, 곽다문 입, 긴눈썹이 범상치 않아 보인다. 남의자식 대하듯 거들떠보지도 않는 스님을 지켜보다가 공사판에 합류했다. 이날 작업은 케이블을 연결해 대형 철근을 올리는 일로 무척 힘이 들었다. 스님도 직접 밧줄을 손에 잡고 철근을 옮긴다.

작업은 어둠이 완전히 깔린 7시경에 끝났다. 모두들 손을 털며 공양간으로 가는동안에도 스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시자스님이 서울에서 온 기자라는 소개가 방문밖으로 들렸지만 들어오라는 소리가 없다. 두어시간을 스님방 언저리에서 서성거렸으나 소리없이 불빛만 보였다.

대둔산 인근에서 도천스님은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고 있다. '힘이 장사다' '밤이면 산속에서 도(道)를 닦는다' '축지법을 쓴다' 등이 숱한 일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다. 어느 여름, 대전에서 왔다는 돈많은 보살들이 찾아와 시주를 하겠다고 했을 때 도천스님은 벼락같이 호통을 치며 쫓아냈다고 한다. 짧은바지를 입고 수도도량을 찾았기에 공부하는 자세가 틀렸다는 것이다.

새벽 3시, 어김없이 도량석 목탁이 대둔산을 일깨웠다. 스님방에 불이 켜있었지만 감히 방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예불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뒤 밖으로 나가보니 도천스님이 계신다. 실장갑을 끼고서 도량의 곳곳을 살피면서 정리하고 있다. 대웅전 앞마당은 이미 깔끔하게 비질이 되어있다. 해가 뜨기에는 아직 이른시간이건만 도천스님의 아침은 무척 바쁘게 시작되고 있었다.

도천스님은 1929년 '평생 참선하며 살것'을 발원하며 금강산 마하연사에서 스님이 됐다. 도천스님의 은사는 신묵언스님이다. 은사스님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평생 묵언수행을 하여 모두들 묵언스님으로 불렀던 것이다. 도천스님의 말이 없음은 바로 은사스님의 가르침인듯 하다. 해방이 되고 북한에 종교탄압이 일자 스님은 남한으로 내려왔다. 전국을 유랑하던중 금강산과 비슷한 기암절벽이 있는 대둔산에서 걸음을 멈췄다. 오늘의 태고사다.

다시 공사판의 노동이 시작됐다. 그냥 스님을 옆에서 뵐수 있는것만으로도 환희심이 났다. 86세의 노스님을 따라 팔을 걷어부치고 힘을 썼다. 점심나절이 되었을까. 도천스님이 다가오더니 "나는 그저 일하고 때되면 밥먹고 잠이나 자면서 살아왔어"라며 말을 한다.

감격스러웠다. 스님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스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참선하는 스님네들이 공부하여 도를 이루고 신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는 수행도량을 일으키는데 무슨 힘이 들어."

급한 마음에 격식없이 생각나는 것을 물었다.

"왜 별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말은 아무리 지껄여도 쓸데 없는 거야. 할 말만 해야지. 공부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

"일하면서 공부는 언제 하세요?"

"일하는것이 공부하는것이야. 일과 공부가 둘이아니지. 공부안하고 일만하면 후세 사람은 좋지만(도량불사가 완성되므로) 스님네가 할일은 아니지. 항상 내 생각(화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

도천스님은 혼자서 40여년간 태고사 중창불사를 진행해 왔다. 추운 겨울에도 장갑을 끼지 않고 손수레를 끌며 진입로를 닦았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해 뜨기 전에 밖에 나가 해 지기 전까지 운력을 했다. 이렇게 도천스님이 일을 하고있어 태고사는 '3백65일 계속 불사중'이다.

큰스님 아래 큰 제자가 있는것일까. 도천스님의 제자 가운데 정안(正安)스님이 있다. 스님은 태고사에서 출가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다. 무려 27년째라고 한다. 앞으로 3년이면 1만일 기도를 회향한다.

"큰스님은 불보살의 화현이십니다. 말세중생계에는 말(言)만 있고 행(行)이 없는데 큰스님은 중생들에게 불보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안스님이 계속 도천스님의 가르침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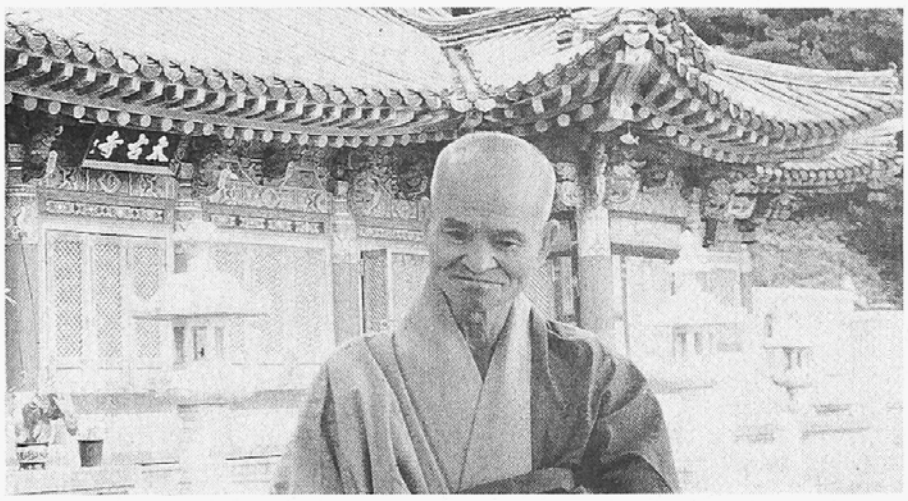
"큰 스님은 저희에게 세가지 가르침을 강조하십니다. 평생 공부하라, 계행을 지켜라, 나를 위해 살지말고 일체중생을 위해 사는 보살행을 펼쳐라. 이것은 곧 큰스님의 청규이기도 합니다."

태고사는 깊은 골짜기에 자리해 있다. 층층이 축대를 쌓아 도량을 이루고 있다. 축대사이의 작은 공간마다에는 채소밭이 일구어져 있다. 도천스님이 '그냥두면 잡초만 생긴다'며 이랑을 만들었던 것이다.

대둔산에도 단풍이 곱게 깔리고 있다. 많은 단풍객들이 큰 산 대둔산을 찾는다. 그러나 정작 도천 큰스님을 친견하고 배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들은 명산 대둔산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바라본 대둔산 능선이 보살의 머리형태를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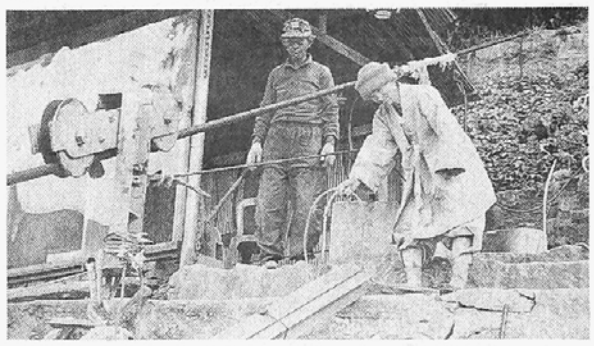
이준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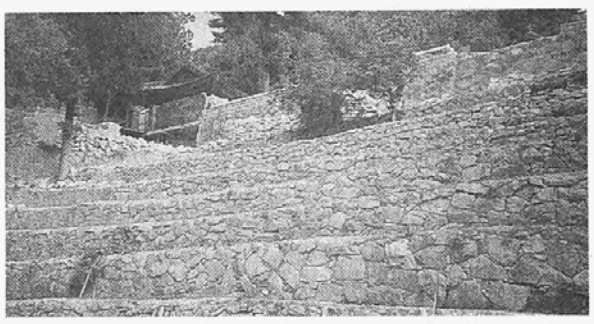
◇요즈음 태고사는 수도도량 중창불사 중이다. 스님에게 일은 곧 수행이다. 40여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 뜨기 전에 밖에 나가 해 지기 전까지 운력을 했다.



◇검정고무신을 신은 도천스님(사진 왼쪽)이 손수 손수레 끌며 일을 하자 1만일 기도중인 제자 정안스님(사진 오른쪽)이 은사스님을 돕고 있다.



◇태고사는 신라 원효스님이 창건했다. 6.25때 전소한 법당을 도천스님이 직접 운력하며 중창했다.



◇태고사는 대둔산 낙조대 아래에 자리해 있다. 험한 경사지 층층마다 채소밭을 일구어 부식거리를 생산한다. 돌축대가 마치 도천스님의 40년 수행을 상징하는 듯 하다.

부산 발전과 2002년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 기원

제5회 낙동강 연등대법회

일 시 : 불기 2539년 10월 28일(음. 9월 5일) 토요일 오후2시

장 소 : 낙동강 하구언 을숙도

접수처 : 부산시내 각사암 및 포교당

동참금 : 1인 1등(10,000원)

교통편 : 지하철 하단역에 하차하여 행사장행 버스이용 (2분간격 배차)

행사내용

■ 식전행사
오전 12시 ~ 2시:수륙대재

■ 본행사
오후 2시 ~ 3시 30분:기원법회

■ 식후행사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불자연예인 공연 및 노래자랑
박상규 사회로 진행하는 불자 노래자랑에 참가하실 분은 10월 20일까지 접수바랍니다.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실 ☎ (051) 867-0501
오후 5시 30분 ~:유등행사 및 블꽃놀이

불자노래자랑 시상

대 상 : 상패 및 상금 50만원(1명)
금 상 : 상패 및 상금 30만원(1명)
은 상 : 상패 및 상금 20만원(1명)
동 상 : 상패 및 상금 10만원(2명)
장려상 : 상패(3명)
인기상 : 상패(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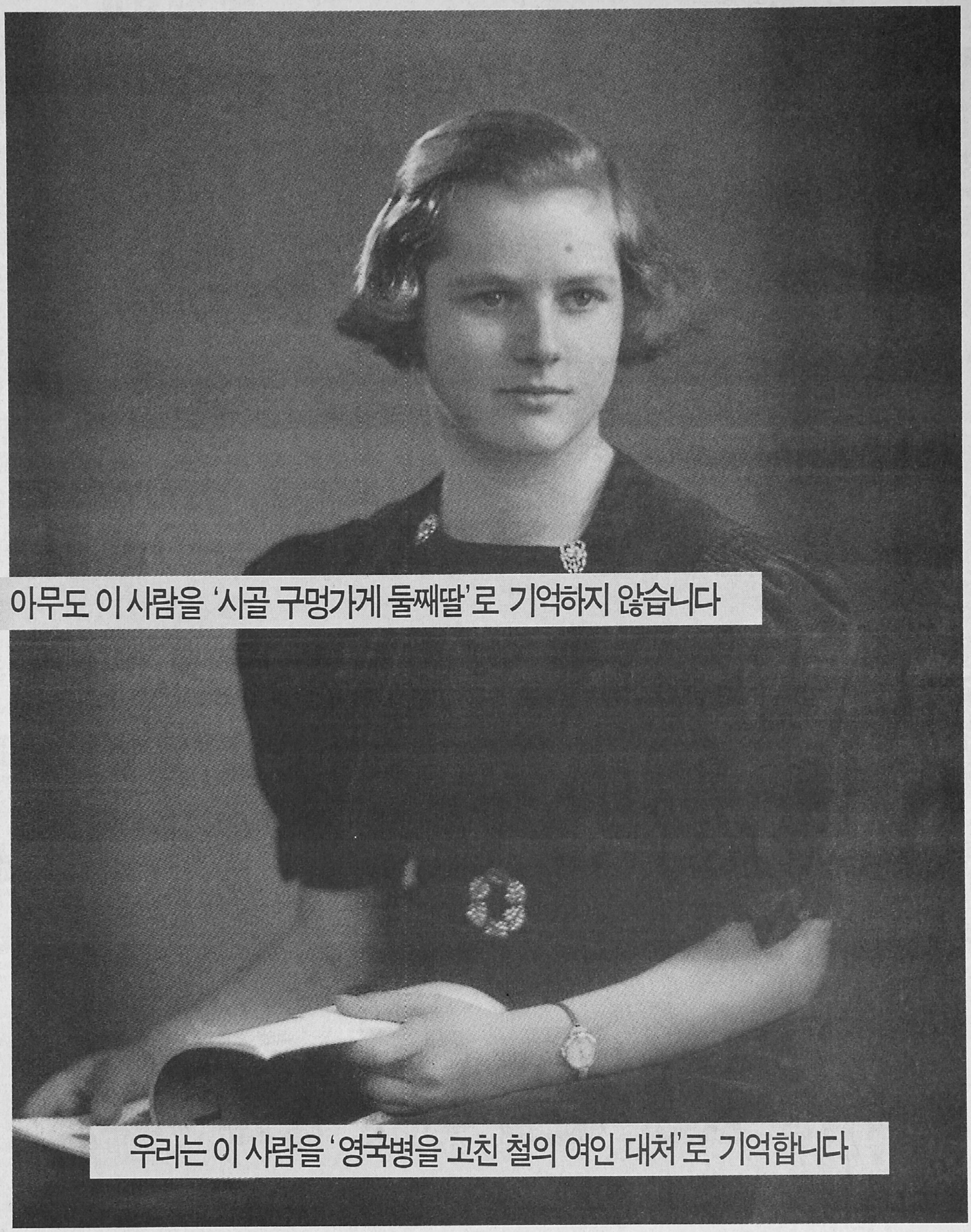
행운의 추첨 상품

특등 : 대형냉장고(1명) 1등 : 텔레비젼(1명)
2등 : C.D플레이어(2명) 3등 : 가스렌지(3명)
장려상 : 전기후라이팬(10명)

※참가하신 모든분에게 기념품 증정

주최 :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문의 : (051)867-0501~3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세계일류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는 사회

누구나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 그 주역은 당신입니다.

작은 도시 그랜덤에서 잡화상의 둘째딸로 태어나 명문 옥스포드 대학의 장학생이 되었던 소녀 — 대처
쌍둥이의 엄마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5번의 낙선끝에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그녀는
최초의 여수상이 되어 영국을 재건했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여성 — 당신이 세계일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삼성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삼성은 인사제도 개혁을 통해 '여성차별이 없는 열린시대'를 만들고 있으며 '89년부터 22개 어린이집을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SAMSUNG 삼성